

연구보고(고유과제)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안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수석연구위원)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설인자(백석대학교 · 교수)

원구환(한남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김윤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청소년 우대제도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협력하여 교통수단, 문화활동, 소비활동, 여가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 등의 영역에서 청소년 중심의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됨.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 우대제도를 검토하고자 하였음.
- 주요 국가의 청소년할인 및 카드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청소년증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 우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주요 연구내용

- 청소년들의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들의 우대제도에 대한 욕구(96.8%)는 높으나 인지도(10.6%) 및 만족도(30%내외)가 매우 낮음. 특히, 청소년증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청소년의 4.7%, 비학생의 10.6%만이 보유하고 있어 정책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청소년증 보유율이 낮은 것은 정보 부족, 청소년증을 통한 할인폭과 할인율의 부족 등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남.
-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의 청소년 우대제도를 청소년카드제, 수당제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음.
- 일본의 청소년 우대제도 사례 : 토요일 국·공립박물관 무료입장, 입학시즌 항공권할인제도, 실습용 통학정기승차권제도, 추석 연말연시 귀성을 위한 근로청소년여객운임할인제도 등 다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호주의 청소년 우대제도 사례 : 청소년수당, Austudy, Abstudy, 청소년 특별할인카드(Concession card), 직업훈련생 할인카드, 학생 교통 통학비 지원제도 (School Student Transport Scheme)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수당제도 등이 잘 발달되어 있음.
- 캐나다의 청소년 우대제도 사례 : 중고생패스(GoCard), 특별우대요금(Concession fares), FastTrax 스티커, 캐나다 학생할인 카드(Student Price Card), 학생절약 할인카드(StudentSaver Card) 등 학생의 대중교통이용이나 여가문화 할인 등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독일의 청소년 우대제도 사례 : 학업지원을 위한 청소년 우대제도(연방 교육지원법), 뮌헨(München) 시 정부의 교통우대를 위한 녹색 청소년카드, 청소년고객을 위한 메르키쉬-오버란트(Märkisch-Oderland)은행할인카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 Rhein-Westfalen) 주(州)의 “Florikarte”, 하노버(Hannover)시에 거주 대학생들을 위한 보너스카드 “Hausmarke”, 칼스루에(Karlsruhe)시(市) 아동청소년단체 회원증의 할인카드겸용 사례 등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할인카드가 운영되고 있음.
- 프랑스의 청소년 우대제도 사례 : Imagine' R 카드제도, Alsace지역청소년카드(Carte VitaCulture), Franche-Comté지역청소년카드(Carte Avantages culturels), Rhône-Alpes지역청소년카드(Carte M'ra), Essonne지역청소년카드(Carte jeune 91), 낭시문화카드(Carte Nancy culture) 등 광역자치단체 수준부터 소규모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을 살린 청소년카드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
- 영국의 청소년 우대제도 사례 : 커넥션스 카드(Connexions card), 청소년기회카드(Youth Opportunity card), 영스코트카드(Young Scot Card), 에버던시의 Accord Card, 글래스고 Young Scot Card 등이 있음.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청소년사업을 청소년카드제와 연계 운영하여 90%이상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정책제언

- 청소년 우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회가 청소년을 책임져야 한다는 청소년 우대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의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카드모델 개발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청소년 우대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 내 청소년 우대제도 참여기관 및 시설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예산지원 확보를 위한 ‘청소년우대(카드)제도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반학생,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소외지역청소년 등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우대제도의 개발이 필요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증을 이용한 할인폭과 할인율을 확대하고 홍보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청소년카드의 개발이 필요함.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 시도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 민간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음.
- 청소년증이나 청소년카드제 운영 시 청소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인트 제도의 개발, 주말 등의 시기에 청소년 관련시설 무료 개방 등의 조치가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5
3. 연구의 방법	6
1) 문헌자료조사	6
2) 설문조사	7
3) 사례조사	9
4)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워크숍 개최	9
II. 이론적 배경	11
1.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념	13
1) 청소년우대의 목적	14
2) 청소년우대의 대상	15
3) 청소년우대의 내용과 방법	16
4) 청소년우대의 시행기관	16
2. 청소년 우대제도의 도입 배경	17
3. 청소년복지정책과 청소년 우대제도의 관계	20
III. 청소년 우대제도 현황	22
1. 국내 청소년 우대제도 실시 현황	25
1) 교통수단	25
2) 문화활동	27
3) 여가관련활동	29

4) 소비활동	34
5) 청소년증 할인	35
2. 청소년 우대제도 관련 법·제도 현황	35
1) 청소년 우대제도 관련 법률 검토	35
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청소년 우대제도	39
IV. 청소년 우대제도 및 청소년증에 대한 실태조사	43
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5
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45
2) 청소년 우대제도 이용실태	51
3)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개선 욕구	57
2. 청소년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1
1)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61
2) 청소년증 이용실태	63
3) 청소년증에 대한 개선욕구	66
3. 요약 및 소결	68
V. 외국의 청소년 우대제도	71
1. 일본	73
1) 정책방향	73
2)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74
3) 시사점	81
2. 호주	82
1) 정책방향	82
2)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83
3) 시사점	97

3. 캐나다	98
1) 교통수단	98
2) 문화활동	106
3) 여가활동	110
4) 소비활동	113
5) 교육/직업	115
6) 시사점	115
4. 독일	119
1) 정책방향	119
2) 독일의 청소년 우대정책 현황	120
3) 시사점	130
5. 프랑스	133
1) 정책방향	133
2) 청소년카드 제도	137
3) Imagine'R	149
4) 시사점	150
6. 영국	152
1) 정책방향	152
2) 커넥션스 카드(Connexions card)	153
3) 청소년 기회카드>Youth Opportunity Card)	154
4) 스코틀랜드 Young Scot Card	156
5) 시사점	164
VI. 청소년 우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7
1. 청소년 우대제도의 문제점	169
1) 청소년 우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69
2) 법·제도상의 문제점	170

- 2.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선 방안 172
 - 1) 청소년 우대제도 개선 방안 172
 - 2) 청소년 우대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77

- 참 고 문 헌 183

부 록

- 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욕구조사 설문지 191
- 2. 청소년우대제도에 관한 세부 변인별 분석표 201

표 목차

<표 I-1> 주요 조사내용	7
<표 I-2> 청소년 조사대상 표집	8
<표 III-1> 교통수단 청소년 할인 내용	26
<표 III-2> 문화활동 청소년 할인 내용	27
<표 III-3> 여가관련활동 청소년 할인 내용	31
<표 III-4> 소비활동 청소년 할인 내용	34
<표 III-5>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우대의 내용	36
<표 III-6> 청소년의 범위와 관련된 법률간 규정	37
<표 IV-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	45
<표 IV-2>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생각	46
<표 IV-3> 청소년 우대에 대한 찬성이유	47
<표 IV-4> 청소년 우대에 대한 반대이유	48
<표 IV-5> 청소년 우대(청소년 할인 등)에 대한 만족도	50
<표 IV-6> 지난 1년간 이용정도	53
<표 IV-7> 청소년 우대 필요 정도	56
<표 IV-8> 청소년 할인제도등 우대제도 개선내용	58
<표 IV-9> 청소년 우대 대상 연령에 대한 생각	59
<표 IV-10> 청소년 우대방식의 형태	60
<표 IV-1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정도	61
<표 IV-12> 청소년증을 알게 된 경로	63
<표 IV-13> 청소년증 보유여부	64
<표 IV-14> 지난 1년간 청소년증 이용 정도	65
<표 IV-15> 현재 청소년증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인식	66
<표 IV-16> 청소년증 사용시 가장 우대되어야 할 영역	67

<표 V-1> 일본의 국립박물관 학생할인요금제도	74
<표 V-2> 센타링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94
<표 V-3> 벤쿠버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체계 (2007.7)	101
<표 V-4> 오타와 버스요금	117
<표 V-5> 독일의 유럽청소년카드 참여업체와 할인내용 사례 ..	129
<표 V-6> 프랑스 청소년 우대정책 사례	137
<표 V-7>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운영 청소년카드 사례	139
<표 V-8> 프랑스 청소년카드 가입대상 청소년의 연령층 ..	143
<표 V-9> 프랑스 청소년카드 서비스 내용	144
<표 VI-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	180
<표 부록-1> 버스에 대한 만족도	201
<표 부록-2> 지하철에 대한 만족도	202
<표 부록-3> 철도에 대한 만족도	202
<표 부록-4> 항공에 대한 만족도	203
<표 부록-5> 배에 대한 만족도	203
<표 부록-6> 궁·능에 대한 만족도	204
<표 부록-7>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만족도	204
<표 부록-8> 영화/연극에 대한 만족도	205
<표 부록-9> 공연관람에 대한 만족도	205
<표 부록-10> 놀이공원/동·식물원에 대한 만족도	206
<표 부록-11> 여행관련상품에 대한 만족도	206
<표 부록-12>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만족도	207
<표 부록-13>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만족도	207
<표 부록-14> 미용실/이발소에 대한 만족도	208
<표 부록-15> 체인음식점에 대한 만족도	208
<표 부록-16> 서적구입에 대한 만족도	209
<표 부록-17> 이동통신·인터넷에 대한 만족도	209

<표 부록-18> 외국어학원에 대한 만족도	210
<표 부록-19> 예체능학원에 대한 만족도	210
<표 부록-20> 직업훈련학원에 대한 만족도	211
<표 부록-21> 컴퓨터학원에 대한 만족도	211
<표 부록-22> 지난 1년간 버스 이용 정도	212
<표 부록-23> 지난 1년간 지하철 이용 정도	212
<표 부록-24> 지난 1년간 철도 이용 정도	213
<표 부록-25> 지난 1년간 항공 이용 정도	213
<표 부록-26> 지난 1년간 배 이용 정도	214
<표 부록-27> 지난 1년간 영화/연극 이용 정도	214
<표 부록-28> 지난 1년간 공연관람 이용 정도	215
<표 부록-29> 지난 1년간 놀이공원/동식물원 이용 정도	215
<표 부록-30> 지난 1년간 여행관련상품 이용 정도	216
<표 부록-31> 지난 1년간 레저스포츠시설 이용 정도	216
<표 부록-32> 지난 1년간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정도	217
<표 부록-33> 지난 1년간 미용실/이발소 이용 정도	217
<표 부록-34> 지난 1년간 체인음식점 이용 정도	218
<표 부록-35> 지난 1년간 서적구입 이용 정도	219
<표 부록-36> 지난 1년간 외국어학원 이용 정도	220
<표 부록-37> 지난 1년간 예체능학원 이용 정도	221
<표 부록-38> 지난 1년간 직업훈련학원 이용 정도	221
<표 부록-39> 지난 1년간 컴퓨터학원 이용 정도	222
<표 부록-40> 버스의 우대 필요정도	222
<표 부록-41> 지하철의 우대 필요정도	223
<표 부록-42> 철도의 우대 필요정도	224
<표 부록-43> 항공의 우대 필요정도	225
<표 부록-44> 배의 우대 필요정도	226
<표 부록-45> 공능의 우대 필요정도	227

<표 부록-46> 박물관/미술관의 우대 필요정도	228
<표 부록-47> 영화/연극의 우대 필요정도	229
<표 부록-48> 공연관람의 우대 필요정도	230
<표 부록-49> 놀이공원/동·식물원의 우대 필요정도	231
<표 부록-50> 여행관련상품의 우대 필요정도	232
<표 부록-51> 레저스포츠시설의 우대 필요정도	233
<표 부록-52>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등)의 우대 필요정도	234
<표 부록-53> 미용실/이발소의 우대 필요정도	235
<표 부록-54> 체인음식점의 우대 필요정도	236
<표 부록-55> 서적구입의 우대 필요정도	237
<표 부록-56> 이동통신·인터넷의 우대 필요정도	238
<표 부록-57> 외국어학원의 우대 필요정도	239
<표 부록-58> 예·체능학원의 우대 필요정도	240
<표 부록-59> 직업훈련학원의 우대 필요정도	241
<표 부록-60> 컴퓨터학원의 우대 필요정도	242

그림 목차

<그림 V-1> 남호주주(South Australia)의 할인카드	89
<그림 V-2> 호주의 특별할인카드	91
<그림 V-3> 15세~19세 청소년들의 실업률 경향	97
<그림 V-4> 토론토 버스요금	117
<그림 V-5> 유럽 청소년카드 발급 국가	139
<그림 V-6> 청소년카드의 디자인	141
<그림 V-7> Carte VitaCulture의 활용 지역 및 발급 지역	147
<그림 V-8> 스코틀랜드 Young Scot Card	156
<그림 V-9> 에버던시의 Accord Card	161
<그림 V-10> 글래스고 Young Scot Card	162
<그림 VI-1> 청소년의 우대와 관련된 연령범위	17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들을 위협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다양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다.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1990년대 초를 기준해서 보면, 벌써 20년 가까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정책의 결과가 수혜자인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요구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들에게 곧바로 전달되고 청소년들도 손쉽게 정보를 입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접촉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과 수요자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 결과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청소년 우대제도가 이러한 수단 중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청소년중심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보통 청소년 우대제도는 교통수단, 문화활동, 소비활동, 여가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 등의 영역에서 무료나 할인, 지원금 제공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 미치는 효과가 즉각적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주요 우대제도의 수단으로 청소년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이나 사업을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특성에 맞는 청소년카드를 개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자율

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청소년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청소년 우대제도를 일부 소외청소년을 위한 제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우대 대상이나 범위 등이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우대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청소년증 등이 시행되고 있다. 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청소년할인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청소년할인이 일부 교통수단이나 문화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며, 할인율도 10-30% 내외로 그리 높지 않다. 특히 레저·스포츠활동, 소비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학생의 할인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부터 발급되었던 청소년증의 경우에도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이용이 10% 내외로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과 전문가들은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의 부족과 청소년증의 할인혜택의 확대 등이 필요함을 언급해 왔으나(조아미, 2006: 43~50), 특별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증과는 별도로 1996년 이래로 청소년카드 또는 청소년문화카

드도입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어 왔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된 바 있다.

청소년 우대제도는 청소년시기에 꼭 필요한 자율적 활동을 국가사회가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기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소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정책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소년할인제도나 카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욕구와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해서 영역별 실태를 조사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개념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외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청소년 우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청소년 우대제도의 사례를 통해서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 청소년 우대제도의 도입배경, 청소년복지정책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여러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우대의 목적이나 대상, 내용 및 방법, 시행기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청소년 우대제도에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문화활동, 여가관련활동, 소비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의 청소년 우대제도 유형별로 우대 시행 기관, 우대

대상, 우대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청소년 우대제도가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우대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을 조사하여 우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우대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조사와 발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워크숍 등을 통해서 청소년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의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현행 청소년 우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외국의 우대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 우대제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자료조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을 각각 조사하였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항공, 배 등), 문화활동(궁·능, 박물관/미술관, 극장, 공연장 등), 여가관련활동(놀이공원, 동물원, 체육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등), 소비활동(미용실/이발소, 체인음식점, 서적구입, 이동통신·인터넷), 교육·진로개발활동(외국어학원, 예·체능학원,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등에 대한 청소년 할인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우대제도인 청소년증의 운영 실태와 지역별 도입 현황을 파악하였다.

2) 설문조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9~24세의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할인제도와 청소년증 등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만족도, 그리고 이용현황을 파악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조사내용은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과 이용정도, 일반적 특성과 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은 우대제도에 대한 인지정도와 찬반의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우대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우대제도를 교통수단, 문화활동, 여가관련활동, 소비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의 5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검토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표 1-1> 주요 조사내용

대분류	조사영역	세부내용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인지도	우대제도의 인지 정도, 찬반의견 및 이유
	만족도	교통수단, 문화활동, 여가관련활동, 소비활동, 교육·진로 개발활동 등에 대한 만족 정도, 불만족 이유
	이용 및 필요정도	교통수단, 문화활동, 여가관련활동, 소비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 등에 대한 지난 1년간 이용정도, 우대필요 정도
	개선점	바람직한 우대대상 연령, 우대방식, 개선사항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인지도	인지 정도, 인지 경로
	이용도	소유 여부, 청소년증을 통한 교통수단, 문화활동, 여가관련활동 이용 정도
	문제점 및 개선점	청소년증의 문제점, 희망하는 우대 영역
일반적 특성과 생활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신분, 가정의 월평균소득
	생활	한달 평균 용돈, 용돈 조달 방법, 용돈 사용 분야

우대제도 이용정도는 교통수단, 문화활동, 여가관련활동, 소비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에 대한 지난 1년간 이용정도와 각 영역에서의 우대필요 정도, 청소년 우대제도에 적용되어야 할 대상연령, 우대방식 등과 우대제도의 개선점 등에 대한 문항들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증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인지 경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청소년증 이용 정도, 그리고 현재 청소년증의 문제점 및 청소년증을 통해서 우대되어야 할 영역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 밖에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 연령 가구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평균 용돈 및 조달방법, 용돈 사용분야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9-24세의 전국 청소년인구 10,871,222명의 0.09%인 1,000명을 지역별(도시, 농어촌), 성별(남, 여), 신분별(학생, 비학생)로 비례 표집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52.5%, 여자 47.5%,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85.0%, 농어촌지역 15.0%, 신분별로는 학생 81.7%, 비학생 18.3%였다.

<표 1-2> 청소년 조사대상 표집

단위 : 명(%)

구분		청소년(9-24세)	청소년 표집 수
성별	남	5,712,621(52.5)	525(52.5)
	여	5,051,533(47.5)	475(47.5)
지역별	도시	9,236,086(85.0)	850(85.0)
	농어촌	1,528,068(15.0)	150(15.0)
신분별	학생	8,883,405(81.7)	817(81.7)
	비학생	1,987,817(18.3)	183(18.3)
계		10,871,222(100.0)	1,000(100.0)

※ 청소년 모집단(9-24세)은 2005년 인구총조사 인구에서 추출한 것임.

3) 사례조사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스코틀랜드) 등 선진국의 청소년 우대제도의 도입 배경, 우대 영역 및 내용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과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하여 외국의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례조사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각 국가에 대한 사례조사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를 통한 집필의뢰와 연구자 직접방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캐나다,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조사하였으며,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유학 경험이 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4)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워크숍 개최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념과 영역, 그리고 선진 외국의 사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 우대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선 또는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념
2. 청소년 우대제도의 도입 배경
3. 청소년복지정책과 청소년 우대제도의 관계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념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우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우대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잘 대우함 또는 그러한 대우라는 뜻을 가진다(이희승, 1994). 영어로는 preferential treatment, special treatment, privileged treatment, favorable treatment, good treatment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민영빈, 1989). 여기에서 우대는 특정한 대상에게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서비스 자체의 특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실생활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대제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대제도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서비스 우대 고객이나 특정 타겟집단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인 및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사에서 상용고객 유치를 위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한다거나 은행에서 해외여행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율을 우대하는 경우가 전자에 속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관련 우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할인 등이 후자에 속한다.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에 국한하고 있어, 청소년우대가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할인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우대의 목적이나 우대가 적용되는 청소년 대상 연령과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대정책에 국한해서 보는 것보다는 여러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우대의 목적이나 대상, 내용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청소년우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청소년우대의 목적

청소년을 우대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의견이 있지만, 각 국가나 지역사회에서는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청소년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우대는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기회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된다. 특히, 청소년양육의 책임이 더 이상 가정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책임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우대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둘째, 자기능력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우대제도는 가정에서 이탈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이나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청소년녹서(Youth Matters)를 통하여 청소년기회카드(Youth Opportunity Card)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외청소년들을 건설적인 활동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참여하게 될 활동에 대한 보다 많은 선택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급자 중심의 지원은 청소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지원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기관의 관심과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애착심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우대제도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의회, 민간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 없이는 어렵다. 또한 이들 기관들은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우대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확대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사회 특성을 살린 청소년카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우대의 대상

청소년 우대 대상은 국가별, 지역별로, 그리고 우대 내용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교통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등에서는 중·고등학생이 주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청소년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에 24세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의 경우에도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공립박물관, 교통시설 이용에 있어서 초·중·고등학생 이외에 대학생을 위한 할인제도가 다양하게 있으며, 이 밖에도 15세 이상 20세 미만의 근로청소년을 위한 교통할인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24세 미만 학생과 25세 이상 풀타임 학생, 실직자, 직업훈련생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통보조금이나 집세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소외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항공, 철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음식점, 의류, 신발, 비디오, 음반, 악세서리, 호텔, 여행사 등의 이용시 할인되는 청소년할인카드(student price card)는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2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국립박물관, 유적지, 철도 등 청소년우대의 대상이 26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 대상은 중·고·대학생 연령층이다. 특별한 경우에 다자녀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업훈련생, 원격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카드의 대상도 보통 26세 미만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30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청소년우대의 내용과 방법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에서는 청소년우대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공·농,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청소년카드(EURO<26)의 경우에는 교통, 여행, 문화, 여가, 소통, 교통 등의 영역에서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는 버스, 철도,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여가, 스포츠, 여행, 각종 교육훈련, 생활용품이나 교과서, 학용품 구입, 식당, 의류, 음반, 대여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대가 시행되고 있다. 이상의 청소년우대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교통수단 이용, 문화활동, 소비활동, 여가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 등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우대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시설의 이용요금을 성인에 비해서 일정 정도 할인해 주는 방식이 가장 많으며, 할인 쿠폰의 제공, 포인트 적립, 특별우대요금제, 일정 정도의 지원금 제공, 시설 이용료 면제 등의 다양한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청소년우대의 시행기관

청소년 우대제도는 국가별로 해당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도 하지만, 우대 내용에 있어서 국가 간의 공동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유럽 청소년카드와 같이 여러 국가가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데, 지역사회 관련 기관, 민간 기업, 상점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시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 민간단체, 상점 등이 연계되어 우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재 여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우대제도를 토대로 청소년우대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 우대제도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협력하여 교통수단, 문화활동, 소비활동, 여가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 등의 영역에서 청소년 중심의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우대의 대상은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연령대까지를 포함하며, 특별히 저소득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 우대제도의 도입 배경

각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우대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우대제도가 도입되는 배경도 제각기 다르다. 청소년 우대제도의 도입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청소년육성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청소년인권의 신장과 청소년요구의 증대, 국내 및 국제사회 네트워크의 확대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첫째, 여러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이 많으며, 청소년 우대제도는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복지국가에서 교육, 문화,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각종 청소년수당과 할인제도 등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청소년우대의 지급대상 및 방식에 관해서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보편주의적 원칙과 선별주의적 원칙이 있다. 사회보장의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보장의 보편주의적 원칙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요구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또한 선별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복지서비스는 능력에 따라 개인 책임으로 해결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금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적 지원을 하기 보다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청소년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각 국가에서 청소년 우대하는 방식이 일반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 저소득청소년이나 소외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이러한 관점들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청소년육성의 책임에 대한 국가사회의 인식 변화는 청소년우대정책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우대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 청소년을 우대한다는 것이 단순히 무조건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참여를 통한 우대제도의 시행은 이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 실제로 영국의 청소년기회카드(Youth Opportunity Card) 개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소외청소년들을 건설적인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가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회에서 책임을 담당해 왔으나, 가족제도 및 청소년관에 대한 변화로 아동·청소년의 양육 책임을 가정에만 전담시키기에는 어려워지는 환경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유능한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는 일은 가정만의 몫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며 사회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청소년의 양육을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고 국가사회가 적극적으로 분담하려는 자세에서 청소년 우대정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지위의 향상과 청소년요구의 증대는 청소년 우대제도의 도입과 확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의 청소년지위의 향상은

청소년들의 정책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중요한 청소년정책 수립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우대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저항 없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제 청소년들은 국가나 사회의 서비스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적합한 정당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고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요구는 국가의 복지지원방식에 영향을 미쳐, 결국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우대제도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소년증 도입의 배경이 되었던 한 청소년가장의 비학생 할인문제 제기는 이러한 요구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제기가 언론을 통해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은 청소년 우대제도의 도입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우대제도는 네트워크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간, 지역간, 그리고 지역 내의 여러 기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며, 시설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을 기초로 청소년 우대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특히, 우대제도가 잘 발달한 국가의 사례를 보면, 각 지역 내의 지방정부와 관련기관, 민간단체, 개인사업체 등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지방 청소년정책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지역커뮤니티센터, 레저스포츠센터, 철도 등의 공공시설 및 단체, 그리고 각종 음식점, 의류업체, 연극영화콘서트업체 등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우대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전국적인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모든 지역의 청소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해당 지역 청소년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혜택도 있다. 국가 간의 공통의 이해를 반영한 국제네트워크의 형성은 국제적인 우대제도를 조성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유럽청소년카드, 국제청소년학생증 등 국제적인 연계수단을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각종 교통수단의 이용이나 문화, 여가 등의 활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청소년복지정책과 청소년 우대제도의 관계

청소년 우대제도와 청소년복지정책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호간에 개념 혼란을 피하고, 청소년 우대제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된 연구가 거의 없어서 정리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청소년 우대제도는 청소년복지정책과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청소년복지정책의 하위개념으로 본다.

청소년 우대제도를 청소년복지정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는 청소년 복지정책을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정책으로 생각하여 청소년에 대한 할인 또는 무료지급, 각종 수당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청소년우대정책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의미하며, 노인, 여성, 근로자 등 다른 대상과 대비하는 청소년복지정책을 일컫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복지정책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즉, 청소년복지정책에는 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우대 정책 이외에 가족과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우대제도는 청소년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일부분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가족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나 청소년관련기관에 제공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은 우대제도에서 제외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청소년우대 정책 또는 제도는 곧 협의의 청소년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하지만 광의의 청소년복지정책에서 볼 때, 청소년 우대제도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부분적인 수단이 되며, 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우대제도는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서 대개 중앙 정부의 경우에는 법률의 형태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청소년 우대제도는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시기별로 내용 변화를 가져온다. 어려운 청소년이나 문제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정책이 중심이던 시기의 청소년 우대제도는 시혜적이고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정책 대상이 확대되고 청소년참여나 인권이 강조되는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서는 청소년 우대제도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즉, 청소년 우대제도는 청소년과 청소년육성에 대한 관점과 정책의지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우대제도는 청소년의 성장과 국가,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청소년정책의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Ⅲ. 청소년 우대제도 현황

1. 국내 청소년 우대제도 실시 현황
2. 청소년 우대제도 관련 법·제도 현황

Ⅲ. 청소년 우대제도 현황

1. 국내 청소년 우대제도 실시 현황

1) 교통수단

국내 교통수단에 대한 청소년 우대는 버스, 철도, 항공의 경우에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버스에 대한 청소년할인은 카드 사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도권 경우에는 U-pass카드, T-money카드, eB카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카드 이용 대상은 만 13-18세이며 성인요금의 20%가 할인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카드 호환이 가능하다. 지방의 경우에는 디지털부산카드, 부산투어패스카드, 디지털울산카드, 디지털경남카드, 신나리카드, 디지털예향전남카드, 디지털충남카드, 으뜸e카드, 빛고을카드 등이 이용된다. 이 카드는 일반 및 좌석버스, 지하철 이용 시 약 20%의 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학생여부와 관계없이 만 13-18세 청소년의 경우에 일반운임의 20%가 할인된다.

항공 할인은 대한항공은 2007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권을 할인해 준다. 만 13-22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항공 홈페이지(kr.koreanair.com)에서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 및 구매할 경우 10% 할인된다. 예약 및 구매 후 탑승당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카운터에 제시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현재 진행되는 할인은 없으며, youthfare라는 명칭으로 국제선의 경우 미주, 유럽 노선에 한해 각기 다른 연령기준과 할인범위로 혜택을 주고 있다.

<표 III-1> 교통수단 청소년 할인 내용

분류	주관기관	명칭	대상	할인내용	비고	
① 버스	서울시 버스조합	U-pass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 성인요금 20%	수도권 전역에 서 호환 가능, 서울-경기 환승혜택	
	한국 스마트카드	T-money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주)이비	eB카드 (경기도교통카드)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주)마이바부산은행	디지털부산카드, 부산투어패스카드	부산지역 중·고등학생	· 일반버스, 좌석버스 이용시 지역별 일정 할인금액 적용 · 지하철 이용시 승차요금의 20%	부산지역	
	(주)마이바· 경남은행농협	디지털울산카드	울산지역 중·고등학생		울산지역	
	(주)마이비	디지털경남카드	경남지역 중·고등학생		경남지역	
	(주)마이바농협	신나리카드	경북지역 중·고등학생		경북지역	
	(주)마이바농협	디지털 예향전남카드	전남지역 중·고등학생		전남지역	
	(주)마이바농협	디지털충남카드, 으뜸e카드	충청지역 중·고등학생		충남,충북지역 (으뜸e)	
	(주)마이바· 광주은행·광주 도시철도역	빛고을카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광주지역	
(주)마이비	경기도마을버스카드, 신나리카드	경기도 중·고등학생	경기도일대			
② 철도	서울 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U-pass, T-money	만 13세- 만 18세		·교통카드 사용시 일반운임의 20% (청소년운임 720원) ·단체권은 일반교통카드운 임의 30%	
③ 항공	대한항공	인터넷 청소년할인	만 13세 이상 만 22세 미만		대한항공홈페이지에서 국 내선항공권 예약 후 구매 시 10%	07.1.6일부 터 시행
	아시아나	youthfare (청소년할인)	유럽: 만 12세 이상 만 25세 이하 미주: 만 12세 이상 만 31세 이상	국제선10-25% (노선마다 상이함) ·유럽: 노선에 따라 다름 (시즌마다 상이함) ·미주: 학생증이나 재학증 명서 제출시 학생요금적용		

2) 문화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 우대는 궁·능, 박물관, 미술관, 영화, 연극 등의 경우에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궁·능의 경우에는 요금의 차이는 있으나 18세까지 입장료 할인이 성인의 5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무료였으며,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성인 요금의 40% 정도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연극의 경우에는 10-50%의 다양한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금지원을 통한 할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2> 문화활동 청소년 할인 내용

분류	주관기관	명칭	대상	할인내용	비고
① 궁·능	서울특별시	경복궁	7-18세	· 성인요금 50%	입장료 1천5백원
		창경궁	7-18세	· 성인요금 50%	입장료 5백원
		덕수궁	7-18세	· 성인요금 50%	입장료 4백원
	부산광역시	충렬사	13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증소지자	· 성인요금 50%	입장료 1백원
② 박물관	인천광역시	인천시립박물관	18세이하	· 무료	
	대전광역시	대전선사박물관	13세이상24세이하	· 관람료 1회 3백원	
	부산광역시	부산시립박물관	13세이상24세이하학생 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포함	· 성인요금 40%	관람료 3백원

분류	주관기관	명칭	대상	할인내용	비고
③ 미술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18세이하	· 무료	
	대전광역시	대전시립미술관	13세이상24세미만	· 성인요금 40%	관람료 3백원
	부산광역시	부산시립미술관	13세이상24세이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포함	· 청소년요금 3백원	어른 7백원
④ 영화 / 연극	전국극장연합회	청소년할인	13세이상24세이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포함	· 성인요금의 천원할인 · CGV, 메가박스 등 영화관 (단, 영화배급사에 따라 다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사랑티켓	성인, 청소년 등 공연관람자의 관람액 지원	· 공연관람권 장당 3-7천원 지원 · 19세 이하 단체 20명 이상 5천원 지원	서울, 광역시, 5개 기초시·운 영
	인천연극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문화재단)	2007 인천사랑티켓	청소년·학생	· 청소년·학생 7천원 (관객구입액 3천원 기금지원액 4천원)	07.1.1- 07.12.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양문화재단	지역사랑티켓 높빛사랑의 자리 (고양사랑티켓)	청소년·학생	· 청소년·학생 7천원 (관객구입액 3천원, 기금지원액 4천원)	부산, 울산, 대전, 충북, 서울 등 12개광역시·도, 3개 기초시·도 추진 중	

분류	주관기관	명칭	대상	할인내용	비고
④ 영 화 / 연 극	국립극장	청소년할인	23세 이하 (단, 초등학교 이하 입장 안되므로 실제적용은 8세~23세 이하)	· 자체공연시 30%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 대관공연시 상이함. (주관단체측에 따라 할인을 적용)	
	예술의 전당	청소년할인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 기획공연시 10- 20%, 할인 율적용(공연마다 상이함) · 대관공연시 할인을 상이함. (주최기관에 따라 최고 50%, 혹은 학생할인으로 등급지정)	
	대전 광역시	대전문화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의 전당 유료 회원인 만 19세 미만	· 연회비 2만원 (일반5만원·우대10만원)	·이메일을 통한 ·공연정보제공, ·자체기획 공연10-20%

3) 여가관련활동

여가관련활동에 대한 청소년 우대는 공원, 스포츠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경우에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놀이공원 및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은 입장료가 10~20%할인되고 있으며, 자유이용권은 10~30%까지 할인되고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에 있어서는 대체로 13-18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에버랜드의 경우에는 12세까지만 적용되고 있다.

여행관련 할인은 국제청소년증(IYTC), 국제유스증(IYEC), 국제학생증(ISIC/ISEC), 국제청소년카드(YIEE), 유스호스텔 회원증, YMCA회원증 등을 통하여 할인되고 있는데, 대개 12~26세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학생증(ISIC/ISEC)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와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 두 종류가 있다. ISIC는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국제 학생신분증으로 금융카드, 전화카드, 국제할인카드 기능을 가지며, 교육부가 정한 정규 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만 12세 이상의 학생과 해외 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수생 및 유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할인은 교통(펜스타페리 30%, 서울 시티투어버스 10%), 숙박(재즈 마을 20%, 호스텔예약비 1\$), 엔터테인먼트(정동극장 20%, 난타공연 5%), 주요명소(로봇박물관 25%, 떡부엌살림박물관 50~30%, 바탕골예술관 20%), 음식점(테카던트 아이스크림점 10%, 두잇아카펠라 20%), 레저(1만원), 은행(환전수수료 50%)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ISEC는 전 세계 학생들의 권익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연맹(International Student Travel Confederation)에서 발급하여 주는 세계 각국의 통일된 학생증명서이다, 박물관이나 각종 매표소의 티켓 구입처에 표시되어 있는 ID Card는 일반적으로 국제학생증을 지칭한다, 이 카드로 각국의 항공, 철도, 선박 등 교통편 특별할인, 고궁, 투우경기장, 콘서트홀, 대극장, 박물관 등의 무료입장 또는 할인, 국제학생연맹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숙박료 할인, 기타 가맹점에서의 물품구입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카드는 큰 차이는 없으나 혜택을 받는 나라나 장소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

국제청소년카드(YIEE)는 학생 및 27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청소년연맹(Federation of International Travel Organization)에서 발급하여 주는 신분증이다. 유스호스텔과 YMCA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시설 이용 시 할인해 주고 있으며, 또한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공원, 박물관, 미술관, 공연, 철도, 버스, 여행상품 등 국내의 2,500여 업체에서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스포츠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하여 할인을 정하고 있는데, 13~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인요금의 20~40%가 할인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시설은 할인대상이 대학생 연령인 24세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50%까지 할인되고 있다. 시설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연령대에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표 III-3> 여가관련활동 청소년 할인 내용

분류	주관기관	명칭	대상	할인내용
① 놀이공원 / 동물원	서울시	서울대공원	13-18세	· 입장료 성인요금 20~30% · 성수기 2천원 · 비수기 1천2백원
	서울시	서울랜드	13-18세	· 입장료 성인요금 20% (1만2천원) · 주간자유이용권 성인요금 14.3% (2만4천원) · 야간자유이용권 성인요금 16% (2만1천원)
	용인시	에버랜드	3-12세	· 입장료 성인요금의 26% (주간2만원, 야간1만7천원) · 주간자유이용권 성인요금 26% (2만5천원) · 야간자유이용권 성인요금 28% (2만1천원)
② 여행	유네스코 (KISES 서울본사 및 전국 KISES 지사)	국제청소년증 (IYTC)	만 12세이상 만 26세미만	· 발급 후 1년간 유효 · 국내외할인
	ISECards' Korea 학생서비스 네트워크	국제유스증 (IYEC)	만 12세이상 만 26세미만 학생이 아닌자	· 발급 후 1년간 유효
	ISECards' Korea 국제학생연맹 (International Student Travel Confederation)	국제학생증 (ISIC/ISEC)	초·중·고·대학생 만 12세 이상	· 교통: 펜스타페리 30%, 서울시티투어버스 10% · 숙박: 재즈마을 20%, 호스텔예약비 1\$ · 엔터테인먼트: 정동극장 20%, 난타공연 5% · 주요명소: 로봇박물관 25%, 떡부엌살림박물관 50~30%, 바탕골예술관 20% · 음식점: 데카던트아이스크림 10%, 두잇아카펠라 20% · 레저: 최대 1만원 · 은행: 환전수수료 50%

분류	주관기관	명칭	대상	할인내용
	국제청소년연맹 (FITO) 한국지부	국제 청소년카드 (YIEE)	만 27세미만	· 발행한 연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효 · 관광지나 박물관 등 5-50%의 다양한 할인혜택
	한국 유스호스텔 연맹	유스호스텔 회원증	청소년, 성인, 가족, 지도자, 평생회원, 외국인	· 전세계 6천여개의 유스호스텔 · 국내의 2천5백여 업체 (공원, 박물관, 미술관, 공연, 철도, 버스, 여행상품 등)
	YMCA	YMCA 회원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이용 (단, 고등학생 대학생은 수수료 할인)	· YMCA호텔 할인
③ 스포츠 시설	울산광역시	체육관	13세 이상 18세 이하	· 동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생활체육실, 체조장, 스쿼시강습프로그램 할인
	서울시	창동문화체육센터 탁구장	13-18세	· 성인요금 30% (2천~4천원)
	광주광역시	광주 공설운동장	13세 이상 19세 이하	· 일반요금 40% (일반 5백원, 학생 3백원)
	대전광역시	한밭 종합운동장 수영장, 인라인하키장	13세 이상 19세 이하	· 수영장 성인요금 30% (청소년 2천원) · 인라인 하키장 성인요금 20% (청소년 2천원)
	대전광역시	대전 복용승마장	13세 이상 19세 이하	· 성인요금 22% (청소년 1만8천원)
	대전광역시	월드컵경기장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어린이체육관실 내골프연습장	13세 이상 18세 이하	· 성인요금 30% (청소년 2천원)
	대전광역시	대전 사정 톨러스케이트장	13세 이상 19세 이하,	· 성인요금 25% (청소년 9백원)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13세 이상 19세 이하	· 수영장 성인요금 33% (청소년 2천원) · 헬스, 에어로빅, 구기, 투기, 체형미교실 등 강습료 할인 · 체육관 성인입장료의 4백원 할인(청소년 1천3백원)	

분류	주관기관	명칭	대상	할인내용
④ 청소년 활동 시설	대전광역시	평송 청소년수련원	13세 이상 18세 이하	· 수련원내 수영장 성인요금 20% (청소년 3천원)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초·중·고·대학생	· 운동장, 야영장, 막사 사용료할인 · 운동장: 초·중생 5백원 고·대학생 6백원 · 야영장: 초·중학생 8백원 고·대학생 9백원 · 막사: 중학생 이하 1천원 고등학생이상 1천5백원
	부산광역시	함지골 청소년수련관	13세 이상 25세 미만	· 취미·교양강좌: 청소년 2만원이내(성인 3만원) · 생활관: 청소년 3천원 (일반인 4천원) · 수영장: 성인요금 20% (청소년 2천원)
	부산광역시	양정 청소년수련관	13세 이상 25세 미만	· 취미·교양강좌: 청소년 2만원 (성인 3만원) · 체력단련실: 성인요금 50% (청소년 5백원)
	부산광역시	금련산 청소년수련관	13세 이상 25세 미만	· 입장료: 성인요금 40% (청소년 3백원) · 이용료: 성인요금 30% (청소년 3천원)
	부산광역시	금곡 청소년수련관	13세 이상 25세 미만	· 취미·교양강좌: 성인요금 30% (청소년 2만원) · 헬스장: 성인요금 50% (청소년 5백원) · 수영장: 성인요금 20% (청소년 2천원)
	부산광역시	금정 청소년수련관	13세 이상 25세 미만	· 취미·교양강좌: 청소년 2만원 (성인 3만원) · 체력단련실: 성인요금 20% (청소년 5백원)
	부산광역시	부산 청소년보호 종합지원센터	13세 이상 25세 미만	· 취미·교양강좌: 청소년 2만원 (성인 3만원)

4) 소비활동

소비활동과 관련한 청소년 우대는 주로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자메세지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의 이동전화 이용행태를 반영하여 문자메세지의 이용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업체별로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는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요금을 30% 내외 할인해 주고 있으며, 케이티에프(KTF)와 엘지텔레콤(LGT)의 경우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3만원정도의 정액요금을 내면 문자메세지를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게 하기도 하며, 미리 지정한 번호에 한해 요금을 할인해준다. 단, 주민등록번호 1개당 1개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4> 소비활동 청소년 할인 내용

분류	주관기관	명칭	대상	할인내용	비고	
① 이동통신인터넷	SKT	팅 데이터프리	만 20세 미만	· 청소년전용정액제: 30% 인하 · 텍스트 6.5원→4.55원, 멀티미디어 (소용량) 2.5원→1.75원, 멀티미디어(대용량) 1.3원→0.9원	· 만 20세 이상시 타요금으로 전환됨, · 주민번호당 1개만 가입	
			만 18세 이하	· 문자메니아: 문자3천건 무료 · Bigi알2200/2900: 기본요금할인 및 문자2200/2900건무료		
	LGT	홀 플레이 홀 문자메니아	만 19세 이하	· 비기러브레터: 음성통화 75분, 문자 500건 무료		
			만 4세 이상 만 18세 이하 1인1회선 한	· 자동 상한 정액제 2만4천5백 홀 제공 ·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무료		
				· 자동 상한 정액제 3만홀 제공 ·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무료		

5) 청소년증 할인

청소년증은 비학생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신분증명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고 있다.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철도(무궁화) 등의 수송시설,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미술관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의 문화시설,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체육시설 등에 할인되고 있다.

청소년증은 2003년 문화관광부 당시 시·도청소년과장 회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03년 10월 15일 서울시의 시범 발급 이후에 2004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발급하고 있다.

청소년증 발급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정책과가 담당하였으나, 2005년 4월 27일 이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통합되어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로 인해 문화관광부의 훈령이었던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흡수되었다.

2. 청소년 우대제도 관련 법·제도 현황

1) 청소년 우대제도 관련 법률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소년 관련 법률체계는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보호, 활동진흥, 복지 등으로 구분된 법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체계 중에서 청소년우대와 관련된 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청소년우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크게 우대의 지원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대의 주체(청소년의 범위), 객체(우대시설의 종류 및 업체), 방법(청소년증)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우대의 지원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우대의 지원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청소년 우대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재정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

<표 III-5>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우대의 내용

<p>제6조 (청소년의 우대)</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p>③ 청소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 (청소년증)</p> <p>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p> <p>②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2) 청소년의 범위

청소년의 우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법률적 사항이 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논의이다. 청소년의 범주와 관련된 법률 간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을 두어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범위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할 수 있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I-6> 청소년의 범위와 관련된 법률간 규정

법령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 ·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 규정)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9세 미만의 자 ·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증 발급 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준용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에서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두는 야간제 특별학급 및 산업체가 설치·경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설치기준·교육과정·입학방법·교육비부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별한 연령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할인제도로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18세 이하 미취학 청소년

기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아동: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제3호(아동: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
----------	--

이러한 청소년증의 발급 범위는 주민등록증과의 관계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의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표식일 뿐 아니라 실명확인, 본인확인의 증명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에 준하는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과거에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는 별다른 신분 증명의 수단이 없었다.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학생증이 있지만 각 학교별로 천차만별의 양식을 갖고 있어 주민등록증처럼 실명확인의 표준으로 통용될 수 없었고 단순히 대중교통의 학생 할인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생증마저도 없어 그나마의 혜택도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한 것은 주민등록증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3) 우대시설의 종류 및 업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에서는 청소년 우대가 가능한 시설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대를 권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별된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공·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4) 우대의 방법(청소년증)

청소년우대의 주요 방법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에서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7조 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항과 3항에서는 각각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청소년증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청소년 우대제도

(1) 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8조 제2항에서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②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④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 ⑤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소년·소녀 가장으로 선정된 자, ⑥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하면 청소년시설 이용의 연령 구분을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린이는 7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청소년은 13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대구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제2조에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관, 극장,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동아리방, 전시실, 생활관, 교육·문화강좌실, 공연연습실, 인터넷 프라자, 영상센터, 전통사랑방, 음악연습실 등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수련시설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별표 3에 의하면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연령의 범위와 청소년 우대를 위한 규정은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5) 대전

대전시 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연령의 범위와 청소년 우대를 위한 규정은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즉 대전시 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 제8조에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6) 광주

① 광주광역시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별표1

동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의 범위를 13세 이상 및 18세 이하인 자 및 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학생 청소년과 비학생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학생 청소년의 경우는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와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입장료: 5백원)2. 군인: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입장료: 3백원)3.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중·고등학생
(입장료: 3백원)4.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및 초등학생(입장료: 2백원) |
|---|

②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별표2

동 조례에는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별표에 청소년에 대한 미술관 관람료만이 명시되어 있다. 즉 동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의 범위를 13-24세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청소년의 범위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으로 명시하고 있다.

(7) 울산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청소년 우대와 관련된 특정 조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별 시설물에 대한 청소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조 9, 10호에 의하면 어린이의 범위를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범위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범위를 어린이와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IV. 청소년 우대제도 및 청소년증에 대한 실태조사

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청소년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요약 및 소결

IV. 청소년 우대제도 및 청소년증에 대한 실태조사

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1) 청소년 우대제도 인식정도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먼저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청소년은 10.6%였으며, 모른다는 청소년은 69.2%로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

단위: 빈도(%)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체	x ² 값
교급별	중학생	89 (33.7)	98 (37.1)	53 (20.1)	22 (8.3)	2 (0.8)	264 (100.0)	
	고등학생	97 (37.6)	96 (37.2)	40 (15.5)	22 (8.5)	3 (1.2)	258 (100.0)	
	대학생	75 (25.5)	107 (36.4)	79 (26.9)	30 (10.2)	3 (1.0)	294 (100.0)	
계		316 (31.5)	379 (37.7)	203 (20.2)	98 (9.8)	8 (0.8)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분석결과를 보면, 교급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집단이나 중학생집단보다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경우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9.1%, 고등학생은 9.7%, 대학생의 경우는 11.2%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비학생의 경우 청소년 우대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8%, 학생은 10.1%로 나타나, 비학생이 학생보다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선호정도

청소년 우대제도의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96.8%의 청소년들이 찬성하였으며, 반대한 경우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학생(98.8%)이 남학생(95.0%)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는 낮지만, 우대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정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생각

단위: 빈도(%)

구분		찬성	반대	전체	χ^2 값
성별	남자	498(95.0)	26(5.0)	524(100.0)	11.186**
	여자	474(98.8)	6(1.3)	480(100.0)	
계		972(96.8)	32(3.2)	1004(100.0)	

*p<.05, **p<.01, ***p<.001

①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찬성 이유

청소년 우대제도의 찬성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해(26.0%), 다양한 활동기회의 부여(24.6%),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18.6%), 자기발전의 기회제공(12.0%) 등의 순이었다. 집단별로도 찬성 이유에 대해서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기회 부여,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생과 농어촌지역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청소년권리보장보다는 다양한 활동기회 부여가 청소년 우대제도 찬성의 보다 큰 이유로 나타났다.

<표 IV-3> 청소년 우대에 대한 찬성이유

단위: 빈도(%)

구분		다양한 활동 기회 부여	돈을 별지 못하기 때문	국가의 당연한 의무	자기 발전의 기회 제공	여가의 질 향상	청소년 권리 보장	서비스 할인	무응답	전체
성 별	남자	235 (23.6)	183 (18.4)	93 (9.3)	133 (13.3)	67 (6.7)	259 (26.0)	1 (0.1)	26 (2.6)	997 (51.8)
	여자	238 (25.7)	175 (18.9)	92 (9.9)	108 (11.7)	65 (7.0)	242 (26.1)	-	6 (0.6)	926 (48.2)
교 급 별	중학생	126 (24.7)	90 (17.6)	41 (8.0)	66 (12.9)	34 (6.7)	146 (28.6)	1 (0.2)	7 (1.4)	511 (32.7)
	고등학생	115 (23.2)	90 (18.1)	42 (8.5)	62 (12.5)	36 (7.3)	143 (28.8)	-	8 (1.6)	496 (31.8)
	대학생	148 (26.7)	111 (20.0)	69 (12.5)	57 (10.3)	34 (6.1)	124 (22.4)	-	11 (2.0)	554 (35.5)
신 분 별	학생	389 (24.9)	291 (18.6)	152 (9.7)	185 (11.9)	104 (6.7)	413 (26.5)	1 (0.1)	26 (1.7)	1561 (81.2)
	비학생	84 (23.2)	67 (18.5)	33 (9.1)	56 (15.5)	28 (7.7)	88 (24.3)	-	6 (1.7)	362 (18.8)
지 역 별	도시	387 (23.9)	316 (19.5)	154 (9.5)	199 (12.3)	118 (7.3)	417 (25.8)	-	28 (1.7)	1619 (84.2)
	농어촌	86 (28.3)	42 (13.8)	31 (10.2)	42 (13.8)	14 (4.6)	84 (27.6)	1 (0.3)	4 (1.3)	304 (15.8)
경 제 수 준 별	하 (200만원이하)	92 (23.5)	69 (17.6)	36 (9.2)	58 (14.8)	33 (8.4)	95 (24.2)	-	9 (2.3)	392 (21.1)
	중 (201-500만원)	338 (25.9)	251 (19.3)	120 (9.2)	155 (11.9)	83 (6.4)	338 (25.9)	1 (0.1)	17 (1.3)	1,303 (70.2)
	상 (501만원이상)	27 (16.9)	28 (17.5)	22 (13.8)	23 (14.4)	12 (7.5)	43 (26.9)	-	5 (3.1)	160 (8.6)
계		473 (24.6)	358 (18.6)	185 (9.6)	241 (12.5)	132 (6.9)	501 (26.0)	1 (0.1)	32 (1.7)	1,923 (100.0)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② 청소년 우대제도에 반대하는 이유

청소년 우대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1.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예산낭비라는 생각(1.1%),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응답(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별로 필

요를 느끼지 못해서가 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산낭비라 생각해서 1.5%, 형평성에 어긋나서 0.8%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예산낭비라 생각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청소년 우대에 대한 반대이유

단위: 빈도(%)

구분		형평성에 어긋남	예산낭비라 생각	별로 필요를 못 느낌	무응답	전체	χ^2 값
성별	남자	4 (0.8)	8 (1.5)	14 (2.7)	498 (95.0)	524 (100.0)	12.895**
	여자	2 (0.4)	3 (0.6)	1 (0.2)	474 (98.8)	480 (100.0)	
경제 수준별	하 (200만원이하)	-	4 (1.9)	5 (2.4)	201 (95.7)	210 (100.0)	19.263**
	중 (201-500만원)	3 (0.4)	5 (0.7)	9 (1.3)	657 (97.5)	674 (100.0)	
	상 (501만원이상)	3 (3.6)	2 (2.4)	-	79 (94.0)	84 (100.0)	
계		6 (0.6)	11 (1.1)	15 (1.5)	972 (96.8)	1004 (100.0)	

*p<.05, **p<.01, ***p<.001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3) 청소년 우대제도 만족정도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교통수단, 문화활동, 여가관련활동, 소비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한다는 응답은 10~30% 내외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활동 영역별로는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30% 내외로 가장 높고, 교통수단 중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철도, 항공, 배 등의 교통수단과 외국어학원, 예·체능학원,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등의 교육·진로개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먼저 교통수단을 보면, 버스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35.8%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32.3%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3.5%로 더 높았다. 지하철의 경우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38.1%, 만족한다는 30.9%로 나타났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만족하지 않는다가 37.4% 만족한다는 28.5%로 나타나,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가 버스나 지하철 보다 훨씬 높았으며, 항공과 배의 경우도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가 각각 22.4%, 23.6%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반응이 훨씬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공연과 공연관람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에 비해 각각 2.7%, 4.1% 높았다. 반면, 박물관/미술관과 영화/연극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 각각 5.5%, 3.5%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여가관련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모든 변인들에서 불만족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여행관련 상품과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많았는데, 이들 변인들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18.1%와 20.4%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 한다는 응답 비율은 40.5%와 42.1%로 나타나,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소비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활동에 대한 변인들 역시 모든 변인들에서 불만족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체인음식점과 서적구입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높았는데, 이들 변인들의 만족과 불만족 응답 비율의 차이는 각각 25.1%, 25.3%로 나타났다. 반면, 미용실/이발소의 경우 이들 보다 낮은 9.5%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진로개발활동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수단이나 문화활동, 여가관련활동, 소비활동의 하위변인들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과 불만족 한다는 응답 간에 차이가 매우 높았다. 외국어학원의 경우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15.9%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 한다는 응답 비율은 47.6%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차이는 예·체능학원,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들의 교육·진로개발활동에 대한 우대제도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청소년 우대(청소년 할인 등)에 대한 만족도

단위: 빈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무응답	전체
교통 수단	버스	131 (13.0)	229 (22.8)	320 (31.9)	262 (26.1)	62 (6.2)	- 1,004 (100.0)
	지하철	130 (12.9)	253 (25.2)	310 (30.9)	249 (24.8)	61 (6.1)	1 (0.1) 1,004 (100.0)
	철도	134 (13.3)	242 (24.1)	441 (43.9)	144 (14.3)	42 (4.2)	1 (0.1) 1,004 (100.0)
	항공	162 (16.1)	240 (23.9)	424 (42.2)	132 (13.1)	45 (4.5)	1 (0.1) 1,004 (100.0)
	배	163 (16.2)	238 (23.7)	437 (43.5)	132 (13.1)	32 (3.2)	2 (0.2) 1,004 (100.0)
문화 활동	궁·능	111 (11.1)	176 (17.5)	457 (45.5)	203 (20.2)	57 (5.7)	- 1,004 (100.0)
	박물관/ 미술관	97 (9.7)	185 (18.4)	385 (38.3)	258 (25.7)	79 (7.9)	- 1,004 (100.0)
	영화/ 연극	115 (11.5)	221 (22.0)	297 (29.6)	264 (26.3)	107 (10.7)	- 1,004 (100.0)
	공연관람	114 (11.4)	230 (22.9)	357 (35.6)	238 (23.7)	65 (6.5)	- 1,004 (100.0)
여가 관련 활동	놀이공원 /동·식물원	106 (10.6)	241 (24.0)	355 (35.4)	238 (23.7)	64 (6.4)	- 1,004 (100.0)
	여행관련 상품	119 (11.9)	287 (28.6)	416 (41.4)	130 (12.9)	52 (5.2)	- 1,004 (100.0)
	레저스포츠 시설	129 (12.8)	294 (29.3)	376 (37.5)	164 (16.3)	41 (4.1)	- 1,004 (100.0)
	청소년활동 시설	117 (11.7)	217 (21.6)	395 (39.3)	214 (21.3)	61 (6.1)	- 1,004 (100.0)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무응답	전체
소비 활동	미용실/ 이발소	134 (13.3)	237 (23.6)	358 (35.7)	218 (21.7)	57 (5.7)	-	1,004 (100.0)
	체인음식점	158 (15.7)	299 (29.8)	342 (34.1)	156 (15.5)	49 (4.9)	-	1,004 (100.0)
	서적구입	189 (18.8)	286 (28.5)	308 (30.7)	163 (16.2)	58 (5.8)	-	1,004 (100.0)
	이동통신· 인터넷	175 (17.4)	243 (24.2)	322 (32.1)	180 (17.9)	83 (8.3)	1 (0.1)	1,004 (100.0)
교육· 진로 개발 활동	외국어학원	189 (18.8)	289 (28.8)	366 (36.5)	111 (11.1)	48 (4.8)	1 (0.1)	1,004 (100.0)
	예·체능학원	198 (19.7)	291 (29.0)	371 (37.0)	102 (10.2)	42 (4.2)	-	1,004 (100.0)
	직업훈련 학원	184 (18.3)	276 (27.5)	397 (39.5)	106 (10.6)	41 (4.1)	-	1,004 (100.0)
	컴퓨터학원	181 (18.0)	259 (25.8)	405 (40.3)	119 (11.9)	40 (4.0)	-	1,004 (100.0)

2) 청소년 우대제도 이용실태

(1) 청소년 우대제도 이용정도

지난 1년간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이용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과 영화·연극 등의 문화활동의 이용 경험이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교육·진로개발활동과 항공, 배 등의 교통수단 등의 이용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저·스포츠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이용은 과반수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1주일에 1-2번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80.8%,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철도, 항공, 배의 경우는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8.4%,

71.4%, 7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 년에 한 두 번이 37.3%, 25.9%, 17.7% 순으로 나타나, 버스나 지하철의 이용비율이 단연 높게 나타났다.

문화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궁·능의 경우에는 없다가 55.1%, 일 년에 1-2번 31.1%, 6개월에 1-2번 10.6% 순으로 나타났고, 박물관/미술관과 공연관람의 경우는 1년에 1-2번이 각각 48.6%,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영화/연극의 경우는 1달에 1-2번 이용한다는 비율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에 1-2번 이용비율이 29.7%로 다음 순이었다.

여가관련활동의 경우에는 놀이공원/동·식물원은 1년에 1-2번 이용한다는 비율이 51.7%로 가장 많았고, 6개월 1-2번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26%로 나타났다. 여행관련상품, 레저스포츠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7%, 51.7%, 4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에 1-2번 이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31.6%, 25.5, 36.1%로 다음 순이었고, 6개월에 1-2번 이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17.2%, 14.4%, 13.2%로 각각 다음 순이었다.

소비활동을 살펴보면, 미용실/이발소, 체인음식점, 서적구입의 경우 공통적으로 1달에 1-2번 이용한다는 비율이 55.4%, 43.7%, 38.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6개월에 1-2번 이용한다는 비율이 미용실/이발소는 32.5%, 서적구입은 31.9%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으나, 체인음식점의 경우 1주일에 1-2번 이용한다는 비율이 2번째 순위인 24.4%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통신·인터넷은 1주일에 1-2번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달에 1-2번이 15.2%, 6개월에 1-2번이 6.9%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진로개발활동의 경우 모든 하위 변인들에서 지난 1년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한 비율도 외국어 학원의 경우 58.4%였으며, 예·체능학원은 82.6%, 직업훈련학원은 94.7%, 컴퓨터학원은 85.9%로 매우 높았다.

<표 IV-6> 지난 1년간 이용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이상	무응답	전체
교통 수단	버스	9 (0.9)	18 (1.8)	23 (2.3)	143 (14.2)	811 (80.8)	-	1,004 (100.0)
	지하철	79 (7.9)	60 (6.0)	83 (8.3)	261 (26.0)	519 (51.7)	2 (0.2)	1,004 (100.0)
	철도	386 (38.4)	374 (37.3)	176 (17.5)	51 (5.1)	16 (1.6)	1 (0.1)	1,004 (100.0)
	항공	717 (71.4)	260 (25.9)	20 (2.0)	4 (0.4)	2 (0.2)	1 (0.1)	1,004 (100.0)
	배	795 (79.2)	178 (17.7)	20 (2.0)	6 (0.6)	4 (0.4)	1 (0.1)	1,004 (100.0)
문화 활동	궁·능	553 (55.1)	312 (31.1)	106 (10.6)	29 (2.9)	1 (0.1)	3 (0.3)	1,004 (100.0)
	박물관/ 미술관	297 (29.6)	488 (48.6)	144 (14.3)	68 (6.8)	7 (0.7)	-	1,004 (100.0)
	영화/연극	47 (4.7)	122 (12.2)	298 (29.7)	444 (44.2)	92 (9.2)	1 (0.1)	1,004 (100.0)
	공연관람	303 (30.2)	312 (31.1)	243 (24.2)	132 (13.1)	14 (1.4)	-	1,004 (100.0)
여가 관련 활동	놀이공원 /동·식물원	157 (15.6)	519 (51.7)	261 (26.0)	50 (5.0)	15 (1.5)	2 (0.2)	1,004 (100.0)
	여행관련 상품	472 (47.0)	317 (31.6)	173 (17.2)	34 (3.4)	6 (0.6)	2 (0.2)	1,004 (100.0)
	레저스포 츠시설	519 (51.7)	256 (25.5)	145 (14.4)	58 (5.8)	25 (2.5)	1 (0.1)	1,004 (100.0)
	청소년 활동시설	449 (44.7)	362 (36.1)	133 (13.2)	43 (4.3)	16 (1.6)	1 (0.1)	1,004 (100.0)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이상	무응답	전체
소비 활동	미용실/ 이발소	27 (2.7)	57 (5.7)	326 (32.5)	556 (55.4)	37 (3.7)	1 (0.1)	1,004 (100.0)
	체인음식 점	63 (6.3)	71 (7.1)	183 (18.2)	439 (43.7)	245 (24.4)	3 (0.3)	1,004 (100.0)
	서적구입	74 (7.4)	142 (14.1)	320 (31.9)	390 (38.8)	76 (7.6)	2 (0.2)	1,004 (100.0)
	이동통신· 인터넷	57 (5.7)	44 (4.4)	69 (6.9)	153 (15.2)	677 (67.4)	4 (0.4)	1,004 (100.0)
교육· 진로 개발 활동	외국어 학원	586 (58.4)	70 (7.0)	45 (4.5)	89 (8.9)	207 (20.6)	7 (0.7)	1,004 (100.0)
	예·체능 학원	829 (82.6)	47 (4.7)	29 (2.9)	43 (4.3)	54 (5.4)	2 (0.2)	1,004 (100.0)
	직업훈련 학원	951 (94.7)	21 (2.1)	9 (0.9)	5 (0.5)	16 (1.6)	2 (0.2)	1,004 (100.0)
	컴퓨터 학원	862 (85.9)	52 (5.2)	10 (1.0)	25 (2.5)	55 (5.5)	-	1,004 (100.0)

(2) 청소년 우대 필요 정도

청소년 우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0-90%의 많은 청소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청소년 우대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영화연구·공연관람 등의 문화활동과 체인음식점·서적구입·이동통신·인터넷 등의 소비활동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교통수단의 필요정도를 살펴보면, 버스의 경우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8.3%를 차지하였고, 지하철의 경우는 61.1%가 우대가 매우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철도와 항공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5%,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필요하다는 응답은 33.2%, 27.9%로 다음 순이었다. 하지만 배의 경우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영화/연극, 공연관람의 경우에 각각 56.1%, 42.9%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영화/연극이 29.5%, 공연관람은 34%로 나타났다. 박물관/미술관은 필요하다는 반응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두 번째 순위인 32.2%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능의 경우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하고 응답한 비율은 34%로 다음 순을 이었다.

여가관련 활동의 경우는 놀이공원/동·식물원이 청소년 우대필요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필요한 영역이라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반면, 여행관련상품, 레저스포츠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각각 35.6%, 33%, 35.1%로 가장 높았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활동의 경우에는 미용실/이발소, 체인음식점, 서적구입, 이동통신·인터넷 등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 우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다는 응답이 나왔다. 즉 우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미용실/이발소는 47.8%, 체인음식점은 47%, 서적구입은 51.7%, 이동통신·인터넷은 55%로 나타났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31%, 27.2%, 28.9%, 24.5%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경우 소비활동과 관련된 우대 정도를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진로개발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외국어 학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예·체능학원,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33.1%, 30.5%,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체능학원의 경우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4%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학원의 경우는 26.9%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컴퓨터 학원의 경우는 26.9%가 매우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표 IV-7> 청소년 우대 필요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무응답	전체
교통수단	버스	4 (0.4)	8 (0.8)	71 (7.1)	235 (23.4)	686 (68.3)	- 1,004 (100.0)
	지하철	6 (0.6)	13 (1.3)	109 (10.9)	263 (26.2)	613 (61.1)	- 1,004 (100.0)
	철도	18 (1.8)	47 (4.7)	252 (25.1)	351 (35.0)	333 (33.2)	3 (0.3) 1,004 (100.0)
	항공	27 (2.7)	77 (7.7)	284 (28.3)	335 (33.4)	280 (27.9)	1 (0.1) 1,004 (100.0)
	배	37 (3.7)	84 (8.4)	322 (32.1)	300 (29.9)	259 (25.8)	2 (0.2) 1,004 (100.0)
문화활동	궁·능	31 (3.1)	45 (4.5)	354 (35.3)	341 (34.0)	230 (22.9)	3 (0.3) 1,004 (100.0)
	박물관/미술관	16 (1.6)	34 (3.4)	264 (26.3)	365 (36.4)	323 (32.2)	2 (0.2) 1,004 (100.0)
	영화/연극	3 (0.3)	22 (2.2)	118 (11.8)	296 (29.5)	563 (56.1)	2 (0.2) 1,004 (100.0)
	공연관람	12 (1.2)	36 (3.6)	181 (18.0)	341 (34.0)	431 (42.9)	3 (0.3) 1,004 (100.0)
여가관련활동	놀이공원/동·식물원	10 (1.0)	35 (3.5)	196 (19.5)	348 (34.7)	412 (41.0)	3 (0.3) 1,004 (100.0)
	여행관련상품	28 (2.8)	65 (6.5)	299 (29.8)	357 (35.6)	253 (25.2)	2 (0.2) 1,004 (100.0)
	레저스포츠시설	24 (2.4)	59 (5.9)	318 (31.7)	331 (33.0)	271 (27.0)	1 (0.1) 1,004 (100.0)
	청소년활동시설	18 (1.8)	73 (7.3)	241 (24.0)	352 (35.1)	315 (31.4)	5 (0.5) 1,004 (100.0)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무응답	전체	
소비활동	미용살이발소	11 (1.1)	29 (2.9)	169 (16.8)	311 (31.0)	480 (47.8)	4 (0.4)	1,004 (100.0)
	체인음식점	15 (1.5)	46 (4.6)	197 (19.6)	273 (27.2)	472 (47.0)	1 (0.1)	1,004 (100.0)
	서적구입	16 (1.6)	28 (2.8)	148 (14.7)	290 (28.9)	519 (51.7)	3 (0.3)	1,004 (100.0)
	이동통신·인터넷	11 (1.1)	37 (3.7)	155 (15.4)	246 (24.5)	553 (55.1)	2 (0.2)	1,004 (100.0)
교육·진로개발활동	외국어학원	34 (3.4)	55 (5.5)	244 (24.3)	298 (29.7)	370 (36.9)	3 (0.3)	1,004 (100.0)
	예체능학원	38 (3.8)	71 (7.1)	277 (27.6)	332 (33.1)	285 (28.4)	1 (0.1)	1,004 (100.0)
	직업훈련학원	49 (4.9)	82 (8.2)	295 (29.4)	306 (30.5)	270 (26.9)	2 (0.2)	1,004 (100.0)
	컴퓨터학원	44 (4.4)	61 (6.1)	302 (30.1)	319 (31.8)	270 (26.9)	8 (0.8)	1,004 (100.0)

3)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개선 욕구

(1) 청소년 우대제도 개선내용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선 내용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할인금액 등 우대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할인대상 영역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응답한 비율이 32.2%이었고, 할인 등 우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1%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8.3%로 각각 나타

났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분석에서도 비슷한 순위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청소년우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우대를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청소년 할인제도등 우대제도 개선내용

단위: 빈도(%)

구분		우대 내용 확대	할인 대상 영역 다양화	우대에 대한 홍보	국가 및 지자체 지원강화	민간기업 참여확대	기타	전체	x ² 값
성별	남자	224 (42.7)	167 (31.9)	69 (13.2)	50 (9.5)	14 (2.7)	-	524 (100.0)	3.714
	여자	216 (45.0)	156 (32.5)	63 (13.1)	33 (6.9)	11 (2.3)	1 (0.2)	480 (100.0)	
신분별	학생	368 (45.1)	245 (30.0)	112 (13.7)	70 (8.6)	20 (2.5)	1 (0.1)	816 (100.0)	9.731
	비학생	72 (38.3)	78 (41.5)	20 (10.6)	13 (6.9)	5 (2.7)	-	188 (100.0)	
계		440 (43.8)	323 (32.2)	132 (13.1)	83 (8.3)	25 (2.5)	1 (0.1)	1004 (100.0)	

*p<.05, **p<.01, ***p<.001

(2) 청소년 우대 대상 연령

청소년 우대 대상 연령에 대해서 13세 이상~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9세 이상~24세 이하(39.7%), 9세 이상~18세 이하(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고등학생 연령대를 청소년 우대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청소년 우대 대상 연령에 대해서 중·고등학생 연령대와 남자의 경우에는 13세 이상~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

장 많았지만, 대학생 연령대와 여자의 경우에는 9세 이상~24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집단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표 IV-9> 청소년 우대 대상 연령에 대한 생각

단위: 빈도(%)

구분		9세이상-18세이하	13세이상-18세이하	9세이상-24세이하	기타	전체	x ² 값
성별	남자	67 (12.8)	260 (49.6)	187 (35.7)	10 (1.9)	524 (100.0)	8.321*
	여자	60 (12.5)	202 (42.1)	212 (44.2)	6 (1.3)	480 (100.0)	
교급별	중학생	53 (20.1)	134 (50.8)	76 (28.8)	1 (0.4)	264 (100.0)	54.024***
	고등학생	29 (11.2)	136 (52.7)	91 (35.3)	2 (0.8)	258 (100.0)	
	대학생	28 (9.5)	102 (34.7)	156 (53.1)	8 (2.7)	294 (100.0)	
계		127 (12.6)	462 (46.0)	399 (39.7)	16 (1.6)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3) 청소년 우대방식

청소년 우대방식에 대해서는 할인을 통해 우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우대해야 한다(8.7%), 쿠폰발행(3.0%), 무료이용(0.5%) 등의 순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세부적인 응답결과에서도 모든 변인에서 공통적으로 할인 방식의 우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청소년 우대방식의 형태

단위: 빈도(%)

구분	할인	포인트 적립	쿠폰 발행	무료 이용	할인 포인트 적립명행	전체	x ² 값	
성별	남자	454 (86.6)	47 (9.0)	21 (4.0)	2 (0.4)	-	524 (100.0)	5.473
	여자	427 (89.0)	40 (8.3)	9 (1.9)	3 (0.6)	1 (0.2)	480 (100.0)	
교급별	중학생	221 (83.7)	29 (11.0)	10 (3.8)	3 (1.1)	1 (0.4)	264 (100.0)	12.578
	고등학생	232 (89.9)	22 (8.5)	4 (1.6)	-	-	258 (100.0)	
	대학생	267 (90.8)	19 (6.5)	7 (2.4)	1 (0.3)	-	294 (100.0)	
신분별	학생	720 (88.2)	70 (8.6)	21 (2.6)	4 (0.5)	1 (0.1)	816 (100.0)	2.897
	비학생	161 (85.6)	17 (9.0)	9 (4.8)	1 (0.5)	-	188 (100.0)	
지역별	도시	751 (89.2)	65 (7.7)	22 (2.6)	3 (0.4)	1 (0.1)	842 (100.0)	11.379*
	농어촌	130 (80.2)	22 (13.6)	8 (4.9)	2 (1.2)	-	162 (100.0)	
경제수준별	하 (200만원이하)	177 (84.3)	18 (8.6)	14 (6.7)	1 (0.5)	-	210 (100.0)	18.046**
	중 (201-500만원)	605 (89.8)	54 (8.0)	14 (2.1)	1 (0.1)	-	674 (100.0)	
	상 (501만원 이상)	71 (84.5)	11 (13.1)	1 (1.2)	1 (1.2)	-	84 (100.0)	
계	881 (87.7)	87 (8.7)	30 (3.0)	5 (0.5)	1 (0.1)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2. 청소년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1)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전혀 모른다” 는 응답이 전체 설문응답자 중 40.8%였으며, “잘 모르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도 38.1%로,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 응답 가운데 78.9%로 나타나,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표 IV-1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정도

단위: 빈도(%)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체	x ² 값
신분별	학생	358 (43.9)	315 (38.6)	68 (8.3)	69 (8.5)	6 (0.7)	816 (100.0)	45.130 ***
	비학생	52 (27.7)	68 (36.2)	21 (11.2)	40 (21.3)	7 (3.7)	188 (100.0)	
지역별	도시	349 (41.4)	333 (39.5)	67 (8.0)	82 (9.7)	11 (1.3)	842 (100.0)	14.023**
	농어촌	61 (37.7)	50 (30.9)	22 (13.6)	27 (16.7)	2 (1.2)	162 (100.0)	
경제수준별	하 (200만원이하)	70 (33.3)	90 (42.9)	14 (6.7)	33 (15.7)	3 (1.4)	210 (100.0)	19.282*
	중 (201-500만원)	297 (44.1)	240 (35.6)	63 (9.3)	67 (9.9)	7 (1.0)	674 (100.0)	
	상 (501만원 이상)	26 (31.0)	39 (46.4)	10 (11.9)	7 (8.3)	2 (2.4)	84 (100.0)	
계		410 (40.8)	383 (38.1)	89 (8.9)	109 (10.9)	13 (1.3)	1004 (100.0)	

*p<.05, **p<.01, ***p<.001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정도를 신분별로 보면, 청소년증이 필요한 비학생의 경우 학생보다 인식정도가 높았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6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현황에서는 도시거주 청소년이 농어촌 거주 청소년들보다 인식정도가 낮았으며,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경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게 된 경우가 4.8%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사나 지도자(3.2%), 친구(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변인들의 인식경로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순위를 보였으나, 교급별에서 특징적인 차이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3.0%, 3.5%로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중학생 2.7%, 고등학생 1.6%)보다 높았으나, 대학생의 경우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6.8%)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1.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학생의 경우에는 대중매체(3.8%) 이외에 교사나 지도자(2.0%)보다는 친구(2.5%)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았으나 특히 비학생의 경우에 TV, 신문 등 대중매체(9.0%)와 교사나 지도자(8.5%)를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사나 지도자(2.3%)보다 TV, 신문 등 대중매체(5.1%)를 통해서 아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농어촌지역 청소년의 경우에는 TV, 신문 등 대중매체(3.1%)보다 교사나 지도자(8.0%)를 통해서 아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은 대중매체, 교사나 지도자, 친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중매체 이외에 중·고등학생, 학생, 도시지역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가 주요한 경로인 반면, 비학생과 농촌지역 청소년은 교사나 지도자가 주요한 경로로 나타났다.

<표 IV-12> 청소년증을 알게 된 경로

단위: 빈도(%)

구분	친구	교사/ 지도자	TV, 신문대중 매체	선후배	포스터	가족	이웃	무응답	전체	χ^2 값	
교 급 별	중학생	8 (3.0)	9 (3.4)	7 (2.7)	2 (0.8)	-	1 (0.4)	-	237 (89.8)	264 (100.0)	32.802 **
	고등학생	9 (3.5)	7 (2.7)	4 (1.6)	-	-	1 (0.4)	1 (0.4)	236 (91.5)	258 (100.0)	
	대학생	3 (1.0)	-	20 (6.8)	-	1 (0.3)	1 (0.3)	-	269 (91.5)	294 (100.0)	
신 분 별	학생	20 (2.5)	16 (2.0)	31 (3.8)	2 (0.2)	1 (0.1)	3 (0.4)	1 (0.1)	742 (90.9)	816 (100.0)	46.521 ***
	비학생	8 (4.3)	16 (8.5)	17 (9.0)	4 (2.1)	1 (0.5)	-	-	142 (75.5)	188 (100.0)	
지 역 별	도시	20 (2.4)	19 (2.3)	43 (5.1)	5 (0.6)	2 (0.2)	2 (0.2)	1 (0.1)	750 (89.1)	842 (100.0)	20.400 **
	농어촌	8 (4.9)	13 (8.0)	5 (3.1)	1 (0.6)	-	1 (0.6)	-	134 (82.7)	162 (100.0)	
계	28 (2.8)	32 (3.2)	48 (4.8)	6 (0.6)	2 (0.2)	3 (0.3)	1 (0.1)	884 (88.0)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2) 청소년증 이용실태

(1) 청소년증의 보유여부

청소년들의 청소년증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학생의 3.3%, 비학생의 10.6%만이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경우에는 10명 중 1명, 그리고 비학생의 경우에는 10명 가운데 1명만이 청소년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교급별로는 중학생(5.3%)이나 고등학생(4.3%)에 비해 대학생의 보유율(0.7%)이 낮았고, 지역별에서는 도시거주 청소년들의 보유율이 3.2%로, 농·어촌 거주 청소년들의 보유율 12.3%에 비해 월

선 낮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청소년증 보유여부

단위: 빈도(%)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값
교 급 별	중학생	14(5.3)	250(94.7)	264(100.0)	10.366**
	고등학생	11(4.3)	247(95.7)	258(100.0)	
	대학생	2(0.7)	292(99.3)	294(100.0)	
신 분 별	학생	27(3.3)	789(96.7)	816(100.0)	18.396***
	비학생	20(10.6)	168(89.4)	188(100.0)	
지 역 별	도시	27(3.2)	815(96.8)	842(100.0)	25.430***
	농어촌	20(12.3)	142(87.7)	162(100.0)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	13(6.2)	197(93.8)	210(100.0)	1.354
	중(201-500만원)	30(4.5)	644(95.5)	674(100.0)	
	상(501만원이상)	3(3.6)	81(96.4)	84(100.0)	
계		47(4.7)	957(95.3)	1004(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2) 청소년증 이용 정도

청소년증 이용 정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나, 영화·연극(59.6%), 버스(52.2%), 지하철(53.2%), 공연관람(42.6%) 등에 대한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고, 나머지는 30%미만의 이용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영역별로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교통수단은 특히 항공과 배 이용이 낮았는데, 버스, 지하철, 철도, 항공, 배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47.8%, 46.8%, 66.0%, 74.5%, 83.0%를 나타냈다. 문화활동의 경우

에는 영화/연극의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등의 순이었다. 여가관련 활동영역에서는 놀이공원/동·식물원의 이용이 비교적 많았으나 나머지 시설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지난 1년간 청소년증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이상	전체
교통수단	버스	22 (47.8)	3 (6.5)	2 (4.3)	5 (10.9)	14 (30.4)	46 (100.0)
	지하철	22 (46.8)	6 (12.8)	9 (19.1)	5 (10.6)	5 (10.6)	47 (100.0)
	철도	31 (66.0)	10 (21.3)	6 (12.8)	-	-	47 (100.0)
	항공	35 (74.5)	11 (23.4)	-	1 (2.1)	-	47 (100.0)
	배	39 (83.0)	8 (17.0)	-	-	-	47 (100.0)
문화활동	궁능	36 (76.6)	10 (21.3)	1 (2.1)	-	-	47 (100.0)
	박물관/미술관	29 (61.7)	12 (25.5)	6 (12.8)	-	-	47 (100.0)
	영화/연극	19 (40.4)	6 (12.8)	14 (29.8)	8 (17.0)	-	47 (100.0)
	공연관람	27 (57.4)	6 (12.8)	12 (25.5)	2 (4.3)	-	47 (100.0)
여가관련활동	놀이공원 /동·식물원	23 (48.9)	12 (25.5)	12 (25.5)	-	-	47 (100.0)
	여행 관련 상품	34 (72.3)	9 (19.1)	4 (8.5)	-	-	47 (100.0)
	레저스포츠 시설	35 (74.5)	9 (19.1)	3 (6.4)	-	-	47 (100.0)
	청소년활동 시설	33 (70.2)	10 (21.3)	3 (6.4)	-	1 (2.1)	47 (100.0)

3) 청소년증에 대한 개선욕구

(1) 현행 청소년증의 문제점

현행 청소년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보의 부족(39.7%)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 낮은 할인율(21.8%), 할인영역의 제한(21.7%), 비학생의 신분 노출(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비학생의 경우에 학생들과 비교해서 볼 때, 정보의 부족 이외에 낮은 할인율보다 할인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V-15> 현행 청소년증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구분	할인율이 낮음	할인영역 제한	발급 시간	발급 비용	정보의 부족	비학생의 신분 노출	신청 방법	효용 없음	혜택, 홍보 부족	정보 얻기 힘들	무응답	전체	x ² 값	
교급별	중학생	69 (26.1)	44 (16.7)	8 (3.0)	10 (3.8)	105 (39.8)	27 (10.2)	-	-	-	1 (0.4)	-	264 (100.0)	26.344 *
	고등학생	66 (25.6)	51 (19.8)	6 (2.3)	11 (4.3)	101 (39.1)	23 (8.9)	-	-	-	-	258 (100.0)		
	대학생	51 (17.3)	81 (27.6)	2 (0.7)	7 (2.4)	118 (40.1)	33 (11.2)	1 (0.3)	-	-	-	1 (0.3)	294 (100.0)	
신분별	학생	186 (22.8)	176 (21.6)	16 (2.0)	28 (3.4)	324 (39.7)	83 (10.2)	1 (0.1)	-	-	1 (0.1)	1 (0.1)	816 (100.0)	23.868 **
	비학생	33 (17.6)	42 (22.3)	12 (6.4)	3 (1.6)	75 (39.9)	21 (11.2)	-	1 (0.1)	1 (0.5)	-	-	188 (100.0)	
계	219 (21.8)	218 (21.7)	28 (2.8)	31 (3.1)	399 (39.7)	104 (10.4)	1 (0.1)	1 (0.1)	1 (0.1)	1 (0.1)	1 (0.1)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2) 청소년증 우대영역

향후 청소년증 사용시 가장 우대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서는 교통수단(57.4%), 소비활동(17.2%), 문화활동(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교급별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급별로는 교통수단이 가장 우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중학생이 62.1%, 고등학생이 58.9%, 대학생이 53.4%의 응답률을 보였다.

소비활동을 우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18.6%, 고등학생이 16.7%로 다음 순위를 보였다. 그러나 대학생은 문화활동 영역을 우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교통수단 13.6%보다 높은 17.0%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도 학생, 비학생 청소년 모두 교통수단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소비활동, 문화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청소년증 사용시 가장 우대되어야 할 영역

단위: 빈도(%)

구분		교통수단	문화활동	여가관련활동	소비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	전체	x ² 값
교급별	중학생	164 (62.1)	17 (6.4)	24 (9.1)	49 (18.6)	10 (3.8)	264 (100.0)	22.506 **
	고등학생	152 (58.9)	33 (12.8)	21 (8.1)	43 (16.7)	9 (3.5)	258 (100.0)	
	대학생	157 (53.4)	50 (17.0)	25 (8.5)	40 (13.6)	22 (7.5)	294 (100.0)	
계		576 (57.4)	117 (11.7)	82 (8.2)	173 (17.2)	56 (5.6)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3. 요약 및 소결

이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는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만족도 그리고 우대제도 및 청소년증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면, 잘 알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이 약 10.6%로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인식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96.8%로 매우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활동기회부여,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 자기발전의 기회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양상을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들 자신의 권리와 활동기회를 보장 받음으로써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대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요구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 할인 등을 포함하는 우대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수단 중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교통수단 중 항공과 배의 경우 그리고 여행관련 상품과 레저스포츠 시설 등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소비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할인제도 등 우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할인금액 등 우대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할인대상 영역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할인 등 우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우대제도의 형태에 대해서는 할인을 통해 우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87.7%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고,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우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7%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쿠폰발행이 3%, 무료이용이 0.5% 순이었다. 이러한 반응양상을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직접

적인 할인을 통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우대의 필요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교통수단 중 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지하철은 61.1%가 우대가 “매우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철도와 항공의 경우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보다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5%, 33.4%로 가장 높아 버스와 지하철에 비해 필요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활동 영역에서는 영화/연극, 공연관람의 경우 각각 56.1%, 42.9%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박물관/미술관은 “필요하다”는 반응이 36.4%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 32.2%로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과관련 활동의 경우는 놀이공원/동식물원이 청소년 우대필요정도가 매우 높다는 응답이 나왔다. 반면, 여행관련상품, 레저스포츠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각각 35.6%, 33%, 35.1%로 가장 높았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활동의 경우는 미용실/이발소, 체인음식점, 서적구입, 이동통신.인터넷 등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 우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다는 응답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교육·진로개발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외국어 학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예·체능학원,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33.1%, 30.5%,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중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우대제도의 인식도와 마찬가지로 낮은 인식도를 나타냈다. 즉 전체 응답자 중 78.9%가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낮은 인식도를 반증하듯이 청소년중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정보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낮은 할인율과 할인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청소년증 보유여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4.7%만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보유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증 보유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학생 중 약 10.6%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청소년증 사용시 가장 우대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교통수단이 57.4%로 가장 우대되어야 할 영역으로 나타났고, 소비활동이 17.2%, 문화활동 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과 함께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우대제도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우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우대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대의 폭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우대의 현실적 방안으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청소년증을 보다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되었듯이 청소년증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도와 이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할인율이 낮고,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앞으로 청소년증의 할인율을 높이고, 그 활용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증 확대의 우선순위를 보면, 통계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인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의 우대 내용이 먼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후 각종 소비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청소년증의 문제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청소년증 등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증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대제도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영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우대제도 실시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도적의 정비가 요구된다.

V. 외국의 청소년 우대제도

1. 일본
2. 호주
3. 캐나다
4. 독일
5. 프랑스
6. 영국

V. 외국의 청소년 우대제도

1. 일본*

1) 정책방향

일본은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고 있고 취학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취학률이 99%를 넘고 고등학교 진학률 또한 97.7%에 달한다. 고등학교 중퇴율이 2%대이므로 일본에서 18세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다. 고교졸업자 중에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49%이고 전수학교 진학률은 18%에 달하므로 20대 초반까지의 일본 청소년의 60%정도가 학생신분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수준에 맞는 정도로 청소년 우대정책이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학생신분을 가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문화적 시설과 교통시설 이용시에는 학생할인제도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초점은 우대 보다는 보호와 육성에 맞추어져 있다. 학생신분을 가진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세대’ 이고,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으로 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일본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교졸업생의 취업률은 2006년을 기준으로 18%이다. 이는 전국의 평균치이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경지역은 7%에 불과하지만 대도시권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경우 20%~30%에 달한다. 또한 고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이 아닌 2년제 단기대학이나 전수학교 및 직업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 이 부분은 김진숙 박사(부경대학교)가 집필하였음.

20세 이후에는 직업세계로 진출한다. 그러므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볼 때 20대 초반 일본 청소년의 절반은 직업세계와 연관을 맺고 있다. 근로 청소년들을 대학교에 진학한 동년배들과 비교하면 문화적인 측면이 결핍되기 쉽다. 본문에서는 학생신분인 청소년들과 근로자신분인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할인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의 청소년 우대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1) 학생을 위한 할인우대정책

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시 우대조치

2002년 이전의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입장료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한해 무료로 하고 그 이외의 날에는 아주 저렴한 학생특별요금을 징수하였다. 2002년 4월부터 완전 주요일제가 실시됨과 동시에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특별전을 제외한 상설전시장에의 입장이 무료로 전환되었다. 고교생과 대학생들은 박물관에 따라 정해진 아래와 같은 특별할인요금을 지불한다.

<표 V-1> 일본의 국립박물관 학생할인요금제도

미술관·박물관 명칭	소재지	학생할인요금
東京国立近代美術館	東京都千代田区	고교생70엔, 대학생130엔(일반420엔)
京都国立近代美術館	京都市京都市	고교생600엔, 대학생800(일반 1,250엔)
国立西洋美術館	東京都台東区	고교생70엔, 대학생130엔(일반420엔)
国立国際美術館	大阪府吹田市	고교생70엔, 대학생130엔(일반420엔)
東京国立博物館	東京都台東区	고교생무료, 대학생400엔(일반 600엔)
京都国立博物館	京都市京都市	고교생·대학생 250엔(일반 500엔)
奈良国立博物館	奈良県奈良市	고교생·대학생 250엔(일반 500엔)
九州国立博物館	福岡県太宰府市石坂	고교생·대학생 130엔(일반 420엔)

② 사립박물관 이용에 대한 우대조치

가. 제정 이유

1992년부터 공립학교에서 부분적인 주요일제 수업¹⁾이 시행되기 시작하여 2002년부터 완전 주요일제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주말에 학교를 가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체험기회를 확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부과학성은 1997년 6월에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 교육장에게 「사립박물관에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학습기회의 충실에 관한 기준」을 전달하였다. 이는 국·공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소재한 사립박물관을 청소년들의 학습을 위한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나. 우대조치의 내용과 인센티브

각 지역의 사립박물관들이 공립학교의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초·중고생의 입장을 무료로 하고, 청소년과 자녀를 동반한 부모를 우대하는 것이 문부성의 권장사항의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수업이 있는 주중에도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사립박물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등의 청소년 우대조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우대제도를 실시하는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의거한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 ‘특정공익증진법인’으로 인정하여 세제우대조치의 수혜대상으로 삼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립박물관의 청소년 우대조치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경우에 위의 기준들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위의 기준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위원회 산하 학교의

1) 1992년 9월부터 모든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대다수 고등학교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수업이 없는 날로 정하고, 1995년 4월부터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2002년 4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의 수업을 폐지함으로써 완전 주요일제 수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립학교에는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립학교에서는 학교별로 결정하여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교육활동 및 청소년의 학습 및 체험활동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③ 교통기관 학생할인제도

가. 학생할인승차권 제도

교통기관 학생할인승차권 제도라는 것은 지정된 학교(중학교, 고교, 대학, 대학원 혹은 일부 전문학교) 학생이 편도 100킬로미터를 넘는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 운임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ㄱ. 학생할인제도를 실시하는 교통관련회사

일본은 철도에의 교통의존율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1987년 국영철도였던 JNR(Japan National Railway)이 민영화되면서 JR(Japan Railway)이라는 회사가 탄생했다. JR은 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해운을 포함하는 종합교통운수회사로 7개의 회사가 통합운영하고 있다. 학생할인제도를 실시하는 교통기관으로는 JR을 비롯하여 대규모 사립철도회사, 페리와 일부 장거리버스회사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近鐵, 名鐵, 東武와 같은 대규모 사립철도회사, 동일본페리, 신일본해페리, 블루하이웨이라인, 다이야몬드페리, 한큐페리등의 선박회사와 시모토세키와 부산을 잇는 부관페리회사가 학생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JR버스관동, JR동해버스, 서일본JR버스 등 JR계열의 버스회사의 일부노선에서도 학생할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ㄴ. JR의 학생할인승차권 제도

가장 큰 규모의 교통관련회사인 JR의 기차는 신칸센(新幹線), 도큐(特急), 큐코(急行), 가이소쿠(快速), 후쯔우(普通)등의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JR의 학생할인율은 20%이지만,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승차권에 한정된다. 특급열차 이상의 기차를 타는 경우에 승차권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특급권, 지정석권, 침대권, 그린권 등에는 할인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전체 교통비 중에서 할인이 되는 비율은 어떤 등급의 열차를 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편도 600킬로미터를 넘는 장거리인 경우에는 할인율이 28%정도로 높아진다.

학생할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학생여객운임할인증’(이하 학생할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학생할인으로 승차권을 사기 위한 증명서인데, 학생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할인증’의 발행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1년간 1인당 발행매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학생 2장, 고등학생 5장, 대학생 10장이라는 상한선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생의 것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의 몫으로 돌려서 발행하기도 한다. 재수생인 경우에도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재수학원이 학생할인제도의 지정학교로 선정되어 있으면 수혜대상이 된다.

JR이외의 교통관련회사 중에서 학생할인승차권 제도를 실시하는 동일본 페리, 다이아몬드페리, 한큐페리, 관부페리와 같은 회사들은 ‘학생 할인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학생증으로 대체한다. 할인율은 20%이지만 2등석 운임에만 적용되며 1등석이나 특등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받지 못한다.

㉔. 항공권 할인제도

항공기 이용시의 학생할인제도에는 수험생 할인제도가 있다. 입학시즌인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시행된다. 비행지역에 따라 할인율이 35%인 경우도 있으나 보통 43%까지 할인된다. 청소년을 위한 또 다른 항공기 우대제도로는 아동요금제도와 스카이메이트 제도가 있다. 아동요금제의 할인대상은 3세 이상 12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할인혜택은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지역에 따라 할인요금이 정해져 있다. 스카이메이트 제도는 학생신분에 상관없이 12세 이상 22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카이메이트 회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비는 1000엔이다. 할인율은 일정하지 않다. 보통 35%가 할인되며 비성수기 기간에는 최고 47%까지 할인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할인받는 경

우에는 예약이 불가능하고 당일 공항에서 공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나. 통학정기승차권 제도

철도사업자로부터 지정받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통학시에 필요한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통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구간은 집으로부터 학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된다.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통학증명서나 학생증을 제시하고 구입한다.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지정학교로 인가를 받는다.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학교로 배정되기 때문에 통학권이 필요하지 않지만 통폐합된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거나 거주지와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통학증명서를 가지고 통학정기권을 구입한다. 전문학교의 경우에는 지정학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연간수업시수와 수업내용 등이 일정수준에 달해야 한다. 또한 연간수업시수가 일정기준에 달한 재수학원에 다니는 재수생들에게도 발매된다.

지정학교로 인정받지 않은 학원, 일부 전문학교, 해외법인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JR그룹에 의해 인정받은 학교는 다른 철도회사에서도 수혜대상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공영 및 사립 철도회사의 경우에는 JR과 다른 기준으로 가지고 지정학교를 선정하고 있다.

다. 실습용 통학정기승차권 제도

정기통학승차권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실습용통학정기승차권 제도가 있다. 이는 실습을 위해 학교이외의 장소로 통학을 하는 학생에게 발매된다. 지정학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학생개인이 아닌 학교단위로 해야 한다. 주로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의 실습을 하는 의료계통 학교의 학생들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의 복지기관에서 실습하는 복지계통 학교의 학생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 단 실습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통학이 아니라 통근을 위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통학회수승차권 제도

방송대학이나 통신제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매일 통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학정기권이 아니라 통학회수권이 발행된다.

④ 핸드폰 사용시의 학생할인서비스 제도

핸드폰회사에서 학생 회원에게 기본요금의 50%와 사용료의 20-5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국제통화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초등학교 학생과 핸드폰 회사에서 지정한 학교이외의 학생들은 제외된다. 일단 학생 할인요금으로 계약하면 1년간은 의무계약기간이 된다. 또한 할인서비스의 중복을 막기 위해 학생할인제에 가입하면 지정할인제와 가족할인제의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⑤ 컴퓨터 관련 제품 구입시 학생할인서비스 제도

가. 대상자

아카데미팩키지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육, 문화기관 관계자들에게 소프트웨어제품을 특별할인해 주는 제도의 일환으로, 문부성이 관할하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대학의 경우에는 경찰대학이나 방위대학(사관학교)와 같은 특수목적대학 학생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되지만 해상기술학교와 같은 국토 교통성 소관의 특수학교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의 할인서비스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점포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되고, 온라인 점포에서 구입할 시에는 소속 학교 메일계정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개 일반판매용과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해 주는 서비스제도이지만 일부 소프트웨어 제품에서는 특정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졸업 등의 이유로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의 경우에는 애플사가 일본 내 직영점을 통해 맥킨토시 시리즈 제품판매에서 학생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 할인서비스의 목적

공공기관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관련 사기업이 학생할인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미래의 소비자를 확보하려는 기업의 영리적 목적이고 둘째는 교육활동지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로청소년을 위한 우대정책- 근로청소년 여객운임할인제도

① 수혜대상

취업을 하고 있는 15세에서 20세 미만 근로청소년들의 추석과 연말연시 귀성여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할인제도이다. 운수회사에 따라서는 귀성여행 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을 하는 근로청소년들에게도 할인을 해준다. 노동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직국가공무원, 가사노동 종사자와 노동기준법에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노동기준감독기관이 감독권을 갖지 않은 일반직지방공무원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가사노동 종사자의 경우에도 도도부현 노동국총무과에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근로청소년 홈에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근로청소년 홈에서 사무처리를 대행할 경우에는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② 할인승차권의 종류와 할인율

할인승차권의 종류는 철도 보통이용권과 선박의 2등석과 장거리버스 이용권이며 할인율은 보통승차권의 20%이며, 특급승차권이나 지정석 이용권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효기간은 JR의 경우에 편도4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틀간(왕복 4일간)이며 편도 400킬로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7일간(왕복 14일간)이다. 이용 가능한 횟수는 운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명절 때의 승차권은 연간 2회에 한하며 장거리여행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회사도 있다.

3) 시사점

우리나라의 학생우대제도를 살펴보면 아직도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의 경우 어린이요금은 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청소년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한다²⁾. 그러나 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철도회원에 가입하거나 철도청 인터넷일반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학생신분을 가진 청소년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학생증이나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할인증을 가지고 학생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만 경제적인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비교할 때 철도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우대하기 위한 철도용 청소년카드제는 경제적 부담을 부여하는 동시에 철도청 전산화작업에 협력할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습과 교양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국립박물관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와 청소년할인요금제도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범위는 18세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이라도 할인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인문계가 88.3%이고 실업계는 67.6%에 달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입시준비로 인해 문화적 활동이 많이 억압당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정을 고려할 때, 대학생에게 박물관 이용시에 일반인과 같은 요금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할인혜택을 주어야

2) 철도이용을 위한 청소년 할인카드는 6개월에 40회 이용 가능한 카드발급에 30,000원 1년에 80회 이용 가능한 카드발급에 5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카드를 발급받았을 경우 KTX는 주중에 30%, 주말에 1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새마을호는 주중 15%, 주말에 7.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또한 우리나라도 주요일제가 확대일로에 있으므로 사립박물관의 청소년입장료 무료제도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로 세제혜택을 주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³⁾.

2. 호주*

1) 정책방향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정식 직업을 갖기 위해 직업훈련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이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면 공부할 학업량이라든가 앞으로의 진로문제, 친구간이나 가족 간 또는 교사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기인될 것이다. 호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산하에 센터링크(Centrelink)라는 통합기관을 두어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복지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우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 해당된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거나 학생은 아니지만 정식직업을 찾을 때까지 청소년들, 그리고 만약 그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하길 원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직업을

3) 일본에서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커다란 방향성중의 하나가 민간의 힘을 활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청소년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작은 정부정책이 청소년 우대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청소년우대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난 다양한 청소년 우대정책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어느 나라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정책의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는 없다.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청소년부문의외의 복지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일본과 같이 세제혜택을 통해 청소년우대정책에 민간의 에너지를 흡수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청소년우대정책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 이 부분은 김옥선 회장(Hills Korean Women's Group)이 집필하였음.

구하고 있을 때 정식직원이 되기 전의 직업훈련 기간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호주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각종 수당과 필요한 도움을 준다. 호주에서는 12세~24세의 청소년들은 전일제(full-time)이거나 시간제(part time)로 대부분 학업 중에 있고, 그 중 많은 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호주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1) 주요 우대제도

① 청소년수당 (Youth Allowance)

청소년수당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가장 강력한 제도이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전일제(full time) 학생, 혹은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으로서 구직 중이거나, 실업 수당 수령을 위한 근로(Work for the Dole), 또는 자원 봉사 활동 등과 같이 인정된 활동들을 하는 경우, 혹은 질병 등의 사유로 활동 심사 (Activity Test)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은 경우, 또는 25세 이상의 전일제(full time)학생으로서, 25세가 되기 직전에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을 받고 있었으며 현재도 같은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재학기간 중은 1년에 약 6000호주달러 까지 지원해준다. 그밖에 생활비, 집세보조, 교통비 지급, 오지수당, 약값보조 등이 있다. 단 소득과 자산이 특정 한도 이하여야 한다.

② Austudy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Austudy를 받을 수 있다:

25세 이상 이지만 전일제 학생으로서, 승인된 기관에서 승인된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partner)의 소득과 자산이 특정액 이하인 경우.

③ ABSTUDY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토레스해협(Torres Straits Islands)의 섬 주민 자녀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의 학생)에게, 또는 본토에서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직업훈련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재정적인 보조를 하기위한 제도이다.

④ 간병인 수당 (Carer Allowance)

집에 돌보아야 하는 노약자나 정신지체자 등이 있는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

환자를 간호하고 돌보아야 하기에 일할수도 없고, 사회생활도 힘들다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⑤ 재난지급금 (Crisis payment)

이 제도의 목적은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갑작스런 재정상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금이다. 가정폭력 또는 화재로 집이 타버린 경우, 교정기관에서 막 석방된 사람 등에게 한번만 지급된다.

⑥ 장애인 고용보조 (Disability Employment Assistance)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취업하는 데는 약 800 여개의 서비스 통로가 있지만 지적,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직업을 알선한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16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지원기금 (DSP)에서 주는 재정적인 도움 또한 받을 수 있다.

⑦ 교통수단 수당 (Mobility Allowance)

16세 이상이며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자신의 보조장비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집에서부터 학교나 직장까지 또는 그 밖의 교육 훈련기관까지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단 1주일에 8시간 이상의 학업이나 일을 하는 것에 한해서이다. 그 일은 자원 봉사도 해당된다. 격주로 74.30~104 호주달러가 지급되나 1년에 26주로 계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다.

⑧ 실업수당 (New start Allowance)

실직자이거나 구직자에게는 안전망과 같은 제도이다. 21세 이상인 실업자에게 직업을 구할 때까지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업을 계속 찾고 있다는 활동보고서가 있어야 하며, 단 일시적인 상해, 질병, 기타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활동심사가 면제된다. 또는 더 기술을 배우기 원하면 학교에 등록하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도 받을 수 있다.

⑨ 육아 지급금 (Parenting Payment)

육아를 위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됨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한다.

⑩ 주거비 보조금 (Rent Assistance)

주거비를 보조함으로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주거비부담을 덜어주어 그들이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21세 이하이며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부담하고 있는 집세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Austudy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25세 이하로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자 지원 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집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⑪ 특별 보조금 (Special Benefit)

어떠한 수당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본인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혜택.

⑫ 질병 수당 (Sickness Allowance)

21세 이상에 해당되며 질병으로 인한 입원 혹은 일시적으로 학업이나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

⑬ 독립생활 준비 지원금(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llowance)

15세에서 25세의 청소년들이 부모에게서 독립해 살아갈 때 TILA에서는 1000 호주달러까지 상당하는 기본 가재도구를 지원해준다.

(2) 추가로 주어지는 우대제도

14일 단위로 지급되는 지급금이나 수당 외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의료혜택카드 (Health Care Card)

약을 싼 값으로 살 수 있고, 구급차이용이나 치과, 안과 이용 할 때에도 혜택이 있다. 또한 이 카드로 대중교통기관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이 있다. 이 의료혜택 카드 소지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수도나 전기, 가스요금도 할인된다.

② 의약품비 수당 (Pharmaceutical Allowance)

청소년 수당을 받으면서 정상인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Austudy를 받으면서 60세 이상인 경우에 처방전 의약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③ 원격지 아동지원보조금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보살피고 있는 아동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그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대신하여 원격지 아동 지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너무 멀리 사는 관계로 공립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이거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혹은 비정규 과정 (예: 직업 기술과정)에서 전일제(full time)로 공부를 하고 있거나, 16세 이하로서 3차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 학생이 학업

때문에 집에서 나와 기숙해야 하는 경우, 또는 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가족이 집을 한 채 더 마련해야 하는 경우, 혹은 학생이 통신 교육으로 전일제 수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④ 교통비 수당 (Fares Allowance)

교통비 수당은 청소년 수당, Austudy 혹은 연금 수혜자 교육 지원 수당 (PES)을 받으면서 제3차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서, 집에서 나와서 부모/보호자, 배우자(partner)나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일상적인 통학 교통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간 두 차례 집에 다녀 올 수 있는 왕복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⑤ 연금수혜자 교육 지원 수당 (PES-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연금 수혜자 교육 지원 수당은 지속적인 학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간병인, 보호자, 장애인 및 연방 정부의 소득 지원 지급금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수령액은 학업량과 연방정부에서 받고 있는 보조금의 총액에 따라 결정된다.

(3)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급금 (Family Assistance Office)

자녀양육보조금(Family Assistance Office)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보조금들도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있다.

① 가족 세제 혜택 (Family Tax Benefit)

세금혜택수당으로 14일마다 지급 받을 수도 있고, 세 감면으로 혜택 받을 수도 있다.

② 유아원비 지원 (Child Care Benefit)

자녀들의 유아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③ 출산 수당 (Maternity Allowance)

출산수당은 청소년들에게는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2주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④ 출산 후 예방 접종 수당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신생아들을 위한 지급금으로 18개월에서 2세 사이에 신청해야하며,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소득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보고해야 한다.

(4) 학생 교통 통학비 지원제도 (School Student Transport Scheme)

이 제도는 유치원에서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주는 우대제도이다. 등하교시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에 해당되며 이것은 학교와 집까지의 교통수단 이용에만 적용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이용가능하다. 열차통학생은 주말이나 방학 중에도 이용가능하고,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집까지 연간 9회까지 주말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사설 교통수단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경우 기숙사생들을 위해 따로 교통비가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뉴사우스 웨일즈주 주정부는 학생, 구직자, 시각장애인, 장애인, 저소득층, 전쟁미망인, 경로증 소지자 들은 특별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교통 할인카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학생증에 부착된 카드가 있고,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카드가 있다. 이 카드로는 국철 이용시, 시내버스, 페리 이외에도 사설철도와 사설버스 등에도 적용된다. 또한 학생들은 등하교시 학생용 T카드를 따로 신청 할 수 있어 일반버스나 기차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운행되는 사설 교통수단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당이나 재정적인 혜택이외에 각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5)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① 남호주주(South Australia)에서 통용되고 있는 할인카드

중·고등학생, 전문대학, 대학생, 장애인 할인카드 그 밖에 의료카드로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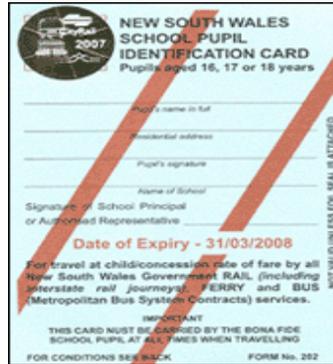


<그림 V-1> 남호주주(South Australia)의 할인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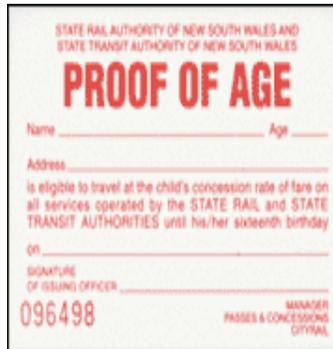
② 특별할인카드 (Concession Card)

뉴 사우스 웨일스주 학생증명 카드
(Form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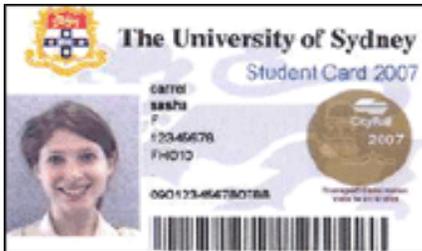
ACT주와 뉴 사우스 웨일스주
16~18세 학생들이 소지하는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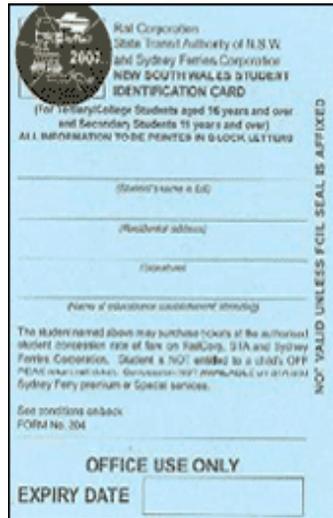
뉴 사우스 웨일스 주에서는
16세 이하의 어린 학생이지만
필요하면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해야 하기도 한다.



뉴 사우스 웨일스주 대학생 증명 카드
(Form 204)
16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
혹은 사립전문대학에
전일제로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할인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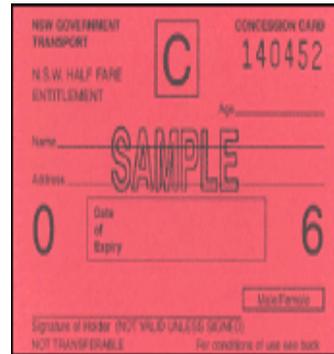
단, 유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업훈련생 할인카드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등록되어
 1~3년간의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할인카드



반액 할인 카드
 실업자 수당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할인카드



연금 수혜자 특별할인 카드
 (NSW주, ACT주, 빅토리아주)
 연금 수혜자나 뒷면에
 쓰여진 가족에도 해당된다.
 하루 중 \$2.50으로 종일 시드니 북부지역
 뉴 카슬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림 V-2> 호주의 특별할인카드

(6) 각 주별로 본 청소년 우대정책

① 뉴사우스웨일즈주

가. 구직망제도 (Job Network)

사설기관이나 지방자치, 정부기관을 총망라한 전국적인 연결망으로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이력서 작성이나 직업훈련, 대화기술훈련, 문서작성연습은 물론 직업 상담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준다.

나. 고용알선, 취업 및 기술훈련 프로그램 (Job Placement,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

집이 없거나 실직 상태 또는 원격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다. 지방 취업 장려프로그램

농업이나 임업, 어업등의 1차 산업에 종사하거나 식품가공업체등의 산업체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한다.

라. 장애인 고용정책 서비스

장애가 있는 사람도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고 그 외 고용주에게 청소년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와, 실업자가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스스로 창업할 수 있게 장려하는 창업 장려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 밖에 정보교환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기도 하고 Australian Youth Ambassadors for Development Program 같은 것은 18~30세의 젊은이들이 아시아지역의 개발 도상국가에서 단기간 머물면서 기술교환 경험획득 등의 기회를 얻게 하는 청소년대사제도이다.

② 빅토리아주

주정부는 직업훈련생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한다. 첫 6개월 과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250을 지급하고, 1년을 이수한 청소년들에게는 \$250을 보너스로 지급하여 청소년들이 첫번째의 직업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이수하기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소년 우대제도로 다양한 학생할인이 있는데, 극장, 서점, 식당, 펍(pub)이나 클럽 이용시 또는 항공료, 대중교통기관 이용 시에 할인된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전일제 학생일 때 해당된다. 그밖에 국제학생증을 발급 받으면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한 여행자 할인제도가 있는데, 외국에서의 항공료, 숙박, 박물관, 문화행사, 음식점, 쇼핑, 극장 등 이용 시에 할인혜택이 있다.

③ 타스마니아주



주정부는 주정부 차원에서 특별할인 카드 소지자에게는 주가 하나의 섬인 관계로 다른 낙도에서 타스마니아 섬까지는 버스요금 이외에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다른 섬에서 선착장까지의 이동요금도 지급하며, 호주 본토까지 페리요금을 50%까지 보조해주고, 1년에 한번 항공료도 50% 보조해 준다. 또한 타스마니아주 출신학생에게는 주거비 특혜도 준다. 그밖에 지역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다양하다.

④ 남오스트레일리아주

남호주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현장에서부터 졸업하여 직장까지 성공적으로 이동 할 수 있게 하고,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전문기관으로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지역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A Works같은 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업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이것은 학교를 떠났거나 직장이나 훈련과정에서 떠나 있는 청소년들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Learn2Earn은 16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배워가며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안학습 프로그램(ALOP) 같은 것은 학교 중퇴 청소년과 퇴학자들을 위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나 혹은 구직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 밖에 청소년들에게 환경보호 단체에서 일하며 경험도 쌓고 훈련 받으며 기술을 익히게 하는 청소년 환경수호군단 같은 제도도 있다.

(7) 정부의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

그 밖에 다음 표와 같이 정부의 센터링크(Centre link)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① 취업·학업·기술습득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
 각 주정부에 있는 센터링크(Centre link)에서는 취업, 사회봉사 활동, 학업, 기술 습득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표 V-2> 센터링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 종목	지원 형태
진로 정보 센터/진로 상담 (Career Information Centres /Career Counselling)	기술습득 과정, 교육 기관 입학, 진로 및 고용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개시 지급금 및 고용 개시 지급금 (Education Entry Payment & Employment Entry Payment)	학업이나 정규직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시불 지급금.
취업 셀프 서비스 (Employment Self Help)	센터링크에서는 컴퓨터, 복사기, 호주 구직 정보 터치스크린 및 기타의 설비를 구직자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지원 종목	지원 형태
녹색 군단 (Green Corps)	17-20세의 청소년들을 위한 자발적인 환경 훈련 프로그램.
구직망 (Job Network)	센터링크에서는 유급직을 찾고 있는 구직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취업 알선 기관들의 전국적인 연결망에 추천해 줄 수 있다.
고용 알선, 취업 및 기술습득훈련 (Job Placement, Employment and Training -JPET)	청소년들이 주거를 마련하고, 재무관리를 하며, 학업을 계속하고, 구직, 또는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취업, 교육, 기술양성 훈련 프로그램 (Jobs, Education and Training -JET Program)	부모나 간병인 (노약자의 보호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구직자 기금계좌 (Job Seeker Account)	Job Network (구직망) 회원사들이 구직자들의 지속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금.
취업 준비 프로그램 (Jobs Pathway Program)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일터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언어, 읽기, 쓰기 및 산술 보조 프로그램 (Language, Literacy and Numeracy Program)	말하기, 읽기, 쓰기, 및 산술 능력 개선 지원금. 2003년 9월부터 부대비용 지원금을 2주 간격으로 받을 수 있음.
국립 해외 기술인정국 (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 -NOOSR)	해외에서 습득한 기술을 인정받도록 지원.
신규 견습생 액세스 프로그램 및 신규 견습 제도 (New Apprenticeships Access Program -NAAP & New Apprenticeships)	국가 인정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와 지원 제공.
창업 인센티브 제도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NEIS)	실업자들의 창업 지원.
취업 패스포트 (Passport to Employment)	이력서, 구직 신청서 준비와 면담 기법 개발을 훈련, 지원.

지원 종목	지원 형태
연금 수혜자 교육 지원 수당 (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PES)	호주 연금 수혜자로서 공부를 하는 경우 학비 지원을 위한 수당.
개인 상담원 (Personal Advisers)	센터링크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급직을 찾거나 지역 사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지원.
개인 지원 프로그램 (Personal Support Program)	노숙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가정 폭력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취업 노력을 하도록 지원.
재결합 (Reconnect)	노숙자 상태이거나 그런 위험에 처한 12-18세의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
창업 및 지역 사업 조합 (Self Employment Development and Group Community Cooperative Enterprise)	구직자들이 시장 조사를 하거나 실효성이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지원.
특별 취업 선지급금 (Special Employment Advance)	Centrelink에서 소득 지원 지급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 초기에 최고 \$500까지 무이자로 지급되는 선지급금.
훈련 계좌 (Training Accounts)	장년층의 구직자들이 지역 구직 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
훈련 지원금 (Training Credits)	자격증 훈련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고 As\$800까지 Training Credits 지원.
취업 준비 (Transition to Work)	2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던 부모, 간병인 혹은 노약자의 보호자, 50세 이상의 장년층 사람들을 지원.
실업 수당 수령을 위한 근로 (Work for the Dole)	지역 사회에 중요한 활동들에 참여하여 현장 실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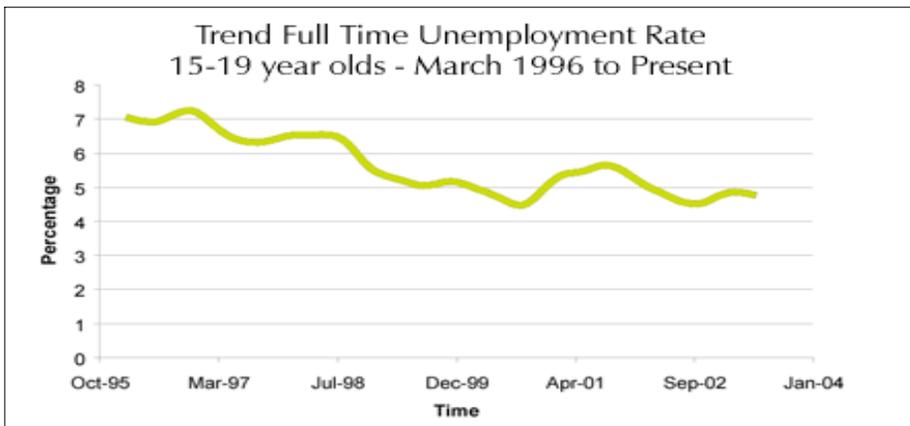
② 청소년 수당과 지급금(Austudy) 수령규칙

위와 같은 청소년수당이나 오스타디의 특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이사, 학업중단, 취업 등의 경우처럼 주변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센터링크에 통보해야 하며, 어떠한 변경 사항이든 센터링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지급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센터링크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답신을 해야 하고, 면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벌칙이 부과되어 지급금이 감소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3) 시사점

호주정부의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수십년 간의 청소년 실업률이 호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그림 V-3>와 같이 꾸준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택은 그들의 장래 직업 현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부터 직업 현장으로의 성공적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호주연방정부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학교를 나와 직업을 얻기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가이드 및 재정서비스,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출처: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자료, cat. no. 6202.

<그림 V-3> 15세~19세 청소년들의 실업률 경향 (1996. 3~2004. 1)

호주의 청소년 정책을 조사하면서, 단순히 교통비나 극장, 각종 기관의 입장료 할인 혜택이 전부인 우리 현실에 비춰 볼 때 선진국의 청소년 복지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동안은 가능하면 가족이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생계문제로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업을 갖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호주 정부의 노력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사료된다.

3. 캐나다(Vancouver, Toronto, Ottawa)*

1) 교통수단(Transportation):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

캐나다는 넓은 국토에 적은 인구가 흩어져 사는 거주 특징에 따라 원·근거리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다. 캐나다 국내의 주요 교통수단은 국내선 항공기, 버스와 기차, 페리 등이 있으며, 특정 구역에서만 운행되는 시내버스와 전철, 근거리 페리 등이 있다. 캐나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통의 이용정보는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버스와 전철(Sky Train), 페리(Sea Bus) 등 비교적 다양한 교통수단이 운행되고 있는 밴쿠버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항공

한국에서 캐나다로 운행되는 여객기 중 밴쿠버와 토론토 행만 직행이고, 나머지는 미국이나 일본 등을 경유하게 된다. 국내에서 캐나다로 취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KAL)과 에어캐나다(AC), 일본항공(JAL), 유나이티드(UA), 노스웨스트(NW), 싱가포르에어(SQ) 등이 있다.

항공료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며 타 지역과 달리 예외지역으로 미주/캐나다 지역은 나이 제한 없이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생요

* 이 부분은 설인자 교수(백석대학교)가 집필하였음.

금 적용이 가능하다.

아동, 청소년, 학생요금 등의 할인요금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지 않고 그 할인율은 연령이나 목적지, 항공사나 여행사에 따라 상이하다. 청소년 요금은 25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그보다 약간 나이가 많더라도 학생인 경우 요금의 25%를 할인해 준다.

학생 할인은 청소년할인과 비슷하나 출발지와 목적지가 본국과 교육기관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요금 적용 나이는 만 26세 미만이며, 항공사에 따라 만30세 미만인 경우도 있다. 학생 요금을 원할 경우에는 학생증빙서류(학생증 사본 혹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 버스와 전철

캐나다의 대중교통이용요금은 이동거리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전철요금 체계와 비슷하게 1, 2, 3구역으로 나누어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캐나다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는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스카이 트레인), 캘거리 등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버스나 지하철의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배차 시간이 정확하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다.

환승티켓이 있어서 행선지에 맞는 요금을 내고 이용권을 구입하면 버스-전철을 갈아타야 할 때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밴쿠버에서는 버스-페리(Sea Bus)-전철(Sky Train)을 이용하여 행선지로 이동하는 경우, 미리 받아놓은 환승티켓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토론토의 경우 지하철은 동서로 운행되는 블루어-댄포스(Bloor-Danforth) 라인과 남북으로 U자형을 그리며 운행되는 영 유니버시티(Yonge-University) 라인이 있다. 노면전차나 버스 등 제한 시간 내에는 얼마든지 환승이 가능하다.

몬트리올의 메트로는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네 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다운타운을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잇는 그린 라인과 여기에 U자형으로 교차하는 오렌지 라인, 다운타운 북쪽에서 그린 라인과 나란히 달리는 블루 라인, 다운타운과 생텔렌 섬과 건너편의 롱그윌까지 연결하는 옐로우

라인이 있다. 지하철 안내판은 종착역 이름으로 표시해 놓았으므로 노선도로 자신이 가야할 역명을 찾아 진행방향을 알아보고 타도록 한다. 시내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므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표를 내고 들어가서 개찰구 근처의 자동발권기에서 TRANSPER 티켓을 뽑아둔다.

퀘벡 대부분의 도시에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시내버스는 특히 오토버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노선이 많고 복잡한 편이다. 요금은 지하철과 같으며 버스가 옆에 있는 박스에 요금을 내고 기사에게 환승권을 받아두면 지하철과의 환승이 자유롭다 역시 앞으로 타고 뒤로 내리는데, 내릴 때에는 차창 옆에 있는 끈을 당긴다.

퀘벡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어린이의 경우 만 5세까지는 무료이며 만 6세부터는 연령별로 구분해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25세 미만의 학생들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매년 1회용 표를 살 때나, 월간 주간 카드를 살 때 5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대중교통공단(la societe de transport en commun regionale)으로부터 특별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① 월정액권(Monthly FareCards)

이용구간을 미리 지정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1달간 이용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신 패스를 구입할 때 지정한 구역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동횟수가 잦은 경우에 유리하다.

대학, 전문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등록(full time)한 학생의 경우, 월정액권으로 이용시간대와 이동구간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우선 교내 학생회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Multi-zone Sticker)를 구입한 뒤, 월정액권을 사용할 때, 스티커가 붙은 학생증을 제하면 된다.

② 중고생패스(GoCard)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같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14~19세 사이의 중고생은 학생증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별도의 카드(GoCard)를 이용해서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GoCard'는 교내 또는 사설기관에서 신청해 2주 내

에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교내에서 발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GoCard'는 신청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를 옮길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③ 특별우대요금(Concession fares)

만 5세에서 만 13세 아동과 별도의 카드(GoCard)를 지닌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중고생과 신분증을 지닌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카드(HandyCard) 소지자에게 특별우대요금의 적용이 가능하다. 만 4세 미만은 요금을 받지 않는다.

가. 밴쿠버 요금체계

밴쿠버 버스나 전철 요금체계와 스케줄 등을 자세히 알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translink.bc.ca/Transportation_Services/Fares_Passes/default.asp

밴쿠버의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체계는 2007년 7월 현재 다음의 <표 V-3>과 같다.

<표 V-3> 밴쿠버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체계 (2007.7)

	구역(Zone)	성인요금	특별우대요금
정규요금(Regular Fares) 평일 새벽부터 6:30pm까지	1 Zone	\$2.25	\$1.50
	2 Zone	\$3.25	\$2.00
	3 Zone	\$4.50	\$3.00
할인요금(Discount Fares) 평일 6:30pm 이후와 토/일/공휴일 중일	All Zones	\$2.25	\$1.50

① U-Pass

U-Pass란 주로 SFU, UBC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교통카드이며, 1~3존까지 사용가능하다. 광역밴쿠버 교통망을 관장하는 트랜스링크(Trans link)는 4년제 대학인 UBC와 SFU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U-Pass(유패스) 통행권을 제공하고 있다. 한 학기에 88달러를 지급하면 학기 중에는 1존부터 3존까지 어디든 다닐 수 있고, 버스, 스카이 트레인, 씨 버스 등 트랜스링크에서 제공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유패스가 4년제 대학생들의 특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유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학생들이나 전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② FastTrax 스티커

FastTrax 스티커란 고등학교 졸업한 Post Secondary 학생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며, 1존 Monthly Pass를 구매하여 1~3존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학생회가 있는 학교는 FastTrax 스티커를 학생회를 통해서 구매하여 학생증에 붙이시고 이용하면 된다. BCIT나 VCC(밴쿠버 커뮤니티 칼리지) 등의 2-3년제 대학이 가능하다.

③ GoCard

GoCard란 중학생(나이로 14~19세)들이 이용하며, Concession fares(40불)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이 요금이 적용된다.

나. 토론토 요금체계

토론토의 경우 성인요금이 2.75불인데 반해 아동요금은 70센트, 경로요금과 학생요금은 1.85불로 동일하다. 자세한 요금과 스케줄은 <http://www.toronto.ca/ttc/fares.htm> 를 참고하면 된다.

다. 오타와 요금체계

캐나다의 행정 수도인 오타와의 경우 정규 성인요금과 청소년할인이나 학생할인은 다음과 같다. 일일패스의 경우 아동할인 이외에 청소년 할인은 없고, 월 단위 패스나 연간패스의 경우 학생할인이 있다. 자세한 요금(부록 2 참고)과 스케줄의 경우 http://www.octranspo.com/fares_menue.htm를 참고하면 된다.

(3) 장거리 버스 Ground (Coach Bus)

대부분의 버스터미널은 시내 중심부에 있고 티켓은 예약할 필요 없이 출발 전에 터미널에서 사면된다. 구간에 따라서 학생할인이 있다.

캐나다 횡단 시 이용되는 패스는 그레이하운드 인터내셔널 캐나다 패스와 캐나다 패스 플러스가 있다. 캐나다 패스의 경우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부터 온타리오 주까지의 주요 도시들을 돌아볼 수 있고 캐나다 패스 플러스는 애틀란틱 캐나다까지 캐나다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Greyhound Coach Canada는 10% 학생/청소년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greyhound.ca>를 참조하면 된다.

(4) 열차

1977년부터 캐나다인 내셔널 철도와 캐나다인 퍼시픽 철도로 나누어져 있던 철도 회사를 비아레일(VIA Rail)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된다. 비아레일 노선 중에서는 동부의 세인트로렌스 강에서 서부의 태평양 연안까지를 잇는 대륙횡단 노선이 가장 인기가 높다.

장기간 여행을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30일 중 12일간 모든 구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캔레일패스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좌석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기준으로 하고 침대차나 일등석을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풀타임 학생은 성인 정상요금의 35%(이코노미 클래스 경우)의 할인혜택이 있다. 17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제학생증(ISIC card) 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viarail.ca>를 참조하면 된다.

① 국제학생증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해외를 여행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국제학생증(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은 항공권/교통/숙소/환전 및 금융서비스/보험우대/현지 박물관, 유적지, 문화재 무료입장 및 할인/일반 사설 업체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국내할인서비스 ◇

- 항공권 : 유럽/호주/뉴질랜드/캐나다 학생 항공권 10~40% 저렴
- 교통패스 : 유럽/호주/뉴질랜드/캐나다 교통패스 5~15% 저렴
- 숙소 : 15,000원~ 30,000원대 저렴한 숙소예약 서비스
- 유학생 보험 : 학생 특별보험료를 적용 받음
- 환전 : 전국 외환은행 국제학생증 소지자 특별 우대 환율 적용
- 현금카드기능 : 외환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국제현금카드 기능 겸비
- 국제전화카드 : 데이콤과의 제휴를 통한 국제전화카드 기능 겸비

◇ 해외할인서비스 ◇

- 항공권 : 현지 학생여행사 및 항공사에 5~50% 저렴한 학생항공권 구입이 가능
- 교통편 : 국가별로 버스, 기차요금의 5~35% 학생 할인을 적용, 장거리의 경우 50%까지 가능
- 숙소 : ISIC 소지자에게 학생 할인을 제공
- 문화재/유적지/박물관 : 무료입장 및 할인을 제공
- 관광 : 유람선, 페리 등의 관광상품 이용 시 학생요금 적용
- ※ 이외의 다양한 현지 학생 할인이 제공(발급비용 : 1만4천원)

ㄱ. 학생할인 항공

각 항공사에서는 학생들의 이동 증대를 도모하고자 항공요금에서 학생특별 할인제도를 도입해 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서는 유학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만 학생 항공요금을 적용시키고 있어 방문 예정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학생 비자를 발급받는 학생이나 현지 교육 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상 수업을 등록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까다로운 확인과정을 거쳐 학생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학생증 ISIC를 소지한 학생들은 세계 100여 개국의 5000여 개 학생여행사를 통하여 쉽게 학생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서류 확인 과정 없이 국제학생증(ISIC)를 제시하면 된다.

한국의 경우도 현재 아시아나항공, 에어캐나다, KLM네델란드항공, 타이항공, ANA전일본항공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학생들을 위해 좀 더 저렴한 한 요금으로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ㄴ. 대중교통할인

해외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대중교통의 할인은 학생들에게 있어 필요한 혜택이다.

버스의 경우와는 달리 다수의 인원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인 기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가가 많다. 따라서 승차권 구입 시 까다로운 학생신분 확인과정이 있다.

국제학생증(ISIC) 소지자에게 제공 되어지는 기차 교통편 할인혜택의 예 : 캐나다 기차 40%할인, 호주 기차 40%할인, 체코 시내교통 50%할인, 아일랜드 기차 60%할인, 걸턴->대륙간 유로스타 할인, 대만철도 20%할인, 한국 무궁화호, 통일호는 20%할인, 미국 암트랙,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등 소정의 할인 혜택 제공

ISEC는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의 약자로 학생, 26세 미만의 청소년 및 교직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카드이다. ISEC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를 할 수 없고 분실한 카드는 재발행이 안된다.

ISYEC는 International Student & Youth Exchange Cards의 약자로 학생, 26세 미만의 청소년(유스)들을 위한 전세계 학생 & 청소년 할인 프로그램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극장, 놀이공원, 레스토랑, 미술관, 버스패스, 박물관, 패스트푸드점, 항공료 등과 같은 장소 및 업소에서 5~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문화활동(Cultural activities)

캐나다 주요 명승지를 중심으로 청소년요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금체계는 주로 6세 미만의 유아요금과 아동(6-12세)요금, 청소년(13-16세)요금, 학생(17이상 학생증 소지자)요금, 성인요금, 경로요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1) 밴쿠버(Vancouver)

밴쿠버의 경우, 특히 사항은 16세 이하의 청소년 요금이 학생요금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요금이나 학생요금 모두 경로요금보다 많이 저렴하다.

① 캐필라노 흔들다리 (Capilano Bridge)

성인요금	\$26.95
경로요금(65세 이상)	\$24.95
학생(17세 이상 학생증소지자)요금	\$20.75
청소년(13세 - 16세) 요금	\$15.65
아동 (6세 - 12세) 요금	\$8.30
6세 이하 아동 요금	무료

② 그라운드스 마운틴 (Grouse Mountain)

	Grouse Mountain 일반 입장료	Grouse Mountain 회원권
성인 (19-64세)	\$32.95	\$89.95
경로 (65세 이상)	\$30.95	\$69.95
청소년 (13-18세)	\$18.95	\$49.95
아동 (5-12세)	\$11.95	\$29.95
유아 (4세 이하)	free	\$24.95
커플 (성인 2명)	N/A	\$169.95
가족 (성인 2명/아동 2명)	N/A	\$189.95

③ 밴쿠버 전망탑 (Vancouver LookOut Tower)

성인	\$13.00
경로 (60세 이상)	\$11.00
학생증을 지닌 학생	\$9.00
청소년 (13-18세)	\$9.00
아동 (6-12세)	\$6.00
유아 (5세 이하)	FREE

④ 밴쿠버 박물관(Vancouver Museum)

성인	\$10.00
경로	\$ 8.00
학생 (18세 이상 학생증 소지자)	\$ 8.00
청소년 (5-17 세)	\$ 6.50
아동 (5세 미만)	Free
가족 (성인 2명 & 청소년 2명)	\$30.00

⑤ 영화관람 : Fifth Avenue Cinema

정상 요금	\$12.00
아동 (12-)	\$7.00
청소년	\$8.00
학생	\$8.00
경로 (65+)	\$7.00
평일 조조	\$9.00
주말 조조	\$10.00
회원 저녁	\$9.00
회원 평일 조조	\$8.00
회원 주말 조조	\$9.00

⑥ 연극/공연 관람 : Vancouver Playhouse

	성인	경로	학생/25세미만
시사회 저녁 / 조조	\$42	\$38	\$25
평일 저녁	\$50	\$42	\$25
주말 저녁	\$53	\$44	\$25

(2) 토론토(Toronto)

토론토의 문화시설/공간의 이용요금은 별도의 청소년요금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요금의 경우 없거나 만약 있다면 경로요금에 준하는 경우가 있었다.

① Casa Loma

성인	\$9
경로	\$5.50
학생	\$5.50
청소년	\$5
4세 이하 아동	Free

② CN Tower

성인	\$15.99
경로	\$13.99
아동(4-12세)	\$10.99
3세 이하 아동	Free

③ Old Fort York

성인	\$5
경로	\$3.25
학생	\$3.25
아동(6-12세)	\$3
5세 이하 아동	Free

④ Royal Ontario Museum

성인	\$20
경로	\$17
학생	\$17
아동(5-14세)	\$14
4세 이하 아동	Free

⑤ 영화관람 : Beach Cinemas

정상요금	\$9.95
아동(12-)	\$6.95
경로 (65+)	\$6.95

⑥ 연극/공연관람 : The Village Playhouse

성인	\$18.00
12세 이하 아동	\$15.00
경로(수요일/목요일/ 일요일만)	\$15.00

(3) 오타와(Ottawa)

캐나다의 행정수도인 오타와의 경우 다른 큰 도시 밴쿠버나 토론토에 비해 청소년우대나 학생우대의 사례가 거의 없었다.

① Central Experimental Farm

성인	CAD4;
경로 (60+)	CAD3.50;
학생 (15+)	CAD3;
아동 (3-14)	CAD3;
유아 (0-2)	Free

② Museum of Nature

학생요금이나 청소년요금제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서 개인요금이나 가족단위로 계수될 수밖에 없다.

개인	\$5
유아 (3세 이하)	Free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ximum 5 persons · maximum 3 adults · minimum 1 child/youth (younger than 18)

③ 영화관람 : Barrhaven Cinemas

정상요금	\$9.95
아동 (12-)	\$7.95
경로 (65+)	\$7.95
조조	\$9.95
화요일	\$7.95

④ 연극/공연관람 : The Great Canadian Theatre Company

시사회/조조/경로/학생	\$23 + \$2(서비스비용)
저녁	\$33 + \$2(서비스비용)

3) 여가활동(Recreation)

각종 놀이동산이나 동물원 등에서 청소년우대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밴쿠버의 경우 거의 모든 이용요금이 타 지역보다 비싼 반면 청소년/학생우대가 있었고 토론토나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우대가 미비하였다.

여행패키지의 경우 대도시 여러 여행사들을 인터넷 사이트 검색 결과 청소년우대나 학생우대를 찾을 수 없었고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확인하였으나 개인 항공권 이외에 여행 패키지 상품에서 청소년/학생우대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Bains Travel Ltd., TDI Travel, Cruise Holidays of Vancouver). 밴쿠버교민들을 위한 한국 신문에 나온 광고상품을 보면, 밴쿠버 시내에서 어학연수생/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한국 여행사의 관광상품에서 소폭의 학생할인을 제공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예, 성인 4인1실 249불, 학생 4인1실 199불) 극히 드문 일이다.

각종 청소년활동이나 캠프시설(Youth retreat/camp centres) 등은 미국/캐나다 전역에 걸쳐 대표적인 YMCA나 YWCA 같은 비영리기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YMCA 캠프의 이용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DERSON AREA YMCA RATES>

	한 달 이용료	연회원
가족	\$75	\$825
한부모 가족	\$61	\$670
경로 커플	\$52	\$572
경로 (65세 이상)	\$39	\$429
성인(18세 이상)	\$49	\$540
십대(13-17세)	\$30	\$330
청소년(12세 이하)	\$20	\$220
대학생	\$130 학기당	

(1) 밴쿠버(Vancouver)

① 놀이동산 : Playland

일일 패스	\$31.75
아동/청소년 일일패스	\$15.85
보호자 일일패스	\$12.67 성인 1인당

② Mt. Pleasant Community Center

가족	\$9.00
성인 (19세 이상)	\$6.00
청소년 (18세 이하)	\$3.00
경로 (60세 이상)	\$2.00

(2) 토론토(Toronto)

① 동물원: Toronto Zoo

성인(13-64세)	\$17
아동(4-12세)	\$9
경로(65세 이상)	\$11
3세 이하 유아	무료

② Toronto Bluejays (baseball)

학생할인/청소년할인이 없다.

③ Aurora Family Leisure Complex

Prime time Ice	\$170.50/hr
Non-Prime Ice (Weekday 8:00am to 4:00pm)	\$104.50/hr
Non-Prime Ice (Weekday 6:00am to 8:00am, Summer Ice)	\$110.00/hr
Arena Floor Rental - 청소년	\$38.00/hr
Arena Floor Rental - 성인	\$49.00/hr

(3) 오타와(Ottawa)

① Midway Family Fun Park

학생/ 청소년 요금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http://www.midwayfunpark.com/index2.htm>)

② Ottawa Senators

학생/ 청소년 요금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 True Form Health and Fitness

학생/ 청소년 요금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http://www.trueform.ca/Site/trueform_main.html)

4) 소비활동(Consumer activities)

(1) 캐나다 학생할인 카드 (Student Price Card)

학생할인카드란 캐나다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위한 할인카드로, 현재 캐나다 학생들 사이에서 폭 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카드이다. 525,000이 넘는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할인혜택은 캐나다 전국적인 체인을 가진 120여개 브랜드를 연계하고 있으며 전국에 10,000개가 넘는 음식점, 의류, 신발, 비디오, 음반, 약제사리, 호텔, 여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 피자헛, 버거킹, 타코벨, KFC, 베네통, 클럽모나코, 게스, 리바이스, 루츠, Aldo, Athlete's World, Bluenotes, Buffalo, Esprit, Transit, Xcetera, Jack Astor's, Sport Chek, FCUK, Second Cup, GNC, 등등)

구입비용은 캐나다 달러 8불에 세금을 더한 값이며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12개월간 사용가능한 카드이다. 5~30%의 할인을 받기 때문에 카드구입 비용(8불+세금) 보다 훨씬 이익이다. 구입하려면 온라인으로는 www.spccard.com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는 캐나다에서는 매년 9월초인 새학기에 교내 또는 교내서점, 시내 대형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한국에서는 출국하기 전에 유학원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가맹점안내수첩은 주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 구입 시 본인이 체류할 주를 말해야 한다. 가맹점 안내수첩의 내용만 다를 뿐 학생할인카드는 캐나다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캐나다 내 가맹점에서 구매 시 학생할인카드 또는 카드와 쿠폰을 동시에 제시하면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학생절약 할인카드 (Student Saver Card)

학생절약 할인카드란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에 의해 운영되어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할인카드이다. 토론토에서만도 500개가 넘고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각종 할인혜택이 제공되는데, 책, 의류, 음식, 오락 등의 구매 시에 학생들의 용돈을 절약하게 도와준다. 학생회원은 참여업체에 이

카드를 제시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10~35%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 학생 절약 할인카드는 캐나다 학생연맹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가을학기 초에 나누어 주는 회원 핸드북과 계획서 안에 들어 있다.

① 이/미용실

이/미용실의 경우 12세 이하의 아동요금은 있으나 청소년이나 학생요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머리길이에 따라 서비스요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Restaurants/retail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경우 장난감과 특별메뉴로 구성된 아동식(kid's meal)이 있으나 어린 아동을 위한 것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고급 식당의 경우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한 할인 서비스는 거의 없는 편이다. 전국적인 체인을 가진 식당들의 경우 학생할인카드(SPC)와 제휴하여 회원의 경우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③ 서점/문구점(Bookstores/stationary)

일반적으로 특별한 학생할인이나 청소년할인이 없다. 다만 대학 구내서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대학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구내서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④ 통신요금 Communication (휴대전화, 인터넷이용)

미국·캐나다의 경우에는 수·발신 모두 과금한다. 불필요한 전화를 골라 받아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신자이용번호서비스(CID)가 발전했다. 우리는 발신료만 받는 대신 기본료에서 수신요금을 보충한다. 캐나다의 가장 큰 이동통신회사의 하나인 Bell Sympatico의 경우 캐나다학생할인카드(SPC)를 사용하면 무선휴대전화와 인터넷에도 학생할인이 가능하다.

5) 교육/직업(Educational/vocational) 강좌

(1) 어학 학습

언어학습의 경우 특히 영어교육기관의 경우 학생할인이나 청소년할인의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다만 특정 학원의 경우 추가로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하여 수강료 할인 서비스가 있었다. 사설학원의 경우 특정한 경우에 홍보용으로 학생할인을 제시하기도 하나 거의 모든 수강생이 학생임을 고려할 때 혜택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2) 예술/음악/스포츠 강좌

어학 강좌와 마찬가지로 예술/음악/스포츠 강좌들도 일반적으로 청소년/학생할인이 거의 없다. 간혹 전국적인 홍보용 학생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마케팅을 위해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학원들은 그 분야의 협회나 기구들로부터 제공되는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http://www.vanarts.com/>)

(3)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일반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대상이 청소년이나 학생들이므로 학생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홍보나 마케팅의 이유로 어떤 직업학교나 학원에서 학생모집 시에 학생할인을 제시하기는 하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등록하는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컴퓨터 훈련/강좌(Computer training & instruction)

일반적으로 컴퓨터훈련/강좌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회사들에서 학생들에게 각종 할인이나 장학금,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다.

6) 시사점

캐나다의 경우 선진국이고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같이 청소년우대/할인에 대한 좋은 예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러 도시 중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속한 밴쿠버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 우대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편이다. 오히려 행정수도인 오타와의 경우, 청소년요금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복지제도 즉, 국가아동수당(National Child Benefit: NCB), 캐나다 아동세금수당(Canada Child Tax Benefit: CTB) 등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청소년 할인혜택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조사연구를 하면서 YMCA 관계자와의 면담을 한 결과, 외부견학 등의 각종 청소년활동 시에 청소년할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단체할인으로 매번 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활동에 제약이 됨을 호소하고 청소년우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선진국인 캐나다도 유럽만큼 청소년 우대제도가 발달되지는 않으나 캐나다 학생할인 카드(Student Price Card)의 경우 학생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학생인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다. 특히 학생절약 할인카드(Student Saver Card)의 경우 학생연맹에서 학생들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다.

<참고자료>

1. 토론토 버스요금

<그림 V-4> 토론토 버스요금

Effective April 1, 2006	CASH Single Fare Purchase	TICKETS & TOKENS	Transferable MONTHLY METROPASS	Transferable WEEKLY PASS	DAY PASS Detailed one-day fares on all regular TTC routes
ADULT	\$2.75	5: \$10.50 10: \$21.00	\$99.75 Month	\$30.00 /Week	\$8.50 FAMILY / GROUP USE
STUDENT SENIOR™	\$1.85	Tickets 5: \$ 7.00 10: \$14.00	\$83.75 Month	\$23.75 /W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ADULT AND ONE YOUTH (12-17) 1 YOUTH AND ONE YOUTH (12-17) 1 ADULT AND ONE SENIOR (65+) 1 YOUTH AND ONE SENIOR (65+) 1 YOUTH AND ONE YOUTH (12-17) 1 YOUTH AND ONE SENIOR (65+) 1 SENIOR (65+) AND ONE SENIOR (65+) 1 SENIOR (65+) AND ONE YOUTH (12-17) 1 SENIOR (65+) AND ONE SENIOR (65+)
CHILD™™	70¢	Tickets 10: \$ 4.70	Pass Cannot Be Transferred Until You Exit The TTC NO "PASS BACK" ALLOWED Penalty For Misuse Of The Transferable Pass		SINGLE USE - ONE ADULT 1 ADULT AND ONE YOUTH (12-17) 1 YOUTH AND ONE YOUTH (12-17) 1 ADULT AND ONE SENIOR (65+) 1 YOUTH AND ONE SENIOR (65+) 1 YOUTH AND ONE YOUTH (12-17) 1 YOUTH AND ONE SENIOR (65+) 1 SENIOR (65+) AND ONE SENIOR (65+) 1 SENIOR (65+) AND ONE YOUTH (12-17) 1 SENIOR (65+) AND ONE SENIOR (65+)

2. 오타와 버스요금

<표 V-4> 오타와 버스요금

Monthly Passes effective July 1, 2007		Cash & Ticket Fares	
Regular Adult	\$73.00	Bus tickets	 95¢ each or 10/\$9.50
Express Adult	\$90.00	Fare payment in cash and ticket combination must equal the cash fare. The face value of one ticket is 95¢ if used in combination with cash on the bus. The only bus tickets accepted on the bus are the yellow (2/\$1.85) or pink (\$0.95) OC Transpo tickets.	
Rural Express Adult	\$114.00	Child* (ages 6-11)	\$1.50 or 1
Regular Adult Annual*	\$788.40	Regular Adult	\$3.00 or 2
Express Adult Annual*	\$972.00	Express(green) Adult	\$4.00 or 3
Regular Student	\$59.75	Rural Express Adult	\$5.00 or 4

Express Student	\$70.00	O-Train ticket	\$2.25 ... available from the vending machine on the station platform.
Rural Express Student	\$91.00	* Children 5 and under ride free	
Regular Student Semester * includes \$6.25 for pass protection	\$221.50*	Exact fare please! Operators do not make change.	
Express Student Semester * includes \$7.00 for pass protection	\$259.00*		
Regular Student Annual	\$573.60		
Express Student Annual *	\$672.00		
Senior 65+	\$29.00		
Community Pass	\$29.00		
<p>Photo ID cards effective July 1, 2007 Adult & Senior \$7.25 Student \$5.25 All passes must be accompanied by an appropriate ID Card.</p>			
<p>*Annual Pass Protection Plan Protect your pass from loss or theft - available when you buy your pass. Adult annual \$23.00 Student annual..... \$23.00</p>			

4. 독일*

1) 정책방향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Bund)와 16개 주(州) 정부들(Länder)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청소년 우대정책은 먼저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찍부터 사회적으로 취약한 연령층으로 인식되어 왔다. 독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독일은 1922년부터 「제국청소년복지법」(Reichsjugendwohlfahrtgesetz)을 만들어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1961년에는 이름을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gesetz)으로 바꾸었고, 이 법은 독일 통일을 3개월 앞두고 1990년 6월에 지금의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으로 바뀌게 되었다. 법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독일에서는 청소년이 복지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인간의 생애기간 동안 청소년은 처음부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우대를 받는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¹⁾ 가장 최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청소년을 우대하는 각종 법안들이 들어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과 같은 위치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청소년을 우대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는 ‘연방교육지원법」(BAföG)²⁾과 「직업교육지원법」(BerBiFG)³⁾과 「근로지원법」(AFG)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연방정부 형태의 통치형태는 분권 정치의 형태라 많은 권한이 각 주 정부에게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의 각 주 자치정부는 청소년정책을

* 이 부분은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가 집필하였음.

1) 이러한 법들에 앞서 독일에서는 이미 1839년에 청소년의 근로보호에 관한 법령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독일이 1922년에 제정된 「제국청소년복지법」에서는 현재까지 독일 청소년정책 행정체계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관청(Jugendamt)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까지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BAföG: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3) BerBiFG: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4) AFG: Arbeitsförderungsgesetz

위의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제도 범위 안에서 주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자치적, 자율적으로 독립하여 서로 다르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청소년 우대정책에 관한 논의는 ‘우대’라는 개념이 상대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때에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청소년’을 우대하는 제도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 독일의 각 주가 상대적으로 서로 다르게 청소년들을 우대하는 제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더 좁은 의미로는 우대 대상인 전체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특정한 청소년층이나 동일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관한 선별된 우대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독일의 청소년 우대정책에 관한 내용들은 먼저 연방정부의 법에 근거한 대표적인 청소년 우대제도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주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색 있는 청소년 우대제도를 청소년 할인카드 제도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가 된다. 끝으로 유럽 전역에서 40개국이 넘게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청소년카드(EURO<26)가 독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내용들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독일의 청소년 우대정책 현황

(1) 독일 중앙정부 시행 청소년 우대정책 사례

① 학업지원을 위한 청소년 우대제도

‘연방교육지원법’(BAföG)은 독일이 1983년부터 시행한 법으로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학생청소년들을 우대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고등교육과 관계된 학업이 30세 미만까지 지원되고, 중등교육 과정의 10학년부터 학생에게 해당된다. 부모 집에 거주하지 않는 실업고 학생들과 최소 2년 이상의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야간 고교나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다.

지원 액수는 교육의 종류와 거주지 그리고 교육장소가 구(舊)서독과 구동독에 소재하는 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전액지원을 받는지 혹은 부분지원을 받는지는 자신이나 부모 혹은 배우자의 수입이나 재산 정도에 따

라 달려있다. 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게 되고,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대학생들은 지원액의 반은 보조금 형태로, 반은 무이자 대출금의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된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독일학생들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시 원칙적으로 최장 1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최장 5년 동안의 BAföG 지원이 종료된 후부터 시작되게 된다. 수입이 없거나 적어서 상황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상환의 의무가 없다. 일찍 상환하거나, 우수한 학업성적을 증명하거나, 일찍 학업을 마치는 대학생들에게는 상환금을 감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연방의 많은 주(州) 정부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액수를 교육비로 지원하지만 BAföG의 지원액보다는 낮다. 여러 대상들에게 다르게 지원되는 액수는 아래와 같다.

- 졸업이 전제가 되지 않는 직업교육 학생들은 매달 192유로를 받고, 야간고등학교나 고등실업고 등의 졸업이 전제가 되는 직업교육 관련 학생들은 매달 348유로를 받는다.
- 부모와 살지 않고 졸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계 고등학교나 직업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348유로를, 졸업을 전제로 야간고등학교나 고등실업고 등의 졸업이 전제가 되는 직업교육 관련 학생들은 매달 417유로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졸업을 전제로 한 전문학교와 야간인문고, 대학진학준비고 학생들은 310유로를, 고등전문대와 대학생은 333유로를 기본으로 받고,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들은 44유로를,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들은 133유로를 추가로 받게 된다. 보험료는 47유로에 해당된다.

②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 우대제도⁵⁾

이 제도는 독일이 1969년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시행하여온 ‘근로지원법’ (AFG; Arbeitsförderungsgesetz)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위에서 소개한 ‘연방교육지원법’ 이나 이 이외의 다른 교육 관련법에 의하여 지원

5) 독일의 근로지원법인 제40조에 해당하는 내용임.

받지 못하는 비학생청소년을 대상에 포함하는 일종의 우대제도이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가계에서 벗어나 따로 살고 있는 직업교육대상자들이고, 이 이외에도 만 19세 미만이거나 결혼한 경험이 없는 자로서 직업교육 장소로부터 부모의 거주지가 도달하기 어려운 대상자들도 이 제도의 혜택 대상이 되고 있다.

직업교육을 위한 보조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보조금이나 무이자 상환금으로 보장된다. 보조금은 연방관청의 규정에 따라 생활비와 직업교육비 혹은 직업준비교육비에 지급되고 있다.

③ 자발적 사회봉사자 우대제도

이 자발적 사회봉사자 우대제도는 일찍이 1964년부터 시행되어온 법 제도로써 「자발적 사회봉사의 해 지원법」⁶⁾에 근거하고 있다. 자발적 사회봉사는 1년 동안 이루어지고 하루 종일 보조역할이나, 교육역할 또는 가정 경제적 역할을 맡는 도우미로서 수행되어 진다. 이러한 사회봉사는 원래 사회 경험과 사회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5일 이상의 사회봉사 관련 교육적 세미나가 시작단계와 중간 단계, 그리고 종결단계에 의무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1년 동안 최소 25일이 넘어야 한다.

봉사활동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동·청소년지원 또는 보건지원을 위한 일들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병원, 양로원, 보육원, 아동보호소, 청소년센터, 청소년폭력예방치료 기관, 휴양소, 재활복지 기관, 가정지원들이 봉사활동의 장소와 내용에 속한다. 참여자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⁷⁾ 27세까지이고 봉사기간은 12개월 동안 봉사가 수행된다. 이 중 6개월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사회봉사는 예외적인 경우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적합한 일이라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회봉사는 일회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다.

6) Gesetz zur Förderung eines freiwilligen sozialen Jahres

7) 독일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연령이 19세에 해당한다.

사회봉사 참여자들에게는 숙소와 의복, 소정의 용돈이 주어지고 연금보험에도 가입되게 하고 있다. 만일 숙소 등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보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사회봉사 기관이 지부가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의 봉사도 가능하다. 사회봉사 기관은 봉사를 시작할 때에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의무 봉사기간, 봉사내용과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봉사를 마친 후에는 수료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러한 활동은 교육기간으로 간주되어 소정의 용돈외의 임금은 지불되지 않고, 실습이나 직업교육 혹은 군복무 대체나 사회봉사 성격은 아니다. 이 제도가 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여자들이 대학교 입학 시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점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④ 자발적 환경보호 실습자 우대제도

독일의 자발적 환경보호 실습자 우대제도는 위의 자발적 사회봉사자 우대제도와 그 제도적 취지와 제반 내용이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단지 참여자가 수행하는 일의 내용이 사회봉사가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 우대제도는 1993년부터 시행이 되어온 「자발적 환경의 해 지원법」⁸⁾에 근거하고 있는데, 자연보호나 환경보호 관련 영역에서의 장소나 기관에서 실습차원의 교육을 수행하게 되는 교육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실습 관련 제반 내용은 위의 자발적 사회봉사자에 대한 우대제도와 같으나 참가자의 연령이 한 살 낮아만 17세~27세 사이의 연령이 참여할 수 있다.

실습을 제공하는 참여기관들은 실습 후에도 참여자들의 허락 하에 실습 관련 데이터들을 실습기간 후에도 5년 동안 보유하고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도 법에는 구속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발적 사회봉사의 해’와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Gesetz zur Förderung eines freiwilligen ökologischen Jahres

(2) 독일 주(州) 정부 시행 청소년 우대정책 사례

① 뮌헨(München) 시 정부의 교통우대를 위한 녹색 청소년카드

독일의 연방 주(州) 정부 바이에른(Bayern)의 으뜸 도시인 뮌헨 시는 청소년들의 교통 우대를 위하여 녹색 청소년카드(Grüne Jugendkar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녹색 청소년카드 제도는 학생들을 위한 교통요금 할인체계에서 추가로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원래 학생들을 위한 교통요금 우대체계는 두 종류로 하나는(Ausbildungstarif I)만 15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이고, 다른 하나의(Ausbildungstarif II) 체계에는 15세 이상의 학생, 대학생, 실습생(증명가능자), 자원봉사자, 공무원인턴, 국가지원의 직업교육생과 환경교육과 사회교육 참여자가 해당된다.

위의 교통요금 할인체계에 해당되는 대상들은 먼저 각자 뮌헨시교통국(MVG; Münchner Verkehrsgesellschaft mbH)에서 발행해 주는 고객카드 발급에 필요한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인될 수 있는 증명서와 뮌헨 시 주민등록 증명서와 사진이 필요하다. 이 카드는 거주지와 학교(소속기관)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말과 방학에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에는 자신이 확대 사용할 수 있는 구간(전 구간 사용 포함)과 주 단위나 월 단위의 선택에 따라 해당되는 각 요금표시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다. 이 카드로는 지하철과 버스, 전철, 전동차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뮌헨 시의 녹색 청소년카드 제도는 위의 학생 교통요금 할인체계에서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우대제도이다. 이 녹색 청소년카드는 1개월 동안 교통요금 할인혜택의 범위를 자신의 거주지와 학교(소속기관) 안팎과 전 구간 모두에 걸쳐 확대 적용시키는 제도이다.

이 카드는 이미 요금표시 딱지가 있는 고객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이 카드는 고객카드와 동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아래의 표는 2007년 4월 1일 현재의 녹색 청소년카드 요금표이다.

<녹색 청소년카드 요금>

요금체계 \ 해당범위	내부 지역	외부 지역	전 구간
요금체계 I (Ausbildungstarif I)	6,50 Euro	6,50 Euro	13,00 Euro
요금체계 II (Ausbildungstarif II)	11,00 Euro	11,00 Euro	22,00 Euro

② 청소년고객을 위한 메르키쉬-오버란트(Märkisch-Oderland) 은행할인 카드



독일의 한 기초자치단체인 메르키쉬-오버란트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할인혜택카드를 위하여 도시 은행 슈파르카세(Sparkasse)와 약 70개의 사업체들이 참여하였다.

이 할인카드는 슈파르카세 은행이 스트라우스베르그(Strausberg) 청소년지점 S-Planet을 개소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회원카드는 이 카드에 가입된 많은 업체들로부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 이 카드에 소속된 업체들은 메르키쉬-오버란트 전역을 2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매일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소속된 사업체들은 작은 간이음식점부터 대형 자동차판매점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면서 청소년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사우나, 태양욕 솔라리움, 이발소, 미장원, 가구업체 등의 다양한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약 4,000명의 청소년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회원카드는 메르키쉬-오버란트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슈파르카세 은행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카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은 27세 미만으로 메르키쉬-오버란트 슈파르카세 은행 지점들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www.sparkasse-mol.de에서 볼 수 있다.

③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 Rhein-Westfalen) 주(州)의 “Florikarte”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할인카드인



“Florikarte” 를 내놓았다. 이 카드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관련 책 구입이나 아이스크림 구매, 볼링장 이용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먼저 청소년소방대 95명에게 이 카드가 부여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모든 청소년소방대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2007년에는 모든 청소년지원관련 기관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 카드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모두 대기업이 아니라 소규모의 상점들이 권장되고 있다. 주 정부는 소규모의 상점들과 청소년소방대들과의 강한 결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인혜택에 따라 청소년들이 구름같이 한 상점에 모일 수도 있도록 할인혜택은 참여 상점이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상점들은 1년에 최소 75유로를 기부하게 되어 있고 자유롭게 참여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참여 기부금의 1/3은 주 청소년소방대의 아프리카 청소년을 돕는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기부되고 있다. 참여하는 전제조건은 기부금의 1/3이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기부된다는 것과 상점의 제공내용물이 청소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술과 담배는 광고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상점들은 도시별로 웹사이트에 상점 로고와 제공내용을 광고하게 된다. 참여하는 각 도시에서는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상점들에 대한 웹사이트 광고에 자신의 도시에서 제공되는 내용들을 웹사이트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카드의 성공여부는 스폰서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인데 현재에는 Hilden Ratingen Velbert 은행과 익명의 큰 액수의 기부자가 나타나 카드사용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Rehmann가구점, Videotaxi, Adler약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 ④ 하노버(Hannover)시에 거주 대학생들을 위한 보너스카드 “Hausmarke”
독일의 대도시 중 하나인 하노버 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Hausmarke” 라는 일종의 보너스카드인 할인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다양한 할인혜택 영역에서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된다. 이 Hausmarke 할인혜택 카드에 가맹된 업체 수는 2007년 3월 현재, 쇼핑과 각종 서비스 영역에서 30개, 식당과 디스코텍 등에 29개, 피트니스와 이동수단 영역에 25개, 문화와 예술 영역에 25개 등 총 109개 업체로 이들은 이 카드를 소지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이 카드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아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 카드를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은 하노버 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등록된 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이다. 이 자격을 갖춘 대학생은 누구나 즉시 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Hausmarke카드는 하노버 시와 하노버 상공회, 그리고 경제와 문화영역 등에서 100개가 넘는 스폰서들이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참여 스폰서들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hannover-hausmarke.de 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칼스루에(Karlsruhe)시(市) 아동청소년단체 회원증의 할인카드겸용 사례



독일의 한 중소 도시인 칼스루에(Karlsruhe)의 아동청소년단체인 "KaJuKi"는 칼스루에 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스포츠활동을 제공하거나, 도시의 통합과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예방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을 newsletter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복지기관이다.

이 기관의 회원증은 칼스루에 시에 있는 다양한 상점들과 식당들, 그리고 Schiller커피숍, Fischer제지사, Casata아이스크림숍, 대학소재복사집, X-tasy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도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⑥ 독일의 유럽청소년카드(EURO <26)

1993년 유럽청소년카드협회(European Youth Card Association)가 창립된 이후 독일도 회원국으로서 많은 청소년들이 유럽청소년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카드에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독일 내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14세~26세 미만 연령의 카드를 소지한 청소년들에게 유럽의 40개국이 넘는 곳에서 200,000 가지가 넘는 다양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할인혜택은 교통, 여행, 문화, 여가, 소통,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있게 되는데 현재 4,2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독일의 EURO<26 카드 회원국 가입은 늦어서 유럽청소년카드협회의 주도 하에 스위스 EURO<26과의 연계를 통해 2006년 10월부터 이루어졌다. 회원은 이 이외에도 특별한 파트너인 Lieder Galerie, O2, AXA Assistance, Apple, Bye-Bye, CityNightLine, Europcar 등의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회원들은 사이버 커뮤니티인 'come2gether.net'에서 스위스 등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다. 또한, 항시 newsletter를 발행하여 새로운 할인혜택을 추가로 소개하고 있다. 아래에 소개되는 할인혜택 사례는 그 중 일부이다.

<표 V-5> 독일의 유럽청소년카드 참여업체와 할인내용 사례

참여업체	할인혜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rlin과 Hamburg의 'Lieder Galerie'는 카드회원에게 클래식 음악 공연을 30% 할인혜택을 제공 · 또는, 선택적으로 2매 입장권 구입 시 클래식 CD 1장을 제공하는데 청중은 100명 이내로 제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A는 전 세계에 걸쳐 각종 의료와 여행 중의 비상사태에서 빠르고 간편한 지원을 제공 · 보험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외국에서 의료치료를 받게 되면 무이자로 1개월 급전을 3,200 유로까지 대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회사의 다양한 교육 camp 프로그램 참여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렌트카 Europcar 18% 할인(1주일 빌리면 더욱 낮아짐) · 승용차는 하루에 30유로 할인이 되고 화물차는 하루에 65유로가 절약되는 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 회사 O2 와 제휴하여 대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할인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광이나, 외국여행, 휴가여행, 주말여행, 항공이용 등 여행관련 비용에서 회원은 4%의 할인혜택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여러 여행사 및 숙박업체와 제휴하여 숙박 시 할인혜택을 20%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외국유학과 언어실습, 교환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의 중개 시 33 유로 할인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개가 넘는 영화와 각종 쇼 및 프로그램 체험의 "독일영화공원" 입장료 20% 할인혜택 · 영화 이외에 각종 수중 쇼, 제트스키, 뱃놀이, 낭만의 부두 등의 놀이 공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D!'s Dance Club'은 160개의 댄스교실과 피트니스 studio로 회원들에게 3개월 코스 교육 후 10% 할인 제공

지금까지 서술한 독일의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카드 사례 이외에도 중소도시인 바덴바덴(Baden-Baden)에서는 바덴바덴 필하모니의 연주회에 25세까지의 학생청소년들과 30세까지의 대학생들에게 5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등 독일에는 16개 주 자치정부들에서 다양한 청소년 우대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위의 독일의 청소년 우대정책을 살펴보면 오랜 역사를 두고 국가가 제정한 법률 조항에서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영역에서도 상호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져 활발한 청소년 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일 정부는 청소년을 확실한 우대의 대상으로 즉, 우대를 통한 지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대는 단순한 우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을 보장해주고 있어 장차 건강한 국가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이고 실속 있는 국가 우대정책이자 복지제도인 것이다. 각 지방정부에서도 큰 민간 기업들이나 자치단체의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각종 중소기업업체 및 개인사업자들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카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과 자영업체, 청소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서로 Win-Win 제도에 참여하여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우대정책은 아직도 일천한 상황에 머물러 있어 거의 시작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 우대정책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에는 ‘청소년의 우대’에 관한 조항이 있어 청소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이나, 수송시설 및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 등을 이용할 시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제7조에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의 서술에서도 이미 ‘우대’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범주의 설정이 단순하지 않음을 밝혔다. 전체 국민 중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자이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개체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차별하여 ‘우대’를 받을 수뿐이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때에 단지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의 우대 내용만이 국가의 청소년에 대한 우대정책이 아니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부의 주관부서로 시행하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과 타 정부 부처의 청소년관련법들도 넓은 의미로 청소년을 우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사실이 법이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예우 등의 법제도로부터 우대를 받아 온 터이라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우대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 어느 법에서도 청소년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명문화한 법조문은 없었다. 다만 이전부터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조항에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은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법이 정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개념에 의하여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최초의 명문화된 우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6조와 제7조도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 구속력이 미약하고, 우대의 범위도 시설의 이용료나 학생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주기 위한 ‘청소년증’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우대제도의 내용이 너무 소극적이고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의 취지가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각종 시설 이용료와 교통비라도 우대를 주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현재 정하는 우대제도가 ‘하여야 한다’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의 조항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속히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대의 내용도 미약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며, 생산적이지도 못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에 걸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유럽의 청소년카드를 벤치마킹하여 청소년카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실패하였다. 실패의 원인은 청소년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먼저 정부의 법제도 개선적인 노력과 예산의 지원, 담당 부처와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 관계 부처들과의 연계와 협력 등이 부족했다고 성찰할 수 있다. 또한, 과학적인 선행연구와 시범사업, 그리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체나 개인사업자, 수요자인 청소년단체, 대학생단체 등이 함께 컨소시엄(consortium)을 이루어야 청소년카드 도입이 가능한 일이다. 현재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들 중 일부가 단발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청소년카드를 만들어 소비만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선진국의 청소년 우대정책을 살펴보고 하루빨리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 우대의 외연을 확대하는 다각도의 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공익적인 청소년카드의 도입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시범사업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서 말하고 있는 ‘청소년증’을 유럽의 청소년카드제도와 연계하여 응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청소년 우대정책으로서의 청소년카드가 도입될 때에 독일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무분별한 우대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정부 차원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프랑스*

1) 정책방향

(1) 청소년 우대정책의 정의

청소년 우대정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프랑스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조사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프랑스 사례 조사의 경우 청소년 우대정책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에 특별히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거나 청소년들이 접근할 때 성인들에게 주지 않는 이득을 주는 정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 중에서 특정 집단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도 해당 청소년 집단을 다른 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우대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우대’란 앞에서 정의한 의미보다는 해당 청소년 집단을 우선적으로 정책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특정 청소년 집단에 대한 우대정책이라기 보다 그 집단을 위한 지원정책¹⁾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청소년 우대정책은 청소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책이다.

(2) 청소년 우대정책의 사회적 배경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학생 등 미래 세대의 육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나라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공교육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도 시민은 국가가 키워야 한다는 철학적 신념이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며, 오늘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도 자녀양육 부담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분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우대정책도 동일한 이념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즉, ‘청소년 육성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 부분은 신선미 박사(여성정책연구원)가 집필하였음.

1) 프랑스는 25세 미만 청소년의 어려운 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지원기금(Fonds d'aide aux Jeunes)”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은 매우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주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최소 생계 유지나 스스로 독립에 필요한 첫걸음을 지원한다.

프랑스 청소년들은 대략 18세 이후부터 부모로부터 거주지를 독립하여 생활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며,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수십년간 프랑스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고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실업률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청소년 우대정책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야 하는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도움을 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 밖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도 청소년 우대정책의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고, 정부의 교육정책 및 청소년 고용정책 등에 청소년들의 여론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부부처가 발표한 새 정책이 청소년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정도로 프랑스 청소년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 한 예로 2006년에 프랑스 노동부가 청년층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했던 “최초 고용 계약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반적인 정규직 고용계약에서 수습기간²⁾은 1~3개월인데 비하여 최초 고용 계약제의 수습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정규직 취업을 촉진시킬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을 받고 폐지되었다.

(3) 시행주체별 청소년 우대정책 사례

프랑스의 청소년 우대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소년카드 제도라고

2) 우리나라에서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조정기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기간 동안 근로자와 고용주는 조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양자가 서로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가를 탐색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청소년카드제도는 한 때 정부부처(청소년체육부)가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관련기관, 민간기업, 상인들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카드의 명칭과 혜택의 내용이 상이하다.

그 밖에도 국립 박물관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역사유적지 입장료 할인제도, 파리시가 관리하는 박물관 입장료 면제제도, 공기기업인 SNCF(프랑스 국철)의 청소년 요금 할인제도, 민간 기업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우대제도 등이 있다.

프랑스의 국립박물관(34개소)과 국가역사유적지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요금을 할인해 준다. 국가역사유적지에는 개선문, 노트담성당, 팡테옹 등이 있다.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입장료를 면제해 주지만 그 이상 연령의 청소년에게 요금 할인 제도가 없다.

SNCF(프랑스 국철)은 여러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열차 요금을 할인해 준다. 정기적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않지만 일 년에 일정 횟수 이상 열차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Carte 12~25(12~25세 청소년을 위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카드는 49유로에 판매되며 카드 소지자에게 25-50%의 요금을 할인해 준다. 이 카드를 통해 연간 49유로 이상 할인을 받을 만큼 열차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이 카드는 또한 United Airlines과 호텔 체인 Accor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유로스타도 조건에 따라 최대 2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열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할인제도로는 12-25세 청소년을 위한 할인티켓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열차 이용객이 적은 기간에 청소년들만 사용할 수 있는 25% 할인 티켓을 판매한다. 그 밖에 정기적으로 국철(SNCF)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할인요금제도가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은 21세 미만까지, 대학생은 26세 미만까지, 직업훈련생은 23세 미만까지 적용되며, 그 금액과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일드프랑스지역(우리나라의 서

올과 수도권에 해당됨)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할인제도로는 열차, 버스, 지하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Imagine' R 카드제도가 있다. 이제도는 SNCF와 RATP(파리지역의 버스, 전철, 고속전철)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국철 할인제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자녀로 18세 미만인 청소년들에게 열차 요금을 30-70% 할인해 준다. 해당 가정의 가족원들은 개별적으로 카드를 소지하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여행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우대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소년 소비자가 많은 이동통신사들이 청소년 우대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Bouygues 텔레콤도 그 중 하나이다. 자동차보험회사인 MAAF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여성 청소년에게 보험금을 할인해준다. 할인되는 금액은 연령, 운전경력, 차종, 용도, 차고지, 선택사항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³⁾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처음 받고 Peugeot 206(차고지 파리)을 구입한 한 여성 청소년이 선택사항을 최대로 할 경우 1,540유로의 정상 보험료 대신 813유로를 낸다.

이상에서 조사한 시행주체별 청소년 우대제도 현황은 <표 V-6>과 같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우대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카드제도와 프랑스 국철(SNCF)과 파리지역대중교통공단(RATP)이 함께 운영하는 Imagine'R 카드 제도이다. 외국의 정책이나 제도로부터 시사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과 운영체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카드 제도와 Imagine'R 카드 제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우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3) http://www.maaf.fr/web/MaafAuto.nsf/HEA_id/MAAR-6KGCV3?Open

<표 V-6> 프랑스 청소년 우대정책 사례

시행주체	해당기관	주요내용
중앙부처	국립박물관(34개) 및 역사유적지 (개선문, 노트담성당 등)	· 18세 미만 무료입장 · 18세 이상 25세 이하 요금할인
지방자치단체	일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 청소년 카드제도 (다양한 할인, 무료 쿠폰, 청소년 정보 제공)
	파리시박물관(15개)	· 14세 미만 무료입장
기업체	SNCF(프랑스 국철)	· 12~25세 청소년을 위한 할인(25~50%)카드 발급 · 12~25세 청소년을 위한 할인티켓 제도 · 학생 정기권 제도(일드 프랑스지역 이외) ·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요금제도
	RATP & SNCF	· Imagine'R 카드제도(일드 프랑스지역의 버스, 전철, 경전철, 고속전철, 국철 사용 가능)
	Eurolines (유럽 주요 도시간 버스)	· 26세 이하 청소년과 학생에 대한 할인 제공
	Bouygues Télécom	· 청소년을 위한 정액요금제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제한)
	MAAF(자동차보험)	· 여성 청소년 보험료 할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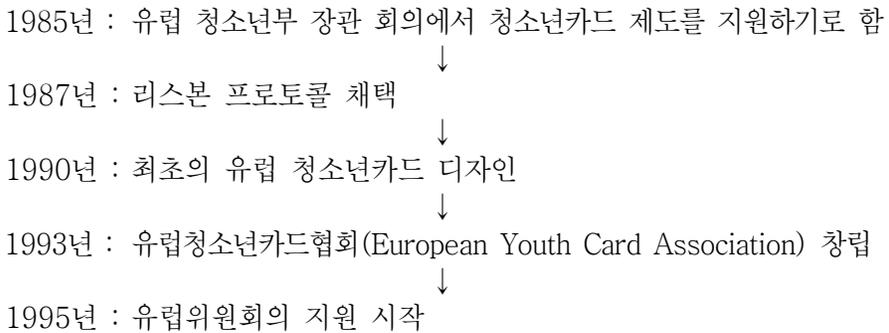
2) 청소년카드 제도

(1) 역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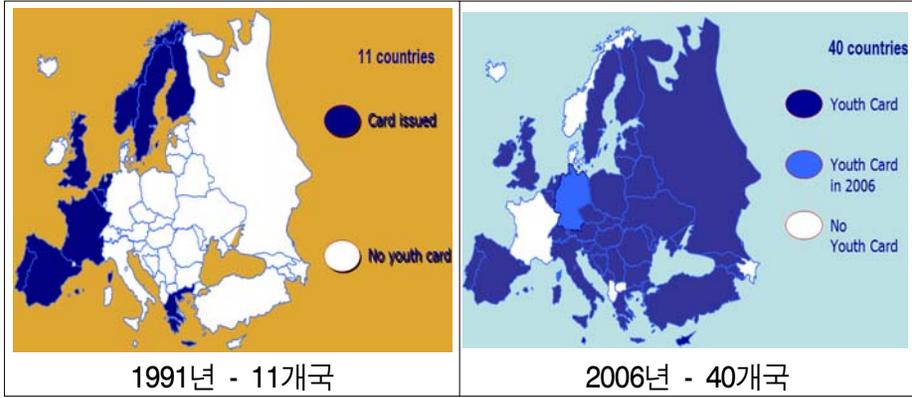
청소년카드 제도는 청소년을 위한 할인 서비스, 무료쿠폰, 유익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청소년 혹은 학생 할인제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할인’ 그 자체가 프랑스의 독특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관계기관과 사업체들이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청소년카드는 1981년도에 프랑스 서남부에 위치한 아키텐느 지방의 청소년정보센터에서 처음으로 고안했다(신선미, 1996). 이 카드는 아키텐느 지방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카드로, 학생증과 같이 신분증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1985년 국제청소년의 해를 맞이하여 프랑스 청소년체육부가 청소년카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했고, 1989년에 5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늘어나는 가입자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주요 협력회사의 일부가 독립적인 할인카드 제도를 만들어 탈퇴하였다. 이에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청소년카드에 IC칩을 탑재하여 회원관리와 서비스를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안착에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초부터 유럽 청소년카드 제도가 수립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초기 단계에 주요 회원국으로 활약하였으나 현재에는 유럽 청소년카드와 관련된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그림 V-5>. 참고로 유럽청소년카드협회(EYCA)에 따르면 유럽청소년카드가 도입되기까지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⁴⁾.



4) www.euro26.org



자료 : 유럽청소년카드협회 인터넷홈페이지

<그림 V-5> 유럽 청소년카드 발급 국가

(2) 청소년카드 사례

현재 청소년카드 제도는 1980년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수집한 사례는 <표 V-7>에 제시된 7가지이다. 사례마다 청소년카드의 명칭, 적용지역의 범위, 담당기관, 대상 청소년의 연령,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모두 다르다. 각 사례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V-7>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운영 청소년카드 사례

지역명	적용범위	인구수	청소년카드 명칭
Alsace	Région	162만명	Carte VitaCulture
Franche-Comté	Région	111만명	Carte Avantages culturels
Rhône-Alpes	Région	535만명	Carte M'ra
Essonne	Département	108만명	Carte jeune 91
Braconne & Charente	Communes 연합	1만3천명	Carte passe jeunes
Nancy	Commune	10만명	Carte Nancy culture
Manosque	Commune	2만명	Carte TAG

주) 프랑스 행정구역은 Région, Département, Commune으로 구분된다. 즉, Région은 2개 이상의 Département으로 구성되고, Département은 여러 개의 Commune으로 구성된다. Commune은 여러 마을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도시가 Commune이 되기도 한다. 파리는 하나의 Département이다.

① 청소년카드의 명칭

<표 V-7>에 제시한 청소년카드의 명칭들은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체로 “청소년카드” 보다는 문화카드, 지역사랑카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카드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VitaCulture”는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의미를 가진 “vital”과 문화란 뜻의 “culture”를 합한 것으로 “Carte VitaCulture”의 의미는 문화생활에 필수적인 카드라고 해석할 수 있다. “Carte Avantages culturels”은 직역하자면 문화적 이익을 도모하는 카드라는 뜻이다. Carte M'ra에서 M'ra는 무의미 철자이기는 하지만 프랑스어로 “사랑할 거야”라는 의미를 가진 “aimera”와 거의 같은 소리를 가진다. 이 카드를 소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www.carte-mra.fr)는 청소년들이 이 카드를 가지면 Rhône-Alpes 지방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어서 카드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Carte jeune 91은 직역하자면 “91번 département 청소년 카드”라는 뜻이다. 프랑스의 département 들은 고유의 두자리 숫자로 표시되는데 Essonne의 경우 그 숫자가 91인 것이다. 이 숫자는 해당 지역 우편번호의 첫 번째 두 자리로도 사용된다. Carte passe jeunes는 “청소년 패스카드”라는 뜻이다. Carte Nancy culture는 “낭시 문화카드”라는 뜻인데, 낭시(Nancy)는 시 이름이다. 마지막으로 Carte TAG(Tout à gagner)는 직역하자면 “모든 것을 얻는 카드”라는 뜻이다.

참고로 청소년카드의 여러 가지 모양은 <그림 V-6>와 같다. M'ra 카드에는 IC칩이 달려있고 나머지 카드에는 없다.



<그림 V-6> 청소년카드의 디자인

② 지역적 적용범위

청소년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Région에서부터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Rhône-Alpes 지방의 “청소년 패스카드”는 그 지방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지방의 인구 수는 약 535만명이다⁵⁾. Alsace와 Franche-Compt 지방의 청소년카드도 해당 지방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지방의 인구수는 각각 162만, 111만명이다. Essonne은 Département이기는 하지만 파리 근교지역으로 인구가 108만명이나 된다. Nancy시는 Lorraine지방의 département인

5) 여기에 소개된 청소년카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정보는 Quid라고 하는 지역 정보 전문 인터넷사이트(www.quid.fr)에서 검색하였다.

Meurthe-et-Moselle에 속해있는 하나의 Commune이지만 인구가 10만인 꽤 큰 도시이다. 인구가 적은 Commune 수준의 청소년카드도 있다. Braconne & Charente은 하나의 departement은 아니지만 여러 commune들의 연합으로 Poitou-Charentes라는 région에 속해 있다. Manosque는 인구 2만인 commune으로 프랑스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③ 카드 가입대상과 가입비

청소년카드 가입대상 청소년의 연령은 대체로 중·고교생에서 25세 미만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소 연령은 대략 15~16세이나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Franche-Comté 지방은 심지어 세 살 아동에게도 Carte Avantages culturels를 발급해 준다고 홍보한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소비생활이나 문화, 스포츠, 오락 활동을 부모와 함께하기 때문에 청소년카드의 필요성이 낮고, 중학교 이상 특히 고등학생 정도가 되어야 독립적인 소비생활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카드 가입이 가능한 최고 연령은 대략 25세 미만인데, 프랑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연령을 일반적으로 26세 미만으로 간주한다. <표 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청소년카드 사례 중에서 Franche-Comté 지방의 청소년카드만이 학생인 경우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청소년카드는 모두 26세 미만의 청소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표 V-8> 프랑스 청소년카드 가입대상 청소년의 연령층

지역명	청소년카드 명칭	가입대상	연회비
Alsace	Carte VitaCulture	· 15~25세 청소년 · 혹은 Alsace지방 대학생	· 무료
Franche-Compté	Carte Avantages culturels	· 26세 미만 청소년 · 30세 미만의 학생 · 최소 연령 제한 없음	· 연 7유로
Rhône-Alpes	Carte Mra	· 15~25세 청소년	· 무료(재발급시 5유로)
Essonne	Carte jeune 91	· 16~19세 청소년	· 연 10유로
Braconne & Charente	Carte passe jeunes	· 20세 미만 청소년 · 25세 미만의 실업자, 학생	· 무료
Nancy	Carte Nancy culture	· 10~25세 청소년	· 연 5유로(Nancy 거주) · 연 10유로(시외 거주)
Manosque	Carte TAG	· 13~26세 청소년	· 6.10유로(최초 1회)

청소년카드 가입비는 무료인 곳도 있고 최초 가입비 혹은 연회비를 받는 곳도 있다. 연회비가 있는 경우 5~10유로 정도이다. Rhône-Alpes 지방에서는 분실, 도난, 부주의 등으로 재발급을 할 경우에만 5유로를 받는다. 비용 지급과 혜택의 범위 간에는 뚜렷한 관련이 없다. 즉, 비용을 부담한다고 혜택의 범위가 넓은 것은 아니다.

④ 청소년카드 서비스 내용

청소년카드가 가입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크게 금전적 혜택과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금전적 혜택은 각종 요금 할인, 특별 우대 요금제 적용, 할인 쿠폰 제공, 소액의 지원금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제공된다.

첫째, 청소년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약정된 비율만큼 할인해 주는 방식이 있다. 각 가맹점은 청소년카드 관리기관과 협정을 맺고 카드소지자들에

게 일정 비율의 할인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카드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청소년카드 소지자에게 특별 우대 요금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영화 관람 요금은 시간대나 영화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카드 소지자에게는 일률적으로 4유로를 받는다. 이 경우 4유로는 일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지만 청소년카드가 없어도 같은 요금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비싼 영화든 싼 영화든 모두 4유로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카드소지자는 제공된 할인 쿠폰의 수만큼의 횟수에 한하여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Essonne 지역의 Carte jeune 91은 150유로 상당의 수표 16장을 제공하며, Rhône-Alpes 지방의 Carte M'ra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류 구입비로 연간 70 유로 혹은 100유로를 지급한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바깥로레아시 형 준비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V-9> 프랑스 청소년카드 서비스 내용

지역명	청소년카드 명칭	서비스 내용
Alsace	Carte VitaCulture	- 지역 내 모든 문화시설, 축제에 특별 요금제도 (공연 1좌석 당 5.5유로, 영화 4유로)
Franche-Compté	Carte Avantages culturels	- 도서 구입 시 사용하는 6유로짜리 쿠폰 제공 - 문화, 여가, 생활용품이나 서비스 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수표책 제공(5~50% 할인) - Franche-Compté지방 내의 철도 1일 자유 이용권 1매 10 유로에 제공, 2일 자유 이용권 1매 15유로에 제공

지역명	청소년카드 명칭	서비스 내용
Rhône-Alpes	Carte M'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2학년 진학생들(원격교육 등록생 포함)에게 교과서류 구입비 100 유로 지원 - 기타 고등학생, 직업학교 학생에서 교과서류 구입비 70유로 지원 - 모든 가입자에게 공연, 콘서트, 축제, 영화, 연극 관람 30유로 지원 - 모든 가입자에게 영화관람을 위한 무료 쿠폰 6장 제공 - 모든 가입자에게 도서구입 시 8유로 할인 - 모든 가입자에게 박물관, 역사유적지, 예술센터 등 무료 입장권 1매 - 스포츠클럽 등록 시 30유로 할인
Essonne	Carte jeune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개 가맹점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수표 16장 (150유로) 제공 - 교육(자동차, 오토바이 면허, 운전연습, 청소년활동지도자 자격) - 문화·스포츠활동(콘서트, 연극, 영화, 스포츠클럽, 수영장, 서점 등) 참여 - 교통카드 구입 시 일정액의 수표 사용가능 (Carte Imagine' R, Passe Navigo Intégrale) - 국내외 여행 : 청소년을 위한 열차표, 항공권 구입
Braconne & Charente	Carte passe jeu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활동에 특별 대우 (비행, 행글라이더, 마술, 카트, 미니모터, 서커스, 배드민턴, 테니스, 스킨)
Nancy	Carte Nancy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축제조직에서 할인요금 제공 (재즈 공연단, 클래식 콘서트, 낭시대학 예술단, Aye Aye축제, 4 Lires 12 연극단, Passage축제) - 5개 박물관 1개 식물원에서 할인요금 - 대형 공연장 할인 요금 (오페라하우스, 연극센터, 발레센터 등) - 미디어센터 연회비 할인, 영화관 입장료 할인
Manosque	Carte T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5~50% 할인 서비스 (미술관, 운전면허학원, 화장품, 카센터, 액세서리, 카세트비디오 대여점, 신발, 영화관, 미용실, 자전거, 유기농식료품, 비디오게임 대여, 꽃집 등)

⑤ 운영기관 및 사업방식

청소년카드를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자료는 인터넷검색으로 구할 수 없었다. 청소년카드의 인터넷사이트 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Carte VitaCulture

Carte VitaCulture를 운영하는 기관은 Agence culturelle d'Alsace인데 이 기관은 Alsace 지방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지역 내 자치단체,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자문, 기술적·예술적 지원,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Carte VitaCulture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특별 요금 제도를 실시하는 문화시설은 Alsace지역 전체에 걸쳐 있으며, 카드 발급 업무도 지역 전체에서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Carte VitaCulture의 인터넷사이트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카드 발급 기관을 <그림 V-7>과 같이 지역별로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드 발급 기관은 청소년정보 창구,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매우 다양하다. 특별요금을 적용하는 문화시설에서 제공되는 공연, 콘서트, 축제 등에 관한 리스트는 Carte VitaCulture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한다.

특별요금 적용 문화시설 검색



Carte VitaCulture 발급장소 검색



<그림 V-7> Carte VitaCulture의 활용 지역 및 발급 지역

나. Carte Avantages culturels

Carte Avantages culturels은 Franche-Compté 지방의 지방청소년정보센터(CRIJ)에서 운영한다. 지방청소년정보센터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Carte Avantages culturels에 가입된 청소년의 수는 56,000여명이다.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할인제도, 특별요금 제도는 가맹점 혹은 후원 기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006년에 Franche-Compté 지방의 Crédit Agricole(은행)의 후원으로 3유로짜리 영화표 2매를 제공하는

행사를 하였는데 약 5,000명의 청소년이 그 혜택을 보았다. 이 카드를 통해 청소년 할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사업체는 연중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일정 비율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방청소년정보센터가 그에 대한 홍보를 맡는다.

다. Carte M'ra

Carte M'ra는 Rhône-Alpes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 카드는 여기에서 소개하는 프랑스 청소년카드 사례 중 유일하게 IC칩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카드 갱신, 서비스 포인트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고교 재학생 여부 확인을 거쳐 1주일 내로 카드를 집으로 우송해 준다.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Rhône-Alpes 지방이 지역 내 5개 곳에 설치한 지역사무소⁶⁾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교생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교과서류 구입 지원비용은 각 학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입력받을 수 있다. 또한 한번 카드를 발급받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고교 재학기간 중에는 학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매년 새로 교과서류 구입 지원비용을 입력 받게 된다. 잔액은 매번 사용할 때 마다 확인할 수 있고, 잔액이 모자라는 경우 모자라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라. Carte jeune 91

Carte jeune 91는 Essonne 지역의회⁷⁾ 청소년부서에서 운영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신청서와 함께 연령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역의회 청소년부서에 제출한다. 가입 청소년들은 세 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받게 되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시적으로 뉴스레터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매주 목요일에 뉴스레터를 받는다.

6) Région을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라 한다면 이 지역 사무소들은 도청의 분소라 할 수 있다.

7) Conseil général은 우리나라의 시·군·구 의회에 해당된다.

3) Imagine'R⁸⁾

Imagine'R는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26세 이하 학생들에게 전철, 버스, 경전철, 기차, 고속전철(RER) 비용을 할인해 주는 학생용 대중교통권이다. 일드프랑스 지역은 파리와 파리를 둘러싼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서울과 경기도를 합한 것과 유사하다.

(1) 할인대상

Imagine'R의 할인 대상은 26세 이하의 학생이다. 프랑스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스쿨버스가 부모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이 드물다. 따라서 Imagine'R는 주로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훈련생의 경우에는 훈련수준이 고교 수준 이하여야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취업 청소년이나 고교 수준 이상의 직업훈련생은 26세 이하라 하더라도 Imagine'R를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기간

Imagine'R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발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26세 이하여야 한다. 사용기간 내에 26번째 생일을 지나더라도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매년 9월 1일자로 발급하며, 대학생은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발급일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용기간은 선택한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예를 들면 2007년 3월에 Imagine'R를 신청한 경우 12월 말이면 사용기간이 종료된다.

(3) 혜택

가장 중요한 혜택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다. Imagine'R의 가격은 선택한 대중교통 권역(zone)에 따라 다르다. 파리 시내(1-2 zone)를 선택한

8) Imagine'R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주소 : www.imagine-r.com

경우 281.3유로인데, 성인들이 같은 권역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가격(530.2유로)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게다가 부활절 방학(2주), 겨울 및 봄 방학(각각 2주), 그리고 여름방학(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는 선택한 권역에 관계없이 일드프랑스 지역 내의 대중교통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청소년들의 주요 소비생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몽(영화관) 맥도날드, 나프나프(의류), 켈리오(의류), 장루이다비드(미용실) 등이 Imagine'R의 청소년 할인에 참여하고 있다.

(4) 재정지원

Imagine'R는 1998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를 만드는데 일드프랑스 지역 대중교통 노조, 일드프랑스 자치단체, 교통부, 교육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드프랑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재정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Le Val-de-Marne(94)는 Imagine'R를 구입한 학생들(Le Val-de-Marne 거주자)에게 구입비용의 50%를 환불해 준다.

4) 시사점

이상의 프랑스 청소년 우대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의 청소년 우대정책이 추구하는 정책이념 즉 “청소년 육성은 사회가 책임져야한다”는 이념을 우리 사회에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을 사회가 격려하는 셈이다. 청소년 우대정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체, 단체들은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소속감과 애향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가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민가족 출신의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소외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 우대정책의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할인 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층에 대한 홍보 효과를 추구하는 사업체나 단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에 비하면 부차적인 관심거리이다.

둘째, 현재 청소년 우대정책의 대표적인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대중교통기관이다. 청소년체육부가 국가적 수준의 청소년카드 제도를 실시했으나 정착되지 못했던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 청소년 정책이 강화되었고, 대기업이나 대규모 단체보다 지역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와 단체가 많이 참여하므로 지역 수준의 정책이 더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가 발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우대정책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우대정책의 대상은 대부분 26세 미만이나 주요 대상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류 구입비를 지원하는 Rhône-Alpes 지방 청소년카드의 경우 직업훈련생이나 원격교육생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외된 청소년들이 청소년 우대정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art VitaCulture의 카드발급을 담당하는 기관 중에는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정보제공 기관, 취업지원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청소년층에 대한 청소년 우대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넷째, 청소년 우대정책이 제공하는 우대서비스의 범위는 대체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교통수단 이용, 도서 및 생활용품 구입, 영화 관람, 박물관·미술관·유적지 관람, 스포츠클럽 이용, 축제 입장 등 매우 광범위하다. 물론 지역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고 Braconne & Charente 지역 청소년카드의 경우에는 스포츠 활동만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지역의 청소년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그 보다 훨씬 넓다. 또한 일드프랑스 지역의 Imagine'R 카드도 주요 용도는 대중교통수단 할인권이지만 영화 관람, 의류 구입, 미용실 이용 시에 할인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청소년 우대제도가 운영주체 이외에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사업체,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지역의 청소년카드 사례나 Imagine'R 카드 모두가 광범위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기관, 사업체, 단체 간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사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우대 서비스의 경우 홍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협력을 통하여 우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를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영국*

1) 정책방향

영국의 청소년 우대정책은 청소년사업을 카드제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전국 청소년의 90%이상이 청소년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업운영을 통해서 카드사용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청소년우대의 대상은 12~26세의 청소년이지만 12~18세의 청소년이 주요한 정책 대상이 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에도 비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사업과 카드의 연계가 이루어져 왔고, 2005년 녹서(Youth Matters) 발표 이후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청소년카드는 정부의 입장에서 행정적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입수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청소년카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 이 부분은 김경준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가 집필하였음.

2) 커넥션스 카드(Connexions card)

영국에서는 Connexions를 통해 학생이 아니면서 직업도 없는 16-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onnexions 서비스의 기원은 1999년 'Learning to Succeed: A new framework for post 16 learning' 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기인 16세 이후에 청소년들이 성인의 삶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청소년서비스인데, 특히 위기청소년(예, 약물남용, 가출, 미혼부모, 범죄 등)에게 개인적인 치료나 발달과업 프로그램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나 예술 활동, 자원 활동까지 지원하게 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커넥션스 카드(Connexions card)는 커넥션즈(Connexions)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 카드는 16~19세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카드로서 포인트 점수가 쌓이면 제휴업체들로부터 할인혜택을 받고, 학생증의 대용이나 청소년의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이다. 16~19세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인센티브를 받음으로 인해 학교나 직업학교 등 교육기관에 잘 다니고 성취도를 높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커넥션즈 센터에서는 학교나 직업학교 또는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사진촬영을 하여 카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포인트 점수는 활동별로 받게 되는데,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사립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이거나 회사나 기타 산업시설에 인턴으로 일하는 경우, 정해진 자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할 수 있다(윤철경 등, 2005). 청소년 대상 물건 판매 회사들은 청소년이 커넥션즈 카드를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주거나 특별행사기간에는 포인트 점수를 돈처럼 활용하여 물건을 살 수 있게 돕는다. 커넥션즈 카드를 가진 청소년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예를 들어, 2003년도에는 이벤트를 통해 카드소지

자 중에서 차가 당첨되거나 운전교습을 받거나 컴퓨터, 콘서트 티켓, CD나 DVD, 대기업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기회 등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커넥션즈 카드는 할인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학습센터에게 있어서 이 카드의 진정한 혜택은 출석에 따라 받게 되는 포인트이다.

영국정부에서 발행한 녹서인 ‘Youth Matters’ 에서는 더 많은 청소년이 새로운 Youth Opportunity 카드를 통해서 지금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것이라 한다. 그래서 신분증의 역할 및 다양한 할인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한 커넥션즈 카드는 2006년 8월 31일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2007년 2월말까지는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이후에도 커넥션즈 카드는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 기회카드(Opportunity card)라는 새로운 청소년 카드가 기존의 커넥션즈 카드의 기능을 계승·확대해 나갈 것이다(조아미, 2006).

3) 청소년 기회카드(Youth Opportunity Card)

기회카드(Opportunity card)는 2005년 녹서(Youth Matters)에서 청소년들에게 임파워먼트를 제공하려는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청소년이 할 일(things to do)과 갈 곳(places to go)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할 일과 갈 곳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지방정부에서 기회카드(Opportunity card)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카드는 청소년들이 할 일과 갈 곳에 대해 할인을 해주고, 청소년들이 스포츠나 다른 건설적인 활동을 하는데 쓸 돈을 청소년과 부모가 카드에 충전할 수 있게 한다. 시범사업을 전제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기회카드(Opportunity card)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소외된 13-16세의 청소년들에게는 기회카드(Opportunity card)에 돈을 충전해줄 것이다. 이 보조금은 청소년들이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만일 보조금을 받은 청소년이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한다면 카드가 정지되거나 회수될 것이다. 머니충전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005년 발표된 녹서(Youth Matters)에 대해 19,000명 이상의 청소년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여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06년 녹서(Youth Matters: Next steps)를 발간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10개 지역에서 카드 사업을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액수는 한 달에 12파운드,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 25파운드로 하여 시범 실시할 것이다. 기회카드를 시범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들이 청소년의 욕구와 희망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기금(The Youth Opportunity Fund와 Youth Capital Fund)으로 충당될 것이고, 앞으로 2년 동안 총 1억 1천5백만 파운드가 사용된다. 이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소외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지침이 제시된다(조아미, 2006).

하지만 2007년 2월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청소년기회카드의 시범실시를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소요되는 비용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훨씬 초과하고, 상당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이유로 들고 있다. 즉, 10개의 지방 정부에서 시범실시로 2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사용하였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비용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에서는 더 이상 시범실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청소년들에게 그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활동에 대하여 선택권과 발언권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BBC NEWS, 2007. 3.1).

4) 스코틀랜드 Young Scot Card

스코틀랜드에서는 12~26세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가 Young Scot Card의 발급이다.

Young Scot Card는 모든 스코틀랜드 지역Councils과 공동으로 만든 카드로서 연령증명(PASS), 현금이 필요 없는 학교급식(Cashless Catering), 레저/도서관 시설이용, 포상계획, 자금세탁방지, 수송할인, 문화활동참여 활성화 등의 기능을 한다. 스코틀랜드 내에서는 1,800개 종류의 할인이 이루어지고, Euro<26을 통해서는 200,000개 종류의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Young Scot Card 소유자는 310,000명으로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PASS Hologram을 가진 카드 보유자는 189,000명이며, 향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V-8> 스코틀랜드 Young Scot Card

National Entitlement Card는 모든 지역카드 및 Young Scot Card 기능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버스 기차, 페리 등의 할인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진다. 매년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에서 독립생활로 전환되는 전환기를 다루는 "Handbook to Life"를 발간하고 있으며, 학교에 160,000부를 보급하고 있음. Young Scot은 Euro<26의 이름을 갖는 42개 유럽국가 네트워크의 일부분으로 4백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Euro<26 Card를 가지고 있다. National Youth Information Portal(www.youngscot.org)의 운영과 Young Scot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Young Scot eRoadshow van 운영을 통하여 매년 평균 14,000명과 20,000마일의 범위를 담당하고 있다.

(1) Young Scot Card의 역사

국가 프로젝트로서 Young Scot card는 1981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스코틀랜드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처음 시작된 1981년 당시에는 단지 60페이지의 소책자만을 가지고 있었다. 소책자(Young Scot)를 100,000명 이상의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배포하였으며, 4년 후에는 스코틀랜드예술협의회(Scottish Arts Council)와 협력하여 첫 번째 할인카드를 만들었으며, 청소년실천기금(Young Scot Action Fund)을 운영하였다.

1987년에 스코틀랜드 내에 1,000여 곳과 유럽 국가에서 수천의 장소에서 할인을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유럽청소년카드처럼 첫 번째로 잡지(Young Scot Magazine)를 만들었다. 현재 새로운 책자를 발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www.youngscot.org) 운영을 통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과 연계하고 있다.

Young Scot는 시행 초기에서부터 청소년들에게 최상의 가능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과 그룹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세기가 가져오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Young Scot Card의 기능과 관련 사업

Young Scot Card는 연극·영화에서부터 쇼핑, 스포츠, 여행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할인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할인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 32개 지방 정부와 연계하여 개발한 새로운 카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도서관, 레저시설, 학교에서의 현금이 필요 없는 급식 및 온라인 투표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Young Scot 포털에 등록함으로써 온라인게임과 토론과 상담, 이메일 가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가 PASS 홀로그램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스코틀랜드소매협회(Scottish Retail Consortium), 무역표준기관(Trading Standards Institute), 스코틀랜드정부(Scottish Executive)의 보증에 의한 청소년들의 나이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Young Scot에서는 청소년실천기금(Young Scot Action Funds)을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개인에게 200파운드, 그룹에게는 750파운드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청소년실천기금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금이 있는데, 하나는 특별히 예술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위해서 스코틀랜드 예술협의회(Scottish Arts Council)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기금이며, 다른 하나는 보다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기금이다.

Young Scot은 유럽청소년카드연맹(European Youth Card Association, EYCA)의 설립회원이자 유럽청소년정보상담협회(European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Association, EYRICA)의 스코틀랜드 대표로서 유로 데스크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학업, 여행, 생활 및 취업 프로그램과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스코틀랜드예술협의회에서 지원되는 청소년예술정보개발프로젝트(Young Scot Arts Information Development Project)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양적·질적인 면에서 예술정보

를 확대하고 있는데, 청소년카드를 통해서 이용가능한 문화적 할인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다. 스코틀랜드 보건서비스(NHS Scotland)와 파트너십으로 보건정보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인 Feeling Good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청소년들에게 건강과 여행, 자원봉사, 예술, 스포츠, 주거, 금융 등의 정보를 링크시킴으로써 긍정적이고 건전한 라이프스타일과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카드의 개발과 지역사회 기획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지원 등을 위해 Dialogue Youth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Young Scot, COSLA, 스코틀랜드 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기획과정의 파트너들간의 공동 프로젝트이다.

(3) 카드 정보 제공

Young Scot 회원이 되면 책자(Young Scot Books), 잡지, 웹사이트, 이동차량(eRoadshow), 청소년전화(InfoLine) 등을 통하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핸드북을 통해서 교육, 직업, 보건, 여행, 자원봉사 및 레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한 가지는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의 전환기를 다루고, 또 다른 책에서는 고등교육 및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을 시작하는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년 새롭게 발간되고 있으며 각 영역의 전문가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다. 핸드북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 링크, 유용한 연락처 등을 담고 있다.

잡지는 1년에 4번 발간되고 있으며,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가지고 있다. 잡지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뉴스, 특집프로그램, 온라인경기 및 활동참여 기회 등을 담고 있다. Daily Record에 직접 배포될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청소년정보서비스, 그리고 KFC, McDonald, Megabowl 등과 같은 일부 할인점에도 카피본이 보내진다. 또한 Young Scot은 다양한 주제의 잡지와 관련되어 있다. NHS Scotland와 연합하여 12~16세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현

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Feeling Good’ 잡지와, 스코틀랜드 정보와 함께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한 개발문제를 다루는 ‘Change '05’ 가 있다.

Young Scot 웹사이트는 스코틀랜드 전국 청소년 정보 사이트로서, 청소년 관련 뉴스, 이슈, 유용한 링크, 대회, 토론게시판, 할인정보, 음악 및 영화 비평 등 2,500페이지에 달하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다. 웹사이트는 최첨단기능을 사용하고,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사이트인 32개의 하부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페이지에는 Dialogue Youth 프로젝트를 통해서 웹 저널리즘을 훈련받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작성된다. 또한 웹사이트에는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인 ‘Young Scot: Loud + Clear’ 과 더불어 포럼, 서베이, 이벤트 등록 및 온라인 청원 등이 포함된다.

Young Scot eRoadshow는 청소년들과 대면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위성 밴에는 35개의 무선 랩톱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의 청소년 친화적인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이버카페를 운영한다. 학교와 청소년센터, 쇼핑센터, 기타 공공 이벤트에 참여하여 청소년과 관련한 주제의 회합을 운영한다. 기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하고, 도전의식을 심어주며, 청소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 등을 한다.

청소년전화(Young Scot InfoLine)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서비스로서 0808 801 0338로 전화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전화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2시 정오에서 오후 8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청소년전화 운영진은 1명의 코디네이터와 3명의 숙련된 정보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주제를 연구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다. 현재 금융, 보건, 예술 등과 관련한 주제에 대하여 응답하고 있으며, 새롭게 전환된 정보웹사이트인 www.youngscot.org/infoline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청소년카드

가. 에버딘시의 Accord Card

에버딘시(Aberdeen City Council)에 의해서 개발된 Accord Card는 다기능적인 스마트카드로 서비스 및 할인기능과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에 사용될 수 있는 시민카드 기능을 가진다.



<그림 V-9> 에버딘시의 Accord Card

약 60,000개 이상의 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며, 에버딘시의 중·고등학생과 노년층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에버딘시의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Accord Card는 학교에서 현금 없는 급식, 무료식사를 위한 수당제공, 건강한 음식습관에 대한 포인트 제공 등을 한다. 또한 12세~26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스코틀랜드 1,800여개의 아울렛과 유럽 42개 국가의 200,000개의 장소에서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Young Scot 회원권이 제공된다. Accord Card로 할인받을 수 있는 곳은 스포츠·예술센터, 영화관, 미용실, 바디샵, 음식점, 상점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레저·스포츠·레크리에이션의 패스·부킹·특별할인 제공과 도서관 회원권 및 특별 요금을 제공한다. 특별히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 모든 지역에서 무료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 사용으로 연령 입증 가능성이 가능함으로써 소매상들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물건을 팔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나 레저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전자지갑(ePurse)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청소년 부모나 보호자가 수표를 만들어 카드 운영자에 제출하면, 수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카드에 적재되어 사용될 수

있다. 온라인 제공자에 의한 안전이 보장되면 웹에 기반한 지불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Accord Card의 잠재성은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다. 향후 211,000명 이상의 시 거주민들과 시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이곳에서 일하고 교육받는 사람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학교 등록, 안전한 건물접근, 주차티켓, 버스티켓,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포상계획 등이 시범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Accord Card는 시민들에게 카드 하나로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사용, 안전한 정보 이용, 편리함, 익명성 등의 이점을 준다. 시의 경우에는 정보관리와 행정 부담의 축소, 효율성과 유연성의 이점을 제공하며, 시에 대한 홍보, 사업, 관광 등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나. 글래스고 Young Scot Card

Aberdeen 시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 돈을 소지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위협을 방지하고, 가난한 청소년들이 무료급식을 받는데서 다른 학생들과 구분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2001년 이후 카드를 도입하였으며, 중앙에 센터를 두고 4개 지역에 스텝을 파견하여 현장과 연계하고 있다. young scot, 도서관, 학교방문, social worker 등을 통해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그림 V-10> 글래스고 Young Scot Card

카드에는 school meal에만 결제기능이 있고, 다른 서비스는 신분확인과 할인 등의 기능을 가진다. 5~11세까지는 kids card, 12~18세까지는 young scot card를 발급하고 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비용은 99펜스 정도 소요되나 발급비용은 없다. 재원은 city council에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고비 등을 통해서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young scot card의 경우에 글래스고 지역에서 야외활동, 미용, 외식, 여행, 쇼핑, 운전교습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령 증명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글래스고 지역의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코치 교육과정, 스포츠·레저센터의 특별할인, 포인트 적립, 무료 휴일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징적으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한 음식(Healthy eating)과 건전한 레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줘서 DVD, 스무디 음료 무료 제공에서부터 콘서트, 테마파크 이용권 등의 포상을 하는데, 레저·스포츠 활동시 포인트 적립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포상 내용	필요한 포인트 점수
무료 스무디음료	35
구디 백	50
DVD	50
휘트니스 강좌 참여	75
Activ 8 체육관 이용	75
골프 이용	75
배드민턴 및 탁구코트 이용	100
극장티켓	100
체육관 1달 회원권	125
스포츠 코칭코스	150
Activ 8 3달 패스	150
패션 상담 및 베네통 15파운드 바우처	175
콘서트 티켓 또는 테마파크 티켓	200
축구경기 티켓	200
골프코스 무제한 사용 주니어시즌 티켓	200

무료 휴일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카드를 소지하면 글래스고지역의 모든 레저센터와 수영장에서 적용되는데, 8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를 동반해야 하며, 시설 요원은 연령 증명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도서관, 레저센터, 박물관, 갤러리, 및 문화·스포츠시설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5) 시사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의 청소년카드 사용은 일상화 단계에 있으며, 학교급식, 여행, 문화, 레저·스포츠, 쇼핑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카드제도가 우리나라 청소년 우대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하여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청소년카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증은 단지 비학생의 신분 확인을 위한 것으로 학생과 구분되어 오히려 낙인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의 경우에도 유럽 등 선진국의 청소년카드에 비해서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학생증 자체가 없고 청소년 연령대는 청소년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과 비학생간의 차별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카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둘째, 청소년카드제도 운영의 핵심 단위는 청소년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는 지역, 특히 시·군 단위가 되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카드 제도를 청소년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카드는 청소년정책을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 청소년들이 정책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개발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 정부에서는 청소년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인트 제도의 개발, 시설 무료 개

방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전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 음식과 스포츠·레저활동 참여시 포인트 부여를 하고 포인트에 따라 포상을 제공하는 글래스고 지역카드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주말 시간대를 이용하여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활동 참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취약위기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직업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우대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영국의 커넥션스 카드 및 청소년기회카드의 사례에서와 같이 취약위기청소년들이 일탈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 건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기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VI. 청소년 우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청소년 우대제도의 문제점
2.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선 방안

VI. 청소년 우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소년 우대제도의 문제점

1) 청소년 우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우대제도로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청소년증 발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정책적인 추진의 지도 부족하다. 그동안 청소년 우대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었으며, 청소년 우대제도가 정책의 영역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영역이라는 점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다. 따라서 특별히 청소년 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할인이 결정되고 있지만, 대체로 할인내용이나 할인율이 대동소이하다.

둘째, 청소년들도 우대제도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나 이에 비해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청소년은 단지 10.6%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우대제도가 청소년정책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자신에게 부여되는 혜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부여되는 우대 혜택의 정도가 매우 낮다. 조사 결과에서 교통수단 중 항공과 배, 그리고 여행관련 상품과 레저·스포츠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소비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행 우대제도는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시설과 박물관, 공연 등의 문화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다양한 시설과 활동에 대한 청소년할인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과 함께 청소년증 보유율도 매우 낮아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78.9%가 청소년증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며, 조사 청소년의 4.7%, 비학생의 10.6%만이 청소년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보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홍보의 부족과 청소년증이 제시하고 있는 할인율이나 할인영역 등이 청소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데에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청소년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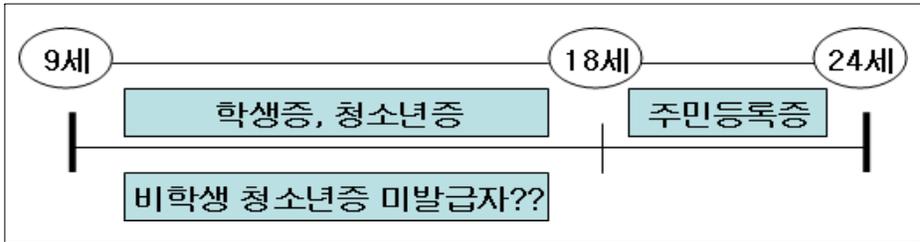
2) 법·제도상의 문제점

우리나라 청소년 우대제도의 내용은 상당부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우대 지원기관, 우대 주체와 객체, 우대방법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청소년우대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과 재정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러한 규정의 미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청소년증의 예를 들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된 제반 절차(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분담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둘째, 법에 청소년우대의 연령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의 우대와 관련된 연령범위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공·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학생증(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이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9세 이상 18세 이하에 발급), 그 밖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 VI-1> 청소년의 우대와 관련된 연령범위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비학생이고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는 그 밖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규정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셋째, 우대 시설의 종류 및 업체 등 우대의 객체와 관련해서 우대대상 시설이 제한되어 있고, 할인 또는 면제의 대상이 불명확하다. 또한 청소년할인 권고기관과 권고 수준이 제한되어 있다. 즉, 우대 대상시설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에 한정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미술관, 다목적회관 등의 대상 시설이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폭넓은 우대 대상시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할인 또는 면제의 대상의 경우에도 어떤 시설은 할인이 대상

이 되고 어떤 시설은 면제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인 권고 수준의 경우에는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단순히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권고대상 기관의 경우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되어 청소년 우대의 범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청소년증 발급기관이 불명확하고,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차별성이 없다.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의 구청장을 의미한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1항),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서 및 사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항).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증 발급기관이 읍·면·동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증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비학생 청소년들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야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2.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선 방안

1) 청소년 우대제도 개선 방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우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소년 우대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이 정립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우대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 우대제도 참여기관 및 시설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지자체 예산지원 확보를 위한 ‘청소년우대(카드)제도 조례’의 제정,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우대제도의 개발,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한 할인폭이나 할인율의 확대 및 홍보 강화,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한 새로운 청소년카드의 개발, 청소년증이나 청소년카드제 운영 시 청소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포인트 제도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 우대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립해야 한다. 선진 국가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배경에는 “청소년육성은 사회가 책임져야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이러한 이념의 바탕 위에서 다양한 우대제도가 개발·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여러 관련된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 우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부터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우대정책을 비롯한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에서 청소년정책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투표권의 연령을 낮추고 중요 정책에서 청소년들의 의사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카드모델 개발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청소년 우대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 우대제도는 중앙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나 단체의 참여가 우대제도의 운영에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청소년 관련 스포츠, 문화시설의 할인 등을 결정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공공 시설 위주로 우대제도의 범위나 폭이 그리 크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우대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

합한 청소년 우대제도의 모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국가의 지자체 우대제도의 사례를 토대로 장단점과 적용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 우대제도 참여기관 및 시설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예산지원 확보를 위한 ‘청소년우대(카드)제도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우대제도에의 국공립 시설 및 민간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 지원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청소년우대를 위한 할인카드의 개발과 더불어 기금(Young Scot Action Fund)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우대제도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자체 정책의 수행은 ‘청소년우대(카드)제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뒷받침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우대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각 국가에서는 자신이 처해있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일반 학생, 수험생, 실습생, 직업훈련생,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소외지역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대제도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학시즌 동안의 항공 수송의 편의를 위한 수험생활인제도, 실습생을 위한 실습용통학정기승차권제도, 근로청소년의 추석과 연말연시 귀성을 돕기 위한 근로청소년 여객운임할인제도, 영국에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건설적인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청소년기회제도(Youth Opportunity Card) 등이 이러한 우대제도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사회가 우대제도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우대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할인폭이나 할인율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증에 대한 청소년들

의 인식이 매우 낮고 보유율도 매우 떨어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어도 할인받을 수 있는 폭이 좁고,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앞으로 청소년증의 할인 폭을 높이고, 그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증의 확대 방향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인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과 레저·스포츠, 청소년시설 등의 우대 내용을 먼저 강화하고, 이후 각종 문화활동, 소비활동 등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증의 문제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우대제도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영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우대제도 실시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도적 정비도 요구된다.

여섯째,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하여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청소년카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증은 단지 비학생의 신분 확인을 위한 것으로 학생과 구분되어 오히려 낙인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의 경우에도 유럽 등 선진국의 청소년카드에 비해서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학생증 자체가 없고 청소년 연령대는 청소년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과 비학생간의 차별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카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청소년카드제 운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 시·도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전국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 청소년카드 운영의 기능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사업과 청소년카드제를 연계하는 것이다. 가령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내에 청소년카드 운영을 위한 전문팀을 배치하여 기존 청소년증에서 부여되었던 혜택에 부가하여 레저·스포츠, 문화시설 등 청소년관련시설 이용과 청소년정책 사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청소년카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정부에서는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지역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청소년카드 이용을 통해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결과를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소년카드를 기존의 청소년증 정도의 혜택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청소년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카드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 민간사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카드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스포츠, 문화 등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의 할인 또는 무료혜택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건전한 민간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지역청소년카드의 내용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카드사업의 추진은 지자체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별도의 조직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역청소년카드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서비스의 효율화와 대국민 홍보 확대를 꾀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일곱째, 청소년증이나 청소년카드제 운영 시 청소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인트 제도의 개발, 주말 등의 시기에 청소년 관련시설 무료 개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전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 음식과 스포츠·레저활동 참여시 포인트 부여를 하고 포인트에 따라 포상을 제공하는 글래스고 지역카드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주말 시간대를 이용하여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활동 참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2) 청소년 우대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청소년 우대의 지원기관에 대한 개선방안

현행법상 청소년 우대의 지원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청소년증 발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재정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간 균형 있는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우대지원을 위해 적정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국가의 정책이 지역간에 균등하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대의 주체(청소년의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청소년증 발급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모든 청소년에 발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우대 연령범위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제3항의 후단 부문 중에서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제3항의 후단의 규정을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두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률의 개정은 입법사항이고 시행령의 개정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시의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령에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여권, 휴대폰 인증서비스제, 국제청소년증, 국제학생증, 기타 연령 증빙자료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제4항에서 위임한 연령기준에 관한 어떤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법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에서는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 우대의 객체(우대 시설의 종류 및 업체)에 대한 개선방안

청소년 우대의 객체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폭넓은 청소년 우대 대상시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할인 또는 면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 규정사항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사항으로 전환하여 우대 적용의 융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청소년우대 권고 수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순히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 면제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우대 권고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에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할인 또는 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민간업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도 있으나,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청소년 우대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업체이지만 청소년 우대정책에 동참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우대의 방법(청소년증)에 대한 개선방안

청소년증 발급기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증은 2007년 전산화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one-stop서비스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즉, 신청인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적 절차를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자치구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의 개선방안

① 청소년 연령범위에 대한 재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범위를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재검토하여 통일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② 청소년우대정책을 위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강화

청소년기본법 제11조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VI-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조례명	내용
서울특별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제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 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 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6.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 7.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단체의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4조, 경상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전라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 등은 모두 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즉 모든 자치단체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으로 청소년 우대와 관련된 기능을 명시한 자치단체가 전무하다는 점

이다. 따라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 중의 하나로 청소년 우대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도록 조례 개정작업을 유도하고, 청소년 우대를 위한 종합적인 기획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청소년우대와 관련된 통합된 조례 정비

현행 각 자치단체별로 청소년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들이 대부분 시설별로 규정됨에 따라 통합적 실효성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정된 각 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청소년 우대의 지원, 주체, 객체, 방법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준칙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p>제6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p>제6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를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기타 민간업체 등

현행	개정안
<p>제7조(청소년증)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p> <p>②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⑤(신설)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우대지원을 위해 적절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법령집.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민영빈(1989). 뉴월드 한영대사전. 서울: 와이비엠시사영어사 p.1618.
- 신선미(1996). 청소년카드 도입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원구환(2006). 청소년증 발급 및 할인정책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5(1). pp. 251-289.
- 윤철경·조홍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지원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외(2001). 서울시 청소년문화카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한국청소년학회.
- 이희승(1994).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p.2814.
- 조아미(2006). 청소년 우대정책과 청소년증 활용방안.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인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9-51.
- 한국관광공사(1992). 국민복지관광 활성화방안: 도시열 투어리즘의 현황과 과제.
- 함병수·신선미(1997). 청소년카드제도를 위한 기초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6.11). 청소년카드 기본개념과 도입방안. 워크숍자료집.
- 한국청소년학회(2001). 서울시 청소년문화카드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한국청소년학회.
- BBS News(07.3.1).
-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Hg.)(2004). Wie? So! Information für junge Leute. Bochum: Kramps.
- DTV(1994). Jugendrecht. München: C.H. Beck Verlag.
- Owens, Julie.(2006). Information Kit for Youth, Australian Labour Party Parramatta, NSW.
-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kills(2005). Youth Matters. Norwich, NR3 1BQ.
- Young Scot(2007). YoungScot 07/08. Edinbrugh:HK Clarkson & Sons Ltd.
- Young Scot(2007). YoungScot. Edinbrugh: Young Scot(www.youngscot.org).(2007.08.13)
- 文部省生涯学習局1997年「私立博物館における青少年に対する学習機会の充実に關する基準」.
- 労働省労働基準局 1995年「勤勞青少年資料」東京: 労働省労働基準局.
- 内閣府編 2003年「青少年白書 : 青少年の現状と施策」-暮らしと社会」シリーズ-東京: 国立印刷局.

인터넷 사이트

Accord Card(2007). www.accordaberdeen.co.uk(2007.9.3).
City of Edinburgh Council(2006). A young person's guide to Youngedinburgh. (2007.08.14).
Glasgow Young Scot Card(2007). www.glasgow.gov.uk(2007.9.3).
ParentsCentre(1995-2007).www.parentscentre.gov.uk/foragegroup/16plusyears/connexionscard(2007.6.14).
Teachernet(2007). www.teachernet.gov.uk/teachers/issue26/secondary/inbrief/ConnexionCard
reachesaquarter of 16-19 yearolds_Secondary(2007.6.14).

<일본>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 Heritage(2007). 국립박물관 학생할인제도<http://www.nich.go.jp>(2007.07.2).
Ministry of Education, Culte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2007). 문부성 관련자료
<http://www.mext.go.jp>(2007.7.4).
위키피디아-Wikipedia(2007.7.3). 학생할인제도 <http://ja.wikipedia.org/wiki>(2007.7.10).
SWA/KASAI Takaya- 学割 FAQ(1996.4.18). 교통기관 학생할인제도 <http://www.swa.gr.jp/mmml/gaku-faq.html>(2007.7.10).
교육인적자원 교육통계서비스(2002). 교육통계 <http://cesi.kedi.re.kr/index.jsp>(2007.7.13).

<호주>

Australian Government Centrelink(2007). www.centrelink.gov.au(2007.7.10)
Australian Government Initiative Design Comp-winners announced(2007). www.thesource.gov.au
(2007.7.10).
Youth NSW(2006).Government's Website for young people and workers in the youth
field www.youth.nsw.gov.au(2007.7.14).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office for Youth Site(2006). www.officeforyouth.sa.gov.au
(2007.7.15).
Queensland Government(2007). www.communities.qld.gov.au(2007.7.16).
Youth Website, Youth Services-Victoria-Youth Central(2007). www.youthcentral.vic.gov.au
(2007.7.3).
Government online-service Tasmania(2007). www.service.tas.gov.au(2007.7.15).
CityRail(2006). <http://www.cityrail.info/fares/concessions.jsp>(2007.7.10).

<캐나다>

Canada's Movie Guide(2007). <http://cinemaclock.ca/aw/ctha.aw/p.clock/r.ont/m.Ottawa/j.e/k.Barrhaven.html>(2007.7.3).

Canada's Movie Guide(2007). http://www.cinemaclock.com/aw/ctha.aw/p.clock/r.bri/m.Vancouver/j.e/k.Fifth_Avenue.html(2007.7.4).

캐나다 관광청(2001). www.travelcanada.or.kr/travelinfo.html(2007.6.3).

BlueJaysHomepage(2001). http://toronto.bluejays.mlb.com/ticketing/singlegame.jsp?c_id=tor(2007.6.3).

Job Action Impacts City- Services City of Vancouver(2007). <http://vancouver.ca/parks/cc/mtpleasant/index.htm>(2007.7.8).

Vancouver Community College(2007). <http://vcc.ca/>(2007.7.9).

Bains Travel LTD.(2003). http://www.bainstravel.com/bainstravel_contactus.asp(2007.7.22).

Capilano Suspension Bridge(2006). http://www.capbridge.com/rates_information/index.html(2007.7.25).

Cruise Experts Online(2006). <http://www.cruiseexpertsonline.com/>(2007.6.13).

Real Decoy0The Great Canadian Theater Company(2007). <http://www.gctc.ca/boxoffice/>(2007.7.19).

GreyHounCanada Transportation Corp.(2007). <http://www.greyhound.ca/>(2007.6.25).

Grouse Mountain-The Peak of Vancouver(2002). http://www.grousemountain.com/rat_adm.cfm(2007.7.8).

Nature.ca-Canadian Museum of Nature-Ottawa,Ontario,Canada(2007). http://www.nature.ca/nature_e.cfm(2007.7.8).

Public Transit in Ottawa(2007). http://www.octranspo.com/fares_menue.htm(2007.7.8).

Pacific National Exhibition PNE-Vancouver, British Columbia(2005).
<http://www.pne.ca/playland/index.htm>(2007.7.8).

Royal Ontario Museum(2007). <http://www.rom.on.ca/>(2007.7.8).

Student Price Card(2007). <http://www.spccard.ca/deals.aspx>(2007.7.3).

Travel Pimensions Inc.-Vancouver Travel Agency(2007). <http://www.tditravel.com/contact.php>(2007.7.3).

The official City of Toronto website(1998). <http://www.toronto.ca/ttc/fares.htm>(2007.7.3).

Vancouver's Road and Transit Network(2007). http://www.translink.bc.ca/Transportation_Services/Fares_Passes/default.asp(2007.7.22).

Town of Aurora(2006). <http://www.town.aurora.on.ca/aurora>

/index_e.aspx?ArticleID=1163(2007.7.22).

Vancouver Institute of Media Arts(2007). <http://www.vanarts.com/>(2007.7.14).

Vancouver Tourism(2005). http://www.vancouverlookout.com/visitor_info.html(2007.7.13).

Playhouse-Theater Company(2006). <http://www.vancouverplayhouse.com/page140.htm>(2007.6.23).

Vancouver Museum(1999). <http://www.vanmuseum.bc.ca/>(2007.8.13).

Vancouver English Centre(2007). <http://www.vec.ca/english/6/>(2007.8.13).

VIA Rail Canada(2007). <http://www.viarail.ca/>(2007.8.5).

The Village Playhouse(2000). <http://www.villageplayers.net/villagepage.htm>(2007.8.5).

Toronto Travel Information on Guide; attractions, museums, shopping and Toronto hotels(2007). <http://www.123toronto.com/casa-loma.htm>(2007.7.3).

Toronto Travel Information on Guide(2007). <http://www.123toronto.com/old-fort-york.htm>(2007.7.3).

Toronto Travel Information on Guide(2007). <http://www.123toronto.com/toronto-cn-tower.htm>(2007.8.9).

Toronto Travel Information on Guide(2007). <http://www.123toronto.com/toronto-zoo.htm>(2007.8.9).

Travel Guides(2007). http://www.10best.com/Ottawa/Sights_&_Activities/Sightseeing/index.html?businessID(2007.7.3).

Champions Eastern Conferences(2007). <http://www2.ottawasenators.com/eng/Tickets/seatingdiagram.cfm>(2007.7.22).

Anderson South Carolina Area YMCA(2007). <http://ymca.electric-city.net/Membership.htm>(2007.7.11).

<독일>

Deutschlandfunk(2007). <http://www.dradio.de/dlr/sendungen/tacheles/343606/>(2007.6.11).

Euro26(2007). <http://www.euro26.de/>(2007.6.19).

Hannover.de-willkommen Zuhause(2007). <http://www.hannover-hausmarke.de/>(2007.6.19).

Jugendfeweerswehr Bremen(2007). <http://www.jugendfeuerwehr-bremen.de/?n1144704133/RSS/Echtzeitnetz>(2007.7.20).

Stadtwiki Karlsruhe-Right Reserved(2006). http://ka.stadtwiki.net/Karlsruher_Jugend_und_Kinder(2007.7.20).

<프랑스>

Das Sparkasse-Finanzkonzept(2007). <http://www.sparkasse-mol.de>(2007.7.11).

Alsace VitaCulture(2006). www.vitaculture.com(2007.7.19).

La Carte de tous les jeunes en Franche-comte(2005). Carte Avantages culturels
www.avantagesjeunes.com(2007.7.19).

Carte M'ra(2007). www.carte-mra.fr(2007.7.9).

Carte jeune 91(2006). www.cartejeune91.fr(2007.6.18).

Carte passe jeunes(2006). www.cc-braconne-charente.fr(2007.6.18).

Carte Nancy culture(2007). www.nancy.fr/documents/html/carte_culture/carte_culture.html
Carte Nancy culture(2007.6.18).

Carte TAG(2006). www.ville-manosque.fr/www/jeunesse/tag/tag.html(2007.6.18).

Imagine'R(2006). www.imagine-r.com(2007.6.5).

부 록

[부록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욕구조사 설문지

[부록2] 청소년우대제도에 관한 세부 변인별 분석표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개발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과 만족도, 그리고 우대제도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와 실용성과 유용성을 위해 질문의 답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7.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연구자: 김경준, 최인재, 설인자, 원구환(Tel. 02-2188-8832/8876)

5. 다음의 청소년우대(청소년할인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분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교통 수단	① 버스					
	② 지하철					
	③ 철도					
	④ 항공					
	⑤ 배					
문화 활동	① 공연					
	② 박물관/미술관					
	③ 영화/연극					
	④ 공연관람					
여가 관련 활동	① 놀이공원/동식물원					
	② 여행 관련 상품					
	③ 레저스포츠시설					
	④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등)					
소비 활동	① 미용실/이발소					
	② 체인음식점					
	③ 서적구입					
	④ 이동통신인터넷					
교육 진로 개발 활동	① 외국어 학원					
	② 예체능 학원					
	③ 직업훈련 학원					
	④ 컴퓨터 학원					

6. 귀하는 청소년 우대(할인)제도에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우대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② 우대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서
- ③ 우대(할인) 정도가 미미해서
- ④ 우대해 주는 곳이 적어서
- ⑤ 기타()

7. 청소년 중 우대 대상의 연령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9세 이상 - 18세 미만 ② 13세 이상 - 18세 미만
- ③ 9세 이상 - 24세 미만 ④ 기타()

8. 현재의 청소년할인제도 등 우대제도에 대한 개선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할인금액 등 우대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② 청소년 할인대상 영역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 ③ 할인 등 우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⑤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⑥ 기 타()

9. 청소년 우대 방식은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할인 ② 포인트적립 ③ 쿠폰 발행 ④ 기타()

* 다음은 각 영역별 이용정도 및 청소년 우대에 대한 필요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다음의 분류 중 각 영역에 대해 평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해 청소년 우대가 필요한 정도는 어떠한지 해당되는 칸 안에 √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평소 이용정도(지난 1년간)					청소년 우대 필요정도				
	없다	1년에 1, 2번	6개월에 1, 2번	1달에 1, 2번	1주일에 1, 2번 이상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교통 수단	① 버스									
	② 지하철									
	③ 철도									
	④ 항공									
	⑤ 배									
문화 활동	① 공연									
	② 박물관/미술관									
	③ 영화/연극									
	④ 공연관람									
여가 관련 활동	① 놀이공원 / 동식물원									
	② 여행관련상품									
	③ 레저스포츠시설									

	④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소비 활동	① 미용실/이발소																			
	② 체인음식점																			
	③ 서적구입																			
	④이동통신 ·인터넷																			
교육 · 진로 개발 활동	① 외국어학원																			
	② 예체능학원																			
	③ 직업훈련학원																			
	④ 컴퓨터학원																			
기타																				

* 위의 표 중 기타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표에 제시한 내용 이외에 더 필요한 영역을 기술해 주시고, 표에 √표 해 주십시오.

13-1. 다음은 각 영역별 청소년증 이용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분류 중 각 영역에 대해 지난 1년간 청소년증을 어느 정도 이용하였습니까? (청소년증을 가지고 계신분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없다	1년에 1, 2번	6개월에 1, 2번	1달에 1, 2번	1주일에 1,2번 이상
교통 수단	① 버스					
	② 지하철					
	③ 철도					
	④ 항공					
	⑤ 배					
문화 활동	① 공연					
	② 박물관/미술관					
	③ 영화/연극					
	④ 공연관람					
여가 관련 활동	① 놀이공원/동식물원					
	② 여행 관련 상품					
	③ 레저스포츠시설					
	④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14. 청소년증을 사용할 때 가장 우대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철도, 항공, 배 등)
- ② 문화활동 (궁능, 박물관/미술관, 영화/연극, 공연관람 등)
- ③ 여가관련활동
(놀이공원/동·식물원, 여행, 레저스포츠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 ④ 소비활동 및 서비스
(미용실/이발소, 서적구입, 체인음식점, 이동통신·인터넷)
- ⑤ 교육·진로개발활동
(외국어 학원, 예·체능 학원,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 및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귀하는 나이는? 만 ()세

16.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17. 귀하의 한 달 평균 용돈은 얼마입니까?

- ① 5만원 이하 ② 5만원 ~ 10만원
- ③ 10만원 ~ 15만원 ④ 15만원 ~ 20만원
- ⑤ 20만원 ~ 25만원 ⑥ 25만원 ~ 30만원
- ⑦ 30만원 이상

18. 귀하는 용돈을 다음 중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 ① 수송시설 및 서비스 (버스, 지하철, 철도, 항공, 배 등)
- ② 문화활동 및 서비스
(궁·능, 박물관/미술관, 영화/연극, 공연관람 등)
- ③ 여가활동 및 서비스
(놀이공원, 동식물원, 레저스포츠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 ④ 소비활동 및 서비스
(미용실/이발소, 서적구입, 체인음식점: 뽕스, 맥도널드 등)
- ⑤ 기타()

19. 귀하는 주로 용돈을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 ① 부모님으로부터 ② 아르바이트 해서 ③ 친척으로부터
- ④ 기타()

20. 귀하가 속하는 집단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중학생 ② 고등학생 ③ 대학생 ④ 비학생

21. 귀하의 거주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농어촌지역

22.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 - 200만원
- ③ 201만원 - 300만원 ④ 301만원 - 400만원
- ⑤ 401만원 - 500만원 ⑥ 501만원 이상

☺ 수고하셨습니다. ☺

[부록 2]

청소년우대제도에 관한 세부 변인별 설문분석표

1) 청소년 우대제도 영역별 만족도

(1)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

<표 부록-1> 버스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94	1.116	1.346
	여자(n=480)	2.85	1.118	
교급별	중학생(n=264)	2.83	1.137	1.528
	고등학생(n=258)	2.79	1.147	
	대학생(n=294)	2.95	1.117	
신분별	학생(n=816)	2.86	1.134	-2.126*
	비학생(n=188)	3.04	1.033	
지역별	도시(n=842)	2.93	1.099	1.818
	농어촌(n=162)	2.74	1.198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89	1.172	0.051
	중(201-500만원)(n=674)	2.91	1.096	
	상(501만원이상)(n=84)	2.89	1.13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2> 지하철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92	1.137	1.677
	여자(n=480)	2.80	1.123	
교급별	중학생(n=264)	2.79	1.113	1.174
	고등학생(n=258)	2.78	1.123	
	대학생(n=294)	2.91	1.190	
신분별	학생(n=816)	2.83	1.144	-1.907
	비학생(n=188)	3.00	1.065	
지역별	도시(n=842)	2.88	1.131	0.987
	농어촌(n=162)	2.78	1.135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83	1.102	0.374
	중(201-500만원)(n=674)	2.88	1.122	
	상(501만원이상)(n=84)	2.95	1.201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3> 철도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75	1.029	0.868
	여자(n=480)	2.70	1.017	
교급별	중학생(n=264)	2.73	0.966	0.239
	고등학생(n=258)	2.68	1.037	
	대학생(n=294)	2.73	1.135	
신분별	학생(n=816)	2.72	1.051	-0.671
	비학생(n=188)	2.77	0.895	
지역별	도시(n=842)	2.75	1.018	1.438
	농어촌(n=162)	2.62	1.046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66	0.991	0.678
	중(201-500만원)(n=674)	2.73	1.022	
	상(501만원이상)(n=84)	2.80	1.128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4> 항공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66	1.072	-0.038
	여자(n=480)	2.67	1.045	
교급별	중학생(n=264)	2.62	0.991	0.304
	고등학생(n=258)	2.66	1.088	
	대학생(n=294)	2.69	1.076	
신분별	학생(n=816)	2.65	1.052	-0.668
	비학생(n=188)	2.71	1.086	
지역별	도시(n=842)	2.70	1.060	2.294*
	농어촌(n=162)	2.49	1.035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64	0.975	0.158
	중(201-500만원)(n=674)	2.66	1.060	
	상(501만원이상)(n=84)	2.71	1.228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5> 배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63	1.071	-0.375
	여자(n=480)	2.66	1.018	
교급별	중학생(n=264)	2.64	1.077	0.047
	고등학생(n=258)	2.61	1.028	
	대학생(n=294)	2.62	1.017	
신분별	학생(n=816)	2.62	1.039	-1.419
	비학생(n=188)	2.74	1.069	
지역별	도시(n=842)	2.67	1.051	1.734
	농어촌(n=162)	2.52	1.011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64	1.003	0.016
	중(201-500만원)(n=674)	2.64	1.054	
	상(501만원이상)(n=84)	2.62	1.063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2)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

<표 부록-6> 공·능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87	1.005	-1.530
	여자(n=480)	2.97	1.035	
교급별	중학생(n=264)	2.85	1.021	1.132
	고등학생(n=258)	2.95	1.026	
	대학생(n=294)	2.97	1.025	
신분별	학생(n=816)	2.93	1.024	0.387
	비학생(n=188)	2.89	1.008	
지역별	도시(n=842)	2.96	1.023	2.664**
	농어촌(n=162)	2.73	0.991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96	0.922	0.597
	중(201-500만원)(n=674)	2.90	1.040	
	상(501만원이상)(n=84)	3.00	1.098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7>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3.02	1.077	-0.373
	여자(n=480)	3.05	1.061	
교급별	중학생(n=264)	3.04	1.107	0.016
	고등학생(n=258)	3.05	1.077	
	대학생(n=294)	3.06	1.045	
신분별	학생(n=816)	3.05	1.074	0.842
	비학생(n=188)	2.98	1.044	
지역별	도시(n=842)	3.08	1.065	3156**
	농어촌(n=162)	2.80	1.058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3.09	1.027	0.549
	중(201-500만원)(n=674)	3.02	1.056	
	상(501만원이상)(n=84)	3.12	1.226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8> 영화/연극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3.04	1.152	0.265
	여자(n=480)	3.02	1.190	
교급별	중학생(n=264)	3.02	1.215	0.001
	고등학생(n=258)	3.02	1.205	
	대학생(n=294)	3.02	1.154	
신분별	학생(n=816)	3.02	1.188	-0.507
	비학생(n=188)	3.06	1.088	
지역별	도시(n=842)	3.07	1.166	2.600*
	농어촌(n=162)	2.81	1.166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3.12	1.128	1.528
	중(201-500만원)(n=674)	2.98	1.158	
	상(501만원이상)(n=84)	3.14	1.337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9> 공연관람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89	1.037	-0.585
	여자(n=480)	2.93	1.131	
교급별	중학생(n=264)	2.89	1.092	0.196
	고등학생(n=258)	2.86	1.112	
	대학생(n=294)	2.91	1.082	
신분별	학생(n=816)	2.89	1.094	-1.384
	비학생(n=188)	3.01	1.032	
지역별	도시(n=842)	2.96	1.068	2.946**
	농어촌(n=162)	2.67	1.130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3.01	1.042	2.806
	중(201-500만원)(n=674)	2.85	1.076	
	상(501만원이상)(n=84)	3.07	1.19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3) 여가관련활동에 대한 만족도

<표 부록-10> 놀이공원/동·식물원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94	1.049	0.966
	여자(n=480)	2.88	1.096	
교급별	중학생(n=264)	3.01	1.115	1.984
	고등학생(n=258)	2.83	1.117	
	대학생(n=294)	2.88	1.031	
신분별	학생(n=816)	2.91	1.087	-0.500
	비학생(n=188)	2.95	1.001	
지역별	도시(n=842)	2.94	1.065	1.962
	농어촌(n=162)	2.76	1.097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92	1.037	· 2.971
	중(201-500만원)(n=674)	2.89	1.058	
	상(501만원이상)(n=84)	3.19	1.177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11> 여행관련상품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71	0.980	-0.133
	여자(n=480)	2.71	1.036	
교급별	중학생(n=264)	2.73	1.024	0.867
	고등학생(n=258)	2.66	1.026	
	대학생(n=294)	2.77	1.022	
신분별	학생(n=816)	2.72	1.024	0.726
	비학생(n=188)	2.66	0.930	
지역별	도시(n=842)	2.74	0.998	1.742
	농어촌(n=162)	2.58	1.044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73	0.971	2.917
	중(201-500만원)(n=674)	2.68	0.992	
	상(501만원이상)(n=84)	2.95	1.161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12>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73	1.057	1.286
	여자(n=480)	2.65	0.979	
교급별	중학생(n=264)	2.70	1.045	0.403
	고등학생(n=258)	2.65	1.078	
	대학생(n=294)	2.72	0.989	
신분별	학생(n=816)	2.69	1.035	-0.108
	비학생(n=188)	2.70	0.957	
지역별	도시(n=842)	2.72	1.011	1.429
	농어촌(n=162)	2.59	1.067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69	0.947	0.494
	중(201-500만원)(n=674)	2.68	1.037	
	상(501만원이상)(n=84)	2.80	1.05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13>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92	1.052	1.191
	여자(n=480)	2.84	1.071	
교급별	중학생(n=264)	2.86	1.078	0.986
	고등학생(n=258)	2.86	1.127	
	대학생(n=294)	2.97	1.045	
신분별	학생(n=816)	2.90	1.082	1.102
	비학생(n=188)	2.81	0.966	
지역별	도시(n=842)	2.89	1.060	0.598
	농어촌(n=162)	2.84	1.069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93	1.019	0.403
	중(201-500만원)(n=674)	2.86	1.062	
	상(501만원이상)(n=84)	2.90	1.137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4) 소비활동에 대한 만족도

<표 부록-14> 미용실/이발소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81	1.109	-0.390
	여자(n=480)	2.84	1.068	
교급별	중학생(n=264)	2.80	1.112	0.687
	고등학생(n=258)	2.88	1.108	
	대학생(n=294)	2.78	1.066	
신분별	학생(n=816)	2.81	1.094	-0.784
	비학생(n=188)	2.88	1.068	
지역별	도시(n=842)	2.86	1.085	1.966
	농어촌(n=162)	2.67	1.097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82	1.065	0.069
	중(201-500만원)(n=674)	2.82	1.079	
	상(501만원이상)(n=84)	2.87	1.21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15> 체인음식점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65	1.107	0.320
	여자(n=480)	2.63	1.034	
교급별	중학생(n=264)	2.67	1.100	0.418
	고등학생(n=258)	2.64	1.100	
	대학생(n=294)	2.59	1.040	
신분별	학생(n=816)	2.63	1.078	-0.353
	비학생(n=188)	2.66	1.049	
지역별	도시(n=842)	2.67	1.064	2.012
	농어촌(n=162)	2.48	1.105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69	1.043	0.190
	중(201-500만원)(n=674)	2.63	1.056	
	상(501만원이상)(n=84)	2.65	1.322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16> 서적구입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65	1.163	1.058
	여자(n=480)	2.58	1.101	
교급별	중학생(n=264)	2.69	1.168	1.960
	고등학생(n=258)	2.65	1.135	
	대학생(n=294)	2.50	1.153	
신분별	학생(n=816)	2.61	1.154	-0.538
	비학생(n=188)	2.65	1.046	
지역별	도시(n=842)	2.67	1.131	3.458**
	농어촌(n=162)	2.34	1.110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63	1.028	0.400
	중(201-500만원)(n=674)	2.60	1.133	
	상(501만원이상)(n=84)	2.71	1.376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17> 이동통신·인터넷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80	1.250	1.050
	여자(n=480)	2.72	1.133	
교급별	중학생(n=264)	2.81	1.219	1.611
	고등학생(n=258)	2.76	1.191	
	대학생(n=294)	2.64	1.174	
신분별	학생(n=816)	2.73	1.195	-1.500
	비학생(n=188)	2.88	1.193	
지역별	도시(n=842)	2.83	1.189	4.023***
	농어촌(n=162)	2.42	1.173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83	1.128	0.471
	중(201-500만원)(n=674)	2.74	1.207	
	상(501만원이상)(n=84)	2.71	1.285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5) 교육·진로개발활동에 대한 만족도

<표 부록-18> 외국어학원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52	1.100	-0.702
	여자(n=480)	2.57	1.067	
교급별	중학생(n=264)	2.49	1.039	1.684
	고등학생(n=258)	2.54	1.154	
	대학생(n=294)	2.65	1.075	
신분별	학생(n=816)	2.56	1.090	0.988
	비학생(n=188)	2.48	1.057	
지역별	도시(n=842)	2.59	1.109	2.945**
	농어촌(n=162)	2.35	0.921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57	1.006	0.084
	중(201-500만원)(n=674)	2.54	1.102	
	상(501만원이상)(n=84)	2.58	1.164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19> 예·체능학원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50	1.049	0.029
	여자(n=480)	2.50	1.050	
교급별	중학생(n=264)	2.47	1.053	2.090
	고등학생(n=258)	2.45	1.055	
	대학생(n=294)	2.62	1.048	
신분별	학생(n=816)	2.52	1.053	0.953
	비학생(n=188)	2.44	1.030	
지역별	도시(n=842)	2.53	1.065	2.412*
	농어촌(n=162)	2.33	0.946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57	1.048	1.312
	중(201-500만원)(n=674)	2.46	1.043	
	상(501만원이상)(n=84)	2.61	1.109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20> 직업훈련학원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56	1.056	0.611
	여자(n=480)	2.53	1.013	
교급별	중학생(n=264)	2.48	1.020	1.246
	고등학생(n=258)	2.55	1.040	
	대학생(n=294)	2.62	1.041	
신분별	학생(n=816)	2.55	1.034	0.203
	비학생(n=188)	2.53	1.041	
지역별	도시(n=842)	2.55	1.045	0.640
	농어촌(n=162)	2.50	0.986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60	1.032	0.400
	중(201-500만원)(n=674)	2.53	1.036	
	상(501만원이상)(n=84)	2.58	1.044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21> 컴퓨터학원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t값
성별	남자(n=524)	2.60	1.055	0.562
	여자(n=480)	2.56	1.024	
교급별	중학생(n=264)	2.54	1.042	0.293
	고등학생(n=258)	2.59	1.060	
	대학생(n=294)	2.61	1.032	
신분별	학생(n=816)	2.58	1.043	-0.002
	비학생(n=188)	2.58	1.028	
지역별	도시(n=842)	2.59	1.047	0.925
	농어촌(n=162)	2.51	1.005	
경제 수준별	하(200만원이하)(n=210)	2.58	1.005	0.009
	중(201-500만원)(n=674)	2.57	1.040	
	상(501만원이상)(n=84)	2.57	1.101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2) 청소년 우대제도 우대영역별 이용 정도

(1) 교통수단 이용 정도

<표 부록-22> 지난 1년간 버스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전체	x ² 값
교급별	중학생	1 (0.4)	8 (3.0)	12 (4.5)	57 (21.6)	186 (70.5)	264 (100.0)	38.667* **
	고등학생	4 (1.6)	2 (0.8)	4 (1.6)	34 (13.2)	214 (82.9)	258 (100.0)	
	대학생	1 (0.3)	6 (2.0)	2 (0.7)	26 (8.8)	259 (88.1)	294 (100.0)	
지역별	도시	5 (0.6)	10 (1.2)	17 (2.0)	115 (13.7)	695 (82.5)	842 (100.0)	20.939* **
	농어촌	4 (2.5)	8 (4.9)	6 (3.7)	28 (17.3)	116 (71.6)	162 (100.0)	
계		9 (0.9)	18 (1.8)	23 (2.3)	143 (14.2)	811 (80.8)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표 부록-23> 지난 1년간 지하철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 답	전체	x ² 값
교급별	중학생	27 (10.2)	31 (11.7)	26 (9.8)	89 (33.7)	91 (34.5)	-	264 (100.0)	88.525 ***
	고등학생	21 (8.1)	12 (4.7)	22 (8.5)	81 (31.4)	121 (46.9)	1 (0.4)	258 (100.0)	
	대학생	19 (6.5)	11 (3.7)	11 (3.7)	44 (15.0)	209 (71.1)	-	294 (100.0)	
지역별	도시	40 (4.8)	40 (4.8)	60 (7.1)	234 (27.8)	466 (55.3)	2 (0.2)	842 (100.0)	106.114 ***
	농어촌	39 (24.1)	20 (12.3)	23 (14.2)	27 (16.7)	53 (32.7)	-	162 (100.0)	
경제수준별	하 (200만원이하)	7 (3.3)	13 (6.2)	22 (10.5)	58 (27.6)	110 (52.4)	-	210 (100.0)	27.004 **
	중 (201-500만원)	69 (10.2)	43 (6.4)	55 (8.2)	177 (26.3)	328 (48.7)	2 (0.3)	674 (100.0)	
	상 (501만원이상)	3 (3.6)	3 (3.6)	3 (3.6)	15 (17.9)	60 (71.4)	-	84 (100.0)	
계		79 (7.9)	60 (6.0)	83 (8.3)	261 (26.0)	519 (51.7)	2 (0.2)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24> 지난 1년간 철도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교 급 별	중학생	124 (47.0)	100 (37.9)	32 (12.1)	6 (2.3)	2 (0.8)	-	264 (100.0)	38.287 ***
	고등학생	114 (44.2)	85 (32.9)	43 (16.7)	12 (4.7)	3 (1.2)	1 (0.4)	258 (100.0)	
	대학생	83 (28.2)	116 (39.5)	66 (22.4)	20 (6.8)	9 (3.1)	-	294 (100.0)	
경 제 수 준 별	하 (200만원이하)	89 (42.4)	67 (31.9)	33 (15.7)	14 (6.7)	7 (3.3)	-	210 (100.0)	22.194 **
	중 (201-500만원)	263 (39.0)	266 (39.5)	110 (16.3)	27 (4.0)	7 (1.0)	1 (1.0)	674 (100.0)	
	상 (501만원이상)	23 (27.4)	30 (35.7)	24 (28.6)	6 (7.1)	1 (1.2)	-	84 (100.0)	
계		386 (38.4)	374 (37.3)	176 (17.5)	51 (5.1)	16 (1.6)	1 (0.1)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25> 지난 1년간 항공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교 급 별	중학생	217 (82.2)	41 (15.5)	5 (1.9)	-	1 (0.4)	-	264 (100.0)	28.343 ***
	고등학생	182 (70.5)	73 (28.3)	2 (0.8)	1 (0.4)	-	-	258 (100.0)	
	대학생	190 (64.6)	95 (32.3)	8 (2.7)	1 (0.3)	-	-	294 (100.0)	
경 제 수 준 별	하 (200만원이하)	166 (79.0)	41 (19.5)	2 (1.0)	1 (0.5)	-	-	210 (100.0)	44.275 ***
	중 (201-500만원)	492 (73.0)	166 (24.6)	12 (1.8)	2 (0.3)	2 (0.3)	-	674 (100.0)	
	상 (501만원이상)	37 (44.0)	40 (47.6)	6 (7.1)	1 (1.2)	-	-	84 (100.0)	
계		717 (71.4)	260 (25.9)	20 (2.0)	4 (0.4)	2 (0.2)	1 (0.1)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26> 지난 1년간 배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지역 별	도시	676 (80.3)	142 (16.9)	18 (2.1)	2 (0.2)	3 (0.4)	1 (0.1)	842 (100.0)	15.302 **
	농어촌	119 (73.5)	36 (22.2)	2 (1.2)	4 (2.5)	1 (0.6)	-	162 (100.0)	
계		795 (79.2)	178 (17.7)	20 (2.0)	6 (0.6)	4 (0.4)	1 (0.1)	1004 (100.0)	

*p<.05, **p<.01, ***p<.001

(2) 문화활동 이용 정도

<표 부록-27> 지난 1년간 영화/연극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성 별	남자	33 (6.3)	75 (14.3)	158 (30.2)	207 (39.5)	50 (9.5)	1 (0.2)	524 (100.0)	17.021 **
	여자	14 (2.9)	47 (9.8)	140 (29.2)	237 (49.4)	42 (8.8)	-	480 (100.0)	
교 급 별	중학생	11 (4.2)	38 (14.4)	100 (37.9)	105 (39.8)	10 (3.8)	-	264 (100.0)	47.889 ***
	고등학생	15 (5.8)	27 (10.5)	89 (34.5)	102 (39.5)	24 (9.3)	1 (0.4)	258 (100.0)	
	대학생	10 (3.4)	33 (11.2)	54 (18.4)	161 (54.8)	36 (12.2)	-	294 (100.0)	
지 역 별	도시	31 (3.7)	105 (12.5)	261 (31.0)	366 (43.5)	78 (9.3)	1 (0.1)	842 (100.0)	15.543 **
	농어촌	16 (9.9)	17 (10.5)	37 (22.8)	78 (48.1)	14 (8.6)	-	162 (100.0)	
계		47 (4.7)	122 (12.2)	298 (29.7)	444 (44.2)	92 (9.2)	1 (0.1)	1004 (100.0)	

*p.1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표 부록-28> 지난 1년간 공연관람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전체	x ² 값
성 별	남자	179 (34.2)	158 (30.2)	114 (21.8)	63 (12.0)	10 (1.9)	524 (100.0)	11.899 **
	여자	124 (25.8)	154 (32.1)	129 (26.9)	69 (14.4)	4 (0.8)	480 (100.0)	
교 급 별	중학생	97 (36.7)	85 (32.2)	55 (20.8)	23 (9.5)	2 (0.8)	264 (100.0)	29.168 ***
	고등학생	80 (31.0)	90 (34.9)	57 (22.1)	25 (9.7)	6 (2.3)	258 (100.0)	
	대학생	69 (23.5)	80 (27.2)	86 (29.3)	54 (18.4)	5 (1.7)	294 (100.0)	
계		303 (30.2)	312 (31.1)	243 (24.2)	132 (13.1)	14 (1.4)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3) 여가관련활동 이용정도

<표 부록-29> 지난 1년간 놀이공원/동·식물원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성 별	남자	93 (17.7)	275 (52.5)	121 (23.1)	24 (4.6)	10 (1.9)	1 (0.2)	524 (100.0)	8.426 *
	여자	64 (13.3)	244 (50.8)	140 (29.2)	26 (5.4)	5 (1.0)	1 (0.2)	480 (100.0)	
지 역 별	도시	117 (13.9)	433 (51.4)	234 (27.8)	43 (5.1)	13 (1.5)	2 (0.2)	842 (100.0)	17.306 **
	농어촌	40 (24.7)	86 (53.1)	27 (16.7)	7 (4.3)	2 (1.2)	-	162 (100.0)	
계		157 (15.6)	519 (51.7)	261 (26.0)	50 (5.0)	15 (1.5)	2 (0.2)	1004 (100.0)	

*p<.05, **p<.01, ***p<.001

<표 부록-30> 지난 1년간 여행관련상품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교급별	중학생	143 (54.2)	69 (26.1)	41 (15.5)	8 (3.0)	2 (0.8)	1 (0.4)	264 (100.0)	25.349 **
	고등학생	120 (46.5)	80 (31.0)	52 (20.2)	3 (1.2)	3 (0.2)	-	258 (100.0)	
	대학생	116 (39.5)	109 (37.1)	54 (18.4)	15 (5.1)	-	-	294 (100.0)	
경제수준별	하 (200만원이하)	102 (48.6)	65 (31.0)	34 (16.2)	6 (2.9)	1 (0.5)	2 (1.0)	210 (100.0)	23.126 **
	중 (201-500만원)	322 (47.8)	218 (32.3)	114 (16.9)	17 (2.5)	3 (0.4)	-	674 (100.0)	
	상 (501만원이상)	26 (31.0)	30 (35.7)	21 (25.0)	5 (6.0)	2 (2.4)	-	84 (100.0)	
계		472 (47.0)	317 (31.6)	173 (17.2)	34 (3.4)	6 (0.6)	2 (0.2)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31> 지난 1년간 레저스포츠시설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성별	남자	254 (48.5)	136 (26.0)	74 (14.1)	37 (7.1)	22 (4.2)	1 (0.2)	524 (100.0)	19.258 **
	여자	265 (55.2)	120 (25.0)	71 (14.8)	21 (4.4)	3 (0.6)	-	480 (100.0)	
교급별	중학생	161 (61.0)	48 (18.2)	41 (15.5)	6 (2.3)	7 (2.7)	1 (0.4)	264 (100.0)	35.340 ***
	고등학생	131 (50.8)	65 (25.2)	40 (15.5)	16 (6.2)	6 (2.3)	-	258 (100.0)	
	대학생	120 (40.8)	100 (34.0)	42 (14.3)	23 (7.8)	9 (3.1)	-	294 (100.0)	
경제수준별	하 (200만원이하)	104 (49.5)	57 (27.1)	29 (13.8)	13 (6.2)	6 (2.9)	1 (0.5)	210 (100.0)	21.998 *
	중 (201-500만원)	363 (53.9)	167 (24.8)	100 (14.8)	31 (4.6)	13 (1.9)	-	674 (100.0)	
	상 (501만원이상)	32 (38.1)	27 (32.1)	10 (11.9)	10 (11.9)	5 (6.0)	-	84 (100.0)	
계		519 (51.7)	256 (25.5)	145 (14.4)	58 (5.8)	25 (2.5)	1 (0.1)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32> 지난 1년간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교 급 별	중학생	89 (33.7)	112 (42.4)	44 (16.7)	12 (4.5)	6 (2.3)	1 (0.4)	264 (100.0)	45.018* **
	고등학생	86 (33.3)	116 (45.0)	41 (15.9)	10 (3.9)	5 (1.9)	-	258 (100.0)	
	대학생	165 (56.1)	80 (27.2)	33 (11.2)	14 (4.8)	2 (0.7)	-	294 (100.0)	
신 분 별	학생	340 (41.7)	308 (37.7)	118 (14.5)	36 (4.4)	13 (1.6)	1 (0.1)	816 (100.0)	17.786*
	비학생	109 (58.0)	54 (28.7)	15 (8.0)	7 (3.7)	3 (1.6)	-	188 (100.0)	
계		449 (44.7)	362 (36.1)	133 (13.2)	43 (4.3)	16 (1.6)	1 (0.1)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4) 소비활동 이용정도

<표 부록-33> 지난 1년간 미용실/이발소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성 별	남자	17 (3.2)	15 (2.9)	119 (22.7)	347 (66.2)	26 (5.0)	-	524 (100.0)	77.913** *
	여자	10 (2.1)	42 (8.8)	207 (43.1)	209 (43.5)	11 (2.3)	1 (0.2)	480 (100.0)	
신 분 별	학생	20 (2.5)	44 (5.4)	271 (33.2)	446 (54.7)	35 (4.3)	-	816 (100.0)	11.344*
	비학생	7 (3.7)	13 (6.9)	55 (29.3)	110 (58.5)	2 (1.1)	1 (0.5)	188 (100.0)	
지 역 별	도시	20 (2.4)	41 (4.9)	266 (31.6)	482 (57.2)	32 (3.8)	1 (0.1)	842 (100.0)	12.815*
	농어촌	7 (4.3)	16 (9.9)	60 (37.0)	74 (45.7)	5 (3.1)	-	162 (100.0)	
경 제 수 준 별	하 (200만원이하)	6 (2.9)	14 (6.7)	87 (41.4)	95 (45.2)	8 (3.8)	-	210 (100.0)	16.944*
	중 (201-500만원)	20 (3.0)	39 (5.8)	197 (29.2)	394 (58.5)	24 (3.6)	-	674 (100.0)	
	상 (501만원이상)	1 (1.2)	2 (2.4)	34 (40.5)	44 (52.4)	3 (3.6)	-	84 (100.0)	
계		27 (2.7)	57 (5.7)	326 (32.5)	556 (55.4)	37 (3.7)	1 (0.1)	1004 (100.0)	

*p<.05, **p<.01, ***p<.001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34> 지난 1년간 체인음식점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χ^2 값
교 급 별	중학생	25 (9.5)	18 (6.8)	63 (23.9)	104 (39.4)	54 (20.5)	-	264 (100.0)	39.397 ***
	고등학생	13 (5.0)	21 (8.1)	56 (21.7)	109 (42.2)	58 (22.5)	1 (0.4)	258 (100.0)	
	대학생	15 (5.1)	7 (2.4)	34 (11.6)	144 (49.0)	93 (31.6)	1 (0.3)	294 (100.0)	
신 분 별	학생	53 (6.5)	46 (5.6)	153 (18.8)	357 (43.8)	205 (25.1)	2 (0.2)	816 (100.0)	15.018 **
	비학생	10 (5.3)	25 (13.3)	30 (16.0)	82 (43.6)	40 (21.3)	1 (0.5)	188 (100.0)	
경 제 수 준 별	하 (200만원이하)	15 (7.1)	26 (12.4)	53 (25.2)	79 (37.6)	36 (17.1)	1 (0.5)	210 (100.0)	32.632 ***
	중 (201-500만원)	40 (5.9)	40 (5.9)	112 (16.6)	306 (45.4)	174 (25.8)	2 (0.3)	674 (100.0)	
	상 (501만원이상)	5 (6.0)	3 (3.6)	9 (10.7)	37 (44.0)	30 (35.7)	-	84 (100.0)	
계		63 (6.3)	71 (7.1)	183 (18.2)	439 (43.7)	245 (24.4)	3 (0.3)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35> 지난 1년간 서적구입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교 급 별	중학생	26 (9.8)	43 (16.3)	100 (37.9)	82 (31.1)	13 (4.9)	-	264 (100.0)	36.662 ***
	고등학생	14 (5.4)	39 (15.1)	78 (30.2)	107 (45.1)	20 (7.8)	-	258 (100.0)	
	대학생	16 (5.4)	23 (7.8)	81 (27.6)	143 (48.6)	30 (10.2)	1 (0.3)	294 (100.0)	
신 분 별	학생	56 (6.9)	105 (12.9)	259 (31.7)	332 (40.7)	63 (7.7)	1 (0.1)	816 (100.0)	11.785 *
	비학생	18 (9.6)	37 (19.7)	61 (32.4)	58 (30.9)	13 (6.9)	1 (0.5)	188 (100.0)	
지 역 별	도시	60 (7.1)	132 (15.7)	267 (31.7)	319 (37.9)	63 (7.5)	1 (0.1)	842 (100.0)	12.126 *
	농어촌	14 (8.6)	10 (6.2)	53 (32.7)	71 (43.8)	13 (8.0)	1 (0.6)	162 (100.0)	
경 제 수 준 별	하 (200만원이하)	21 (10.0)	46 (21.9)	71 (33.8)	65 (31.0)	6 (2.9)	1 (0.5)	210 (100.0)	33.950 ***
	중 (201-500만원)	44 (6.5)	90 (13.4)	213 (31.6)	268 (39.8)	58 (8.6)	1 (0.1)	674 (100.0)	
	상 (501만원 이상)	5 (6.0)	4 (4.8)	24 (28.6)	40 (47.6)	11 (13.1)	-	84 (100.0)	
계		74 (7.4)	142 (14.1)	320 (31.9)	390 (38.8)	76 (7.6)	2 (0.2)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5) 교육·진로개발활동 이용정도

<표 부록-36> 지난 1년간 외국어학원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χ^2 값
교 급 별	중학생	163 (61.7)	12 (4.5)	9 (3.4)	18 (6.8)	61 (23.1)	1 (0.4)	264 (100.0)	34.781 ***
	고등학생	159 (61.6)	20 (7.8)	8 (3.1)	20 (7.8)	50 (19.4)	1 (0.4)	258 (100.0)	
	대학생	131 (44.6)	35 (11.9)	24 (8.2)	36 (12.2)	66 (22.4)	2 (0.7)	294 (100.0)	
신 분 별	학생	453 (55.5)	67 (8.2)	41 (5.0)	74 (9.1)	177 (21.7)	4 (0.5)	816 (100.0)	23.843 ***
	비학생	133 (70.7)	3 (1.6)	4 (2.1)	15 (8.0)	30 (16.0)	3 (1.6)	188 (100.0)	
지 역 별	도시	493 (58.6)	57 (6.8)	36 (4.3)	76 (9.0)	177 (21.0)	3 (0.4)	842 (100.0)	10.099
	농어촌	93 (57.4)	13 (8.0)	9 (5.6)	13 (8.0)	30 (18.5)	4 (2.5)	162 (100.0)	
경 제 수 준 별	하 (200만원이하)	149 (71.0)	13 (6.2)	8 (3.8)	19 (9.0)	20 (9.5)	1 (0.5)	210 (100.0)	31.796 ***
	중 (201-500만원)	373 (55.3)	53 (7.9)	33 (4.9)	60 (8.9)	149 (22.1)	6 (0.9)	674 (100.0)	
	상 (501만원이상)	42 (50.0)	3 (3.6)	3 (3.6)	8 (9.5)	28 (33.3)	-	84 (100.0)	
계		586 (58.4)	70 (7.0)	45 (4.5)	89 (8.9)	207 (20.6)	7 (0.7)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37> 지난 1년간 예체능학원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교 급 별	중학생	221 (83.7)	9 (3.4)	8 (3.0)	7 (2.7)	19 (7.2)	-	264 (100.0)	19.395 *
	고등학생	204 (79.1)	15 (5.8)	6 (2.3)	15 (5.8)	18 (7.0)	-	258 (100.0)	
	대학생	244 (83.0)	16 (5.4)	14 (4.8)	11 (3.7)	7 (2.4)	2 (0.7)	294 (100.0)	
계		829 (82.6)	47 (4.7)	29 (2.9)	43 (4.3)	54 (5.4)	2 (0.2)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표 부록-38> 지난 1년간 직업훈련학원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무응답	전체	x ² 값
교 급 별	중학생	261 (98.9)	1 (0.4)	1 (0.4)	-	-	1 (0.4)	264 (100.0)	42.749 ***
	고등학생	253 (98.1)	3 (1.2)	-	-	1 (0.4)	1 (0.4)	258 (100.0)	
	대학생	262 (89.1)	14 (4.8)	8 (2.7)	4 (1.4)	6 (2.0)	-	294 (100.0)	
신 분 별	학생	776 (95.1)	18 (2.2)	9 (1.1)	4 (0.5)	7 (0.9)	2 (0.2)	816 (100.0)	17.681 **
	비학생	175 (93.1)	3 (1.6)	-	1 (0.5)	9 (4.8)	-	188 (100.0)	
계		951 (94.7)	21 (2.1)	9 (0.9)	5 (0.5)	16 (1.6)	2 (0.2)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표 부록-39> 지난 1년간 컴퓨터학원 이용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전체	x ² 값
교 급 별	중학생	236 (89.4)	5 (1.9)	5 (1.9)	6 (2.3)	12 (4.5)	264 (100.0)	20.746 **
	고등학생	220 (85.3)	19 (7.4)	2 (0.8)	8 (3.1)	9 (3.5)	258 (100.0)	
	대학생	236 (80.3)	24 (8.2)	2 (0.7)	8 (2.7)	24 (8.2)	294 (100.0)	
계		862 (85.9)	52 (5.2)	10 (1.0)	25 (2.5)	55 (5.5)	1004 (10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이 제외됨

3) 우대영역별 필요 정도

(1) 교통수단 필요 정도

<표 부록-40> 버스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4.55	0.731	-1.776	1001
	여자(n=480)	4.63	0.647		
교 급 별	중학생(n=264)	4.56	0.738	1.166	-
	고등학생(n=258)	4.63	0.624		
	대학생(n=294)	4.55	0.722		
신 분 별	학생(n=816)	4.58	0.698	-0.727	287
	비학생(n=188)	4.62	0.672		
지 역 별	도시(n=842)	4.60	0.683	1.490	217
	농어촌(n=162)	4.51	0.741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 (a) (n=210)	4.44	0.769	5.489***	a<b
	중(201-500만원) (b) (n=674)	4.62	0.660		
	상(501만원이상) (c) (n=84)	4.58	0.779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41> 지하철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4.41	0.826	-1.871	1001
	여자(n=480)	4.51	0.734		
교 급 별	중학생(a) (n=264)	4.35	0.898	3.618**	c>a
	고등학생(b) (n=258)	4.49	0.713		
	대학생(c) (n=294)	4.52	0.719		
신 분 별	학생(n=816)	4.46	0.782	-0.088	276
	비학생(n=188)	4.46	0.797		
지 역 별	도시(n=842)	4.48	0.789	1.604	234
	농어촌(n=162)	4.37	0.755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a) (n=210)	4.35	0.829	2.743	-
	중(201-500만원)(b) (n=674)	4.47	0.778		
	상(501만원이상)(c) (n=84)	4.56	0.766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42> 철도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3.90	1.059	-1.577	1001
	여자(n=480)	4.00	0.934		
교 급 별	중학생(a) (n=264)	3.83	1.067	3.849**	c>a
	고등학생(b) (n=258)	3.93	0.968		
	대학생(c) (n=294)	4.06	0.936		
신 분 별	학생(n=816)	3.94	0.994	-0.214	271
	비학생(n=188)	3.96	1.041		
지 역 별	도시(n=842)	3.93	1.015	-1.584	241
	농어촌(n=162)	4.06	0.927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 (a) (n=210)	3.85	1.022	0.833	-
	중(201-500만원) (b) (n=674)	3.95	0.959		
	상(501만원이상) (c) (n=84)	3.94	1.226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43> 항공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3.70	1.064	-2.188**	1001
	여자(n=480)	3.84	1.009		
교 급 별	중학생(a) (n=264)	3.65	1.110	2.383	-
	고등학생(b) (n=258)	3.84	0.955		
	대학생(c) (n=294)	3.77	1.002		
신 분 별	학생(n=816)	3.75	1.026	-0.919	1002
	비학생(n=188)	3.83	1.101		
지 역 별	도시(n=842)	3.74	1.052	-2.076*	240
	농어촌(n=162)	3.91	0.968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 (a) (n=210)	3.67	1.091	0.860	-
	중(201-500만원) (b) (n=674)	3.77	1.003		
	상(501만원이상) (c) (n=84)	3.80	1.138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44> 배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3.60	1.081	-2.016*	992
	여자(n=480)	3.74	1.095		
교 급 별	중학생(a) (n=264)	3.55	1.156	2.187	-
	고등학생(b) (n=258)	3.74	0.996		
	대학생(c) (n=294)	3.65	1.037		
신 분 별	학생(n=816)	3.65	1.066	-1.336	262
	비학생(n=188)	3.77	1.182		
지 역 별	도시(n=842)	3.64	1.096	-1.833	234
	농어촌(n=162)	3.81	1.049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a) (n=210)	3.55	1.218	1.253	-
	중(201-500만원)(b) (n=674)	3.67	1.020		
	상(501만원이상)(c) (n=84)	3.71	1.178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2) 문화활동 필요 정도

<표 부록-45> 궁·능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3.66	1.084	-1.480	998
	여자(n=480)	3.76	0.932		
교 급 별	중학생(a) (n=264)	3.68	1.031	1.539	-
	고등학생(b) (n=258)	3.68	0.990		
	대학생(c) (n=294)	3.81	1.014		
신 분 별	학생(n=816)	3.73	1.013	1.135	278
	비학생(n=188)	3.63	1.023		
지 역 별	도시(n=842)	3.69	1.022	-1.677+	235
	농어촌(n=162)	3.83	0.969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 (a) (n=210)	3.50	1.013	4.926***	b>a
	중(201-500만원) (b) (n=674)	3.73	0.976		
	상(501만원이상) (c) (n=84)	3.79	1.109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46> 박물관/미술관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3.86	1.009	-3.173***	999
	여자(n=480)	4.05	0.883		
교 급 별	중학생(a) (n=264)	3.94	0.963	0.263	-
	고등학생(b) (n=258)	3.96	0.962		
	대학생(c) (n=294)	4.00	0.924		
신 분 별	학생(n=816)	3.97	0.948	1.092	272
	비학생(n=188)	3.88	0.985		
지 역 별	도시(n=842)	3.93	0.977	-1.977*	256
	농어촌(n=162)	4.07	0.823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 (a) (n=210)	3.83	0.884	1.478	-
	중(201-500만원) (b) (n=674)	3.95	0.944		
	상(501만원이상) (c) (n=84)	3.99	1.081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47> 영화/연극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4.35	0.887	-2.068*	996
	여자(n=480)	4.46	0.752		
교 급 별	중학생(a)(n=264)	4.36	0.838	1.316	-
	고등학생(b)(n=258)	4.47	0.785		
	대학생(c)(n=294)	4.41	0.845		
신 분 별	학생(n=816)	4.41	0.824	0.900	277
	비학생(n=188)	4.35	0.836		
지 역 별	도시(n=842)	4.38	0.833	-1.414	235
	농어촌(n=162)	4.48	0.790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a) (n=210)	4.23	0.850	6.440***	c>b>a
	중(201-500만원)(b) (n=674)	4.42	0.781		
	상(501만원이상)(c) (n=84)	4.56	0.949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48> 공연관람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별	남자(n=524)	4.07	0.969	-2.923**	1000
	여자(n=480)	4.25	0.931		
교급별	중학생(a) (n=264)	4.12	0.962	0.993	-
	고등학생(b) (n=258)	4.17	0.937		
	대학생(c) (n=294)	4.23	0.889		
신분별	학생(n=816)	4.17	0.929	1.044	257
	비학생(n=188)	4.09	1.061		
지역별	도시(n=842)	4.12	0.945	-2.600*	222
	농어촌(n=162)	4.34	0.985		
경제수준별	하(200만원이하) (a) (n=210)	4.01	0.958	2.884	-
	중(201-500만원) (b) (n=674)	4.16	0.924		
	상(501만원이상) (c) (n=84)	4.26	1.007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3) 여가활동 필요 정도

<표 부록-49> 놀이공원/동·식물원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4.09	1.018	-1.305	995
	여자(n=480)	4.17	0.857		
교 급 별	중학생(a) (n=264)	4.18	1.038	3.128*	b>c
	고등학생(b) (n=258)	4.22	0.875		
	대학생(c) (n=294)	4.03	0.923		
신 분 별	학생(n=816)	4.14	0.950	0.830	285
	비학생(n=188)	4.08	0.924		
지 역 별	도시(n=842)	4.11	0.956	-1.329	240
	농어촌(n=162)	4.22	0.883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a) (n=210)	4.08	1.009	0.942	-
	중(201-500만원)(b) (n=674)	4.10	0.911		
	상(501만원이상)(c) (n=84)	4.24	0.965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50> 여행관련상품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3.74	1.089	-0.218	1000
	여자(n=480)	3.76	0.950		
교 급 별	중학생(a) (n=264)	3.67	1.117	1.394	-
	고등학생(b) (n=258)	3.82	1.007		
	대학생(c) (n=294)	3.78	0.940		
신 분 별	학생(n=816)	3.76	1.021	0.405	276
	비학생(n=188)	3.72	1.038		
지 역 별	도시(n=842)	3.71	1.009	-2.426*	218
	농어촌(n=162)	3.94	1.085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a) (n=210)	3.64	0.974	2.430	-
	중(201-500만원)(b) (n=674)	3.72	0.986		
	상(501만원이상)(c) (n=84)	3.93	1.20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51> 레저스포츠시설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사후검증, 자유도
성별	남자(n=524)	3.80	1.058	0.890	1001
	여자(n=480)	3.74	0.944		
교급별	중학생(a) (n=264)	3.66	1.129	2.613+	-
	고등학생(b) (n=258)	3.81	0.992		
	대학생(c) (n=294)	3.85	0.919		
신분별	학생(n=816)	3.78	1.016	0.632	292
	비학생(n=188)	3.73	0.957		
지역별	도시(n=842)	3.73	0.991	-2.414*	219
	농어촌(n=162)	3.95	1.056		
경제수준별	하(200만원이하) (a) (n=210)	3.63	1.023	1.990	-
	중(201-500만원) (b) (n=674)	3.75	0.967		
	상(501만원이상) (c) (n=84)	3.87	1.05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52>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등)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3.83	1.093	-2.055*	1002
	여자(n=480)	3.97	1.017		
교 급 별	중학생(a) (n=264)	3.89	1.092	0.705	-
	고등학생(b) (n=258)	3.89	1.034		
	대학생(c) (n=294)	3.98	0.953		
신 분 별	학생(n=816)	3.92	1.025	1.327	254
	비학생(n=188)	3.80	1.193		
지 역 별	도시(n=842)	3.87	1.066	-2.128*	235
	농어촌(n=162)	4.06	1.011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a) (n=210)	3.78	1.115	1.720	-
	중(201-500만원)(b) (n=674)	3.88	1.003		
	상(501만원이상)(c) (n=84)	4.02	1.212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4) 소비활동 필요 정도

<표 부록-53> 미용실/이발소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4.24	0.986	-0.084	1002
	여자(n=480)	4.24	0.911		
교 급 별	중학생(a) (n=264)	4.27	0.991	4.137**	b>c
	고등학생(b) (n=258)	4.34	0.846		
	대학생(c) (n=294)	4.12	0.912		
신 분 별	학생(n=816)	4.24	0.922	0.073	255
	비학생(n=188)	4.23	1.069		
지 역 별	도시(n=842)	4.23	0.949	-0.739	225
	농어촌(n=162)	4.29	0.963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a) (n=210)	4.09	1.096	2.987*	b>a
	중(201-500만원)(b) (n=674)	4.27	0.890		
	상(501만원이상)(c) (n=84)	4.20	0.929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54> 체인음식점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별	남자(n=524)	4.12	1.040	-0.742	1002
	여자(n=480)	4.17	0.944		
교급별	중학생(a) (n=264)	4.12	1.050	4.532**	b>c
	고등학생(b) (n=258)	4.29	0.924		
	대학생(c) (n=294)	4.04	1.013		
신분별	학생(n=816)	4.14	1.002	0.148	288
	비학생(n=188)	4.13	0.964		
지역별	도시(n=842)	4.13	0.993	-0.934	226
	농어촌(n=162)	4.21	1.006		
경제수준별	하(200만원이하)(a) (n=210)	3.87	0.996	9.582***	b>a
	중(201-500만원)(b) (n=674)	4.21	0.954		
	상(501만원이상)(c) (n=84)	4.18	1.066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55> 서적구입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4.21	1.065	-2.624**	972
	여자(n=480)	4.36	0.816		
교 급 별	중학생(a)(n=264)	4.28	0.943	0.557	-
	고등학생(b)(n=258)	4.36	0.973		
	대학생(c)(n=294)	4.28	0.933		
신 분 별	학생(n=816)	4.31	0.948	1.631	272
	비학생(n=188)	4.18	0.990		
지 역 별	도시(n=842)	4.27	0.958	-0.582	1002
	농어촌(n=162)	4.32	0.957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a) (n=210)	4.04	1.035	8.086***	c>b>a
	중(201-500만원)(b) (n=674)	4.32	0.902		
	상(501만원이상)(c) (n=84)	4.40	0.995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56> 이동통신·인터넷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4.29	1.003	0.272	1002
	여자(n=480)	4.31	0.900		
교 급 별	중학생(a) (n=264)	4.28	1.052	3.797**	b>c
	고등학생(b) (n=258)	4.43	0.889		
	대학생(c) (n=294)	4.20	0.927		
신 분 별	학생(n=816)	4.30	0.961	-0.141	286
	비학생(n=188)	4.31	0.931		
지 역 별	도시(n=842)	4.27	0.980	-2.205*	262
	농어촌(n=162)	4.43	0.803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a) (n=210)	4.06	1.010	8.216***	b, c>a
	중(201-500만원)(b) (n=674)	4.35	0.912		
	상(501만원이상)(c) (n=84)	4.36	0.952		

+p<.1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5) 교육·진로개발활동 필요 정도

<표 부록-57> 외국어학원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3.82	1.152	-3.250***	1001
	여자(n=480)	4.05	1.025		
교 급 별	중학생(a)(n=264)	3.92	1.191	0.465	-
	고등학생(b)(n=258)	3.95	1.061		
	대학생(c)(n=294)	4.01	0.956		
신 분 별	학생(n=816)	3.96	1.069	1.824+	259
	비학생(n=188)	3.79	1.209		
지 역 별	도시(n=842)	3.90	1.107	-1.910+	236
	농어촌(n=162)	4.07	1.043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a) (n=210)	3.70	1.177	5.347**	b>a
	중(201-500만원)(b) (n=674)	3.98	1.026		
	상(501만원이상)(c) (n=84)	3.94	1.196		

+p<.1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58> 예·체능학원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3.67	1.149	-2.868**	996
	여자(n=480)	3.86	0.974		
교 급 별	중학생(a) (n=264)	3.74	1.129	0.425	-
	고등학생(b) (n=258)	3.81	1.079		
	대학생(c) (n=294)	3.81	0.973		
신 분 별	학생(n=816)	3.79	1.058	1.777+	268
	비학생(n=188)	3.63	1.128		
지 역 별	도시(n=842)	3.73	1.081	-2.103*	236
	농어촌(n=162)	3.91	1.018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 (a) (n=210)	3.62	1.131	1.930	-
	중(201-500만원) (b) (n=674)	3.78	1.002		
	상(501만원이상) (c) (n=84)	3.70	1.249		

+p<.1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59> 직업훈련학원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 사후검증, 자유도
성별	남자(n=524)	3.63	1.183	-1.342	1002
	여자(n=480)	3.73	1.065		
교급 별	중학생(a) (n=264)	3.62	1.177	1.321	-
	고등학생(b) (n=258)	3.78	1.114		
	대학생(c) (n=294)	3.70	1.041		
신분 별	학생(n=816)	3.70	1.110	1.222	265
	비학생(n=188)	3.58	1.206		
지역 별	도시(n=842)	3.65	1.131	-1.741+	230
	농어촌(n=162)	3.81	1.110		
경제 수준 별	하(200만원이하)(a) (n=210)	3.60	1.158	0.772	-
	중(201-500만원)(b) (n=674)	3.69	1.065		
	상(501만원이상)(c) (n=84)	3.57	1.320		

+p<.1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됨

<표 부록-60> 컴퓨터학원의 우대 필요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Scheffe사후검증, 자유도
성 별	남자(n=524)	3.72	1.201	-1.125	1002
	여자(n=480)	3.80	1.115		
교 급 별	중학생(a) (n=264)	3.88	1.334	0.645	-
	고등학생(b) (n=258)	3.79	1.142		
	대학생(c) (n=294)	3.78	0.993		
신 분 별	학생(n=816)	3.81	1.159	3.321***	283
	비학생(n=188)	3.51	1.140		
지 역 별	도시(n=842)	3.73	1.166	-1.644	232
	농어촌(n=162)	3.89	1.126		
경 제 수 준 별	하(200만원이하) (a) (n=210)	3.67	1.167	0.541	-
	중(201-500만원) (b) (n =674)	3.76	1.093		
	상(501만원이상) (c) (n=84)	3.69	1.388		

+p<.10 *p<.05, **p<.01, ***p<.001 *교급별은 비학생, 경제수준별은 무응답이 제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김석병 국가청소년위원회 · 복지지원팀장
박철휘 경인교육대학교 · 교수
조아미 명지대학교 ·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 교수
정익중 덕성여자대학교 · 교수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 교수

◆ 집 필 진 ◆

-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진숙 부경대학교 · 강사
이민희 평택대학교 · 교수
김옥선 호주 Hills Korean Women's Group · 회장
-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 발달 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 발달 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k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교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장근영·김남정·박정배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서정아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오성배·양계민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임희진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연규철·이교봉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강홍렬·고원·김민·김은경·김지선·김현주·나의순·마경희·손승영·손유미·우명숙·이승현·임천순·전상진·주용국·진미석·채재은·최규종·최순종·최화영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김기현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이창호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김경준·백혜정·강진구·김태희·송미경·이유미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조혜영·이춘화·김경준·김현철·김기현·임희진·임지연·길은배·김민·유홍식·전명기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황진구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송병국·오홍석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김승규·송순재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김기현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백혜정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백혜정·김형주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이경상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오해섭·이혜연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고유과제)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안

인 쇄 2007년 12월 18일

발 행 2007년 12월 2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선명인쇄 (주) 전화 (02)2268-4743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99-7 (93330)